



데이빗 영맥주석

출애굽기

David Spritual Commentary

출애굽기

'데이빗 영맥주석'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주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의미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성경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영맥주석'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여쭙가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주석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다면 이 주석을 권해 드립니다. 이 주석으

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성경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석은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매우 귀한 주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목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석을 통해 성경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저자 데이빗리 목사 올림

출애굽기 1장 =====

[출 1:1]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출 1:2]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출 1:3] 잇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출 1:4]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출 1:5]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칠십 인이었더라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의 전체 가족수는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에는 대략적으로 200만~300만명 정도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수는 저들이 애굽을 빠져 나왔을 때 민족수를 세어본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의 이스라엘 장정 수가 60만명에 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 12:37]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숙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

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

이스라엘은 여자와 어린아이의 숫자는 장정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장정에 대한 가족수를 추산할 때 대략적으로 2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요셉의 이름을 제외한 야곱의 열 한 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정식 부인의 순서에 따라 나열되었습니다. 레아의 소생으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잇사갈, 스블론이 언급되었고, 그 뒤에 라헬의 소생 베나민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면서 야곱의 부인이었던 빌하의 소생 단, 납달리가 소개되고 뒤이어 실바의 소생인 갓과 아셀이 언급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주한 가족의 수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 46:26]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육십륙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창 46:27]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칠십명이었더라”

이 부분에서 볼 때 70명 중에 포함되지 않은 야곱의 식솔은 야곱의 자부들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아내도 있습니다. 야곱의 첫번째 아내였던 레아가 애굽에 오기 전에 막벨라굴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레아는 애굽에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창 49:31]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 하였노라”

또한 라헬도 하란에서 헤브론으로 오는 과정에서 베나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남은 빌하와 실바가 야곱과 함께 동행했는지는 성경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살아 있었다면 야곱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야곱의 가족수가 모두 75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언뜻보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듯 보이지만 아마

도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5명의 손자까지 포함한 숫자인듯 보입니다.

“[행 7:14]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일흔 다섯 사람을 청하였더니”

[출 1:6]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출 1:7]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 1:8]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출 1:9]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출 1:10]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새 왕’이라는 뜻은 ‘다른’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

으며 이는 새로운 왕조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활동하였던 '히소스'(Hyksos)왕조가 붕괴되고 애굽의 18대 왕조(기원전 1580-1314)가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새 왕'은 18대 왕조의 세번째 왕인 투트모세 1세(Thutmose I, 기원전 1539-1514)로 볼 수 있습니다.

투트모세 1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함에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더 중한 노역을 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축복하사 자손이 더욱 번식하고 창성케 되었습니다.

[출 1:11]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투트모세 1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중한

노역을 시키면서 감시를 하기 위해 감독을 두었습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케 하였습니다. '국고성'(國庫城, Store cities)은 변방에 설치된 성으로써 유사시에 군량과 병기를 현지에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미리 식량과 무기를 비축해 두는 성이었습니다. '비돔'은 좁은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나일강과 아라비아만을 연결하는 운하지역을 말합니다. '라암셋'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투트모세 1세가 이렇듯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한 노역을 시킨 이유는 저들이 바쁜 노역생활에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한편으로는 중한 노역으로 인해 심신이 지치고 힘들어 자손을 낳을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자손을 낳게 되어 더욱 번식하고 창성케 되었습니다.

[출 1:12]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

여 근심하여

[출 1:13]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출 1:14]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
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라 이처럼 노역을 하는 것은 저들에게 있어서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욱 심한 노역을 강요하였으며 저들로 하여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및 농사의 여러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흙을 이기는 것은 흙 벽돌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흙벽돌은 성벽이나 울타리나 기타 가옥 등 일반적인 건축물에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벽돌'은 돌로 만드는 '돌벽돌'을 의미합니다. 이 돌벽돌은 궁궐이나 피라미트와 같은 대형 건물을 짓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정착하려는 마음을 버리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고센 땅

이 목축업 하기에 적합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지중해로부터 유브라데강까지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다시한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땅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신 11:24]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처럼 넓은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고작 가나안 땅의 일부일 뿐

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면적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의 면적을 비교하면 아마도 100배는 더 넓은 땅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땅을 참으로 넓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넓은 땅을 취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참으로 넓기 때문입니다.

[출 1:15]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아라 하는 자에게 일러

[출 1:16]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감에 따
른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노역을 시켜
심신을 피곤케 함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게 만들
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급기야 애굽 왕은 산파를 불러 사내아이가 낳게
될 때는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애굽왕이 명령을 받은 산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십브라'와 '부아'였습니다. 이들의 이
름이 셈족의 이름이기때문에 이들은 히브리인
산파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같은 민족의 산
파가 아이낳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심적으로 편
하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산파
들을 신뢰할 수 있기때문에 애굽왕이 히브리 산
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산할 때에’라는 말은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게 될 때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에 대한 표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RSV 성경은 “When you see them on the birthstool”(그녀들이 조산대 위에 있는 것을 볼 때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말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앉을 수 있도록 고안된 특별한 의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병원에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배려한 특별한 침대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조산을 위한 특별한 의자나 특별한 기구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출 1:17]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출 1:18]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출 1:19]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출 1:20]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

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출 1:21]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
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잠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
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
림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산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비록
아이를 낳도록 도와주는 산파일이었지만 그 일
을 하면서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간 것입니
다.

산파들은 바로왕이 문책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
를 가지고 대답하였습니다. 산파들은 “히브리 여
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
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바로왕이 산파들에게 그 모

든 책임을 묻고 벌을 가했다면 아마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경은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21절)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출 1:22]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했던 바로왕의 술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바로왕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수'는 나일강을 말합니다. 나일강은 수심이 깊어 갇난아이가 물에 빠지면 익사하여 죽게 되거나 강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악어에 의해 먹히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손에 의해 자신의 갇난아이

를 스스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왕의 명령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패역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로왕의 패역함을 보시고 오히려 바로왕의 장자 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치 못하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있게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

[출 2:1]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출 2:2]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달을 숨겼더니

[출 2:3]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었습니다. 아므람은 레위 족속에 속했습니다. 아므람의 아버지는 고탕이었는데 고탕은 레위의 아들이었습니다.

”[출 6:16]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탕과 므라리요 레위의 수는 일백 삼십 칠세이었으며 [출 6:17]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립니와 시므이요 [출 6:18] 고탕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고탕의 수는 일백 삼십 삼세이었으며 [출

6:19] 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출
6:20]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
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
며 아므람의 수는 일백 삼십 칠세이었으며”

아므람은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
였습니다'(출 6:20).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서 3개월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바
로왕이 모든 사내아이를 하수에 버리라고 명령
을 내렸기 때문에 마땅히 모세도 하수에 던져졌
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
의 '준수함'을 보고 그를 3개월간 집에 숨겼던 것
입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아이의 활동이
왕성해져서 도저히 집 안에 숨길수가 없었던 것
입니다. 하지만 정작 모세의 부모가 3개월동안
모세를 숨겼던 것은 아이가 태어나 스스로 생명
을 부지할 수 있을 정도의 면역력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어린 아이가 하수에
버려진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지만 그나마 3개월
정도를 자라왔기때문에 한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갈대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모세를 넣고서 하수가 살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갈대상자는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 칠하였기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갈대상자를 튼튼하게 만들었던 것은 모세의 생명을 위한 한 가닥 희망을 붙잡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를 위해 만들어진 갈대상자는 노아가 만든 방주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테바>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오직 '모세의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또한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창 6:14]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가 방주로 인해 생명을 구원받았듯이 모세 또한 갈대상자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출 2:4]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

리 섰더니

[출 2:5]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출 2:6]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
이로다

모세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
은 '아론'이었으며 누나의 이름은 '미리암'이었습
니다. 이들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출애굽을 도
왔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미리암을 보내어 모세를 실은 갈
대상자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케 하였을 것입
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서서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미리암
의 도움으로 인해 모세는 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핫셉슈트(Hatchepsut)'입니다. 그
녀는 애굽 18왕조의 창설자(아모세)의 아들 아
멘호텍 1세의 딸과 투트모세 1세 사이에서 태어
난 딸로써 무남독녀였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나

일강 하수에 설치된 목욕하는 곳에서 시녀들과 있었는데 바로 그때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시녀들이 갈대상자에서 모세를 봤을 때 곧바로 모세가 히브리인임을 알았던 것은 셈족과 애굽인의 얼굴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출 2:7]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출 2:8]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미리암은 자신의 동생 모세를 구하기 위해 위험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미리암은 바로의 딸에게 나아가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라고 고하였습니다. 노예인 히브리인의 여인이 이처럼 당돌하게 바로왕의 딸에게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니다.

바로의 딸 '핫셉슈트'는 미리암의 말대로 유모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바로딸 앞에 데려왔습니다.

[출 2:9]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값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출 2:10]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의 딸은 요게벳에게 모세를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젖을 먹여 키우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값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도 귀한데 바로딸의 양자로 입양되는 복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데려다 젖을 먹이며 키웠습니다. 대략적으로 모세가 젖을 떼는 나이는 3세 정도

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기 이전에 이미 히브리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인들의 발음을 따라 불려진 이름입니다. 만약에 바로딸이 모세의 이름을 '모세'라고 사용했다면 모세의 이름은 애굽식으로 '모두세스'였을 것입니다. '모'(Mo)는 '물'과 '우세스'(Uses)라는 '건져냈다'라는 뜻이 합쳐진 '모두세스'가 모세의 애굽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출 2:11]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출 2:12]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모세가 장성하였습니다. 어느새 그의 나이가 4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행 7:23] 나이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애굽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그의 얼굴 생김새가 애굽 사람과는 사뭇 다른 점이나 또한 자신의 출신 성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의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을 것입니다.

훗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언급하셨습니다.

“[출 4:14]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고서 애굽에 다시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론'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형 아론이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형 아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이미 아론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만약에 모세가 형 아론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면 모세는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미 아론을 알고 있었으며 만남도 가졌을 것입니다.

[출 2:13]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출 2:14]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재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출 2:15]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돕기 위하여 애굽 사람을 쳐죽이고 모래에 감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계기로 바로왕을 피해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자가 애굽인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일로 쫓겨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기때문에 모세가 애굽을 황급히 떠날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살인 사건이 있었을 때의 바로왕은 투트모세3세(Thutmose III, B. C. 1504-1448)였습니다. 그는 투트모세2세와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투트모세2세는 모세의 어머니였던 왕비 핫셉슈트(Hatshepsut)였는데 그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서 모세를 양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녀의 남편인 투트모세2세가 죽게 되자 핫셉슈트가 애굽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투트모세3세는 자신의 천적이었던 모세를 없애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자 투트

모세3세는 이 사건을 애굽민족과 히브리민족간의 싸움으로 비화시켜 모세를 정치범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투트모세3세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5절의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는 투트모세3세가 얼마나 모세를 미워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 했는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찾은지라'는 단어는 '간절히 탄원하다'는 뜻으로써 모세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바로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도망간 곳은 목축을 위주로 하는 유랑하는 미디안 사람들이 거주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40년간 살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객지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으며 모세는 이 광야생활을 통해 정금같이 탄생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연단의 과정은 필요한 법입니다. 모세가 광야의 연단세월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변모하였듯이 우리 또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출 2:16]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버지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출 2:17]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출 2:18] 그들이 그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출 2:19]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모세는 미디안 족속의 도움을 받고 그들과 함께 광야생활을 시작합니다. 모세는 제사장의 일곱 딸을 도와 주었는데 그 일로 인해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19절에 그 제사장의 이름은 '르우엘'이라고 언급됩니다. 이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 혹은 '전능자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을 섬길 때 그 의식을 집행하는 제사장이었다는 뜻입니다.

르우엘의 이름은 '이드로'(3:1;18:1) 또는 '호밥'(민 10:9;삿 4:11)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르

우엘'이라는 이름은 그의 본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드로'로 자주 불리워졌습니다.

[출 2:20]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출 2:21]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출 2:22]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맺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십보라는 이드로의 맏딸로 보여집니다. 십보라는 모세로부터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습니다. 그녀는 매우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미디안 족속의 여성들이 남성처럼 강했는지도 모르지만 십보라는 남편 모세에게 매우 강한 성격을 표현한 여성이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

에도 함께 가지 아니하고 자신은 미디안의 아버지와 함께 거할 정도로 자신의 의시가 분명한 여인이었습니다(출 4:24-26).

“[출 4:24]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출 4:25] 십보라가 차돌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출 4:26]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 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 광야에 거할 때에도 아버지 이드로의 권유에 의해 어렵게 모세와 함께 했을 정도로 매우 강직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출 18:2-4).

“[출 18:2]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 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출 18:3]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함이요

[출 18:4]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십보라가 모세로부터 낳은 아들 '게르솜'은 '이방인' 또는 '도피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에서 도망쳐 피난생활을 하고 있음을 자식의 이름을 통해 담아놓은 것입니다.

[출 2:23]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출 2:24]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 2:25]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바로왕이 죽었습니다. 모세를 죽이기 위해 안간힘을

다 했던 투트모세3세가 죽은 것입니다. 그는 모세의 어머니 핫셉슈트가 죽은 후 대략 32년 동안 애굽을 통치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광야로 떠난지 4년만에 죽었습니다. 투트모세3세의 대를 이어 아멘호텝2세(Amenhotep II, B.C. 1448-1424)가 애굽을 통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멘호텝2세가 통치할 시기에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오랜 세월동안 모세를 연단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세처럼 광야의 연단이 있습니다. 어쩌면 누구에게나 거쳐 지나가야 하는 광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 더욱 귀한 정금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깨닫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모세처럼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

[출 3:1]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
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기 위해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모세는
양들을 치기 위해 좋은 목축지를 찾다가 간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이 호렙산은 시내산과
도 같은 산입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그 두 산의 구분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호렙산과 시내산
이 같은 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
여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호렙산
은 '거룩한 산'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정상 가까이 출
입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것을 어기는 자는 죽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

섰습니다.

“[출 19: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출 3:2]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 3:3]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출 3: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처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본 것은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없어지고 대신에 하나

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 지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도 먼저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언급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삿 13:18]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
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
라 [삿 13:19]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 하나
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삿 13:20] 불꽃이 단에서부
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
가 단 불꽃 가운데로 좇아 올라간지라 마노
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
고 엎드리니라 [삿 13:21]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
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삿 13:22]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다”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 ‘여호와와 사자’와 ‘하나님’의 단어가 얼마나 자주 혼용되어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쫓김을 당하였을 때에도 ‘주의 천사’와 ‘하나님’의 단어가 함께 섞여 언급되었습니다.

“[창 21:17]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창 21: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창 21:19]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을 혼용하듯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법을 생각해 볼 때 모세가 만난 분은 ‘여호와’의 사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사자를 보내어 준비 시켜놓으신 다음에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표현에서 자주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던 것은 그만큼 유대민족이 천사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기때문이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출 3:5]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선 곳은 거룩

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렙산이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어디든지간에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출 3: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출 3:7]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출 3:8]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출 3:9]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출 3: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이 약속은 400여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창 15: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

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창 15:14]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찌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 3:11]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 3:12]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 3:13]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출 3: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모세는 너무나 두려워하였습니다. 자신처럼 보잘것없고 나약한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양들을 치는 목자의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무엇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없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것때문에 모세는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며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해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했듯이 우리 또한 나약함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세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일이라도 해 낼 것입니다.

[출 3: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
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
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
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
으리라"(12절)고 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
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모세는 그런 하나님에 대
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
세는 하나님께서 "만일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의 이름이 무엇이나?"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말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
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키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
나님께서서는 다른 신들과는 달리 스스로 존재하
신 분이십니다. 그렇기때문에 모든 사람보다 뛰

어나시며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 3:16]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출 3:17]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하나님께서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땅입니다.

"[창 15: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

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창 15:14]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찌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여 그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이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 3:18]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서 실천하기란 매우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스스로를 가리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담대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출 3:19]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출 3:20]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출 3:21]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 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출 3:22]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패물을 얻어 떠났습니다.

“[출 12: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출 12:36]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대로 주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 15: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창 15:14]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찌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요? 다른 민족도 있을텐데

요?”라고 묻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못된 성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해 주시면 좋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 금새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들의 성품은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가끔은 짜증이 날 지경입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치고 '왜 저렇게 못되고 불평 불만이 많은 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셨을까?'란 질문을 안 해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매우 번덕이 심하고 당파간의 싸움이 잦으며 전통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전통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결점을 찾으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못된 성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곧잘 이스라엘 백성을 깔보기도 하고 "어쩜 그렇게 못됐을까"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결점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

시고 저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저들이 사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아니라 실제로는 황무지와 광야, 물이 없는 땅으로써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매우 열악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늘 외세의 침입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나라의 크기도 우리나라의 1/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과 대전간의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엔 농사를 지을만한 충분한 물이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비를 통해 농사를 짓지만 워낙 비가 잘 오지 않아서 비를 통해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땅은 대부분이 석회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워낙 빗물을 빨리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물이 땅 밖에 고여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가 물의 근원지이지만 바다 수면보다 200미터~400미터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곳의 물을 땅 위로 끌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평야지대라고야 해 봤자 사론평야가 전부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방법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세계 곳곳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워낙 똑똑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비해서 훨씬 절제되고 자제력이 강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들을 따라 잡을 민족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의 나라

이스라엘의 남동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를 둘러싼 지역엔 광야가 많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세레요한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광야는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낮에는 4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0까지 내려갑니다. 낮은 엄청난 여름이요 밤은 매우 추운 겨울입니다. 하루에 봄부터 겨울까지 다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매우 부지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거나 질병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기 위해 일교차가 심한 환경을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살아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마귀에서 틈을 주지 않게 하려는 배려이기도 합니다(엡 4:27).

비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

이스라엘 땅은 비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이 석회암으로 이뤄져 있어서 비가 와도 사실은 금방 땅 밑으로 흡수되고 맙니다(신 11:10-11). 그래도 비가 와야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매우 척박하고 황량한 땅입니다. 우리나라같이 땅만 파고 씨를 뿌리면 자라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사시사철 비가 내리는 땅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

런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에서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땅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일년 내내 비가 온다고 해 봐야 고작 11월부터 시작해서 3월이면 비가 끝납니다. 봄이 되면 온 땅이 건조해집니다. 수목과 지면이 바짝 마르기 시작합니다. 5월로 접어들면 건기는 더욱 심해 집니다. 건기가 9월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모든 수목과 작물들이 타 죽어 갑니다. 1년 12개월 중 7개월이 건기이니 가나안 땅은 사실 저주받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비는 겨우 5개월 정도 내리지만, 우리나라는 1년 내내 비나 눈이 옵니다. 그것도 여름철 장마 땀 집이 떠내려 갈 정도로 심한 비가 옵니다. 가끔씩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제하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농사하는데 있어서 비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감칠 날 정도의 비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가지고 농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도대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이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

를 멈추시면 죽음이요 비를 내리시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해도 하나님
께서 비를 내려 주시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 딱딱해진 땅이 물
렁물렁 해지고 그곳에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 심은 씨에서 싹
이 트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11월부터 내
리기 시작한 비를 <이른비>라고 하고 3월의 비
를 <늦은비>라고 합니다. 3월에 비가 내리지 않
으면 애써 심어 놓은 씨는 말라 비틀어져 버리
고 맵니다. 곡식이 자라다가 말라 죽고 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의 늦은비는 농사를 위해 절
대적으로 필요한 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
성들은 비가 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농사는 사람
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
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주인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
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
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
니다. 내 힘으로 공부를 하고 내 힘으로 돈을 벌

어서 내 힘으로 집을 사서 내 힘으로 행복을 가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행동이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슥 4:6).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애굽과 같은 사람입니다. 애굽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예 섬길 이유조차 갖지 못하는 땅입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애굽은 비가 안 와도 괜찮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흘러 내리는 나일강은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 없이 농사를 짓게 만듭니다. 애굽은 가뭄 자체가 뭔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1년 365일 언제나 넘

쳐 흐르는 나일강은 하나님을 의지할만한 이유 하나라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1년에 한두 번밖에 비가 내리지 않지만 그것이 농사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다가 관개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발로 밟기만 하면 물이 애굽의 온 땅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땅이 애굽입니다. 언뜻 보면 좋아 보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뿌듯합니까?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삶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주받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면 이미 그것은 지옥을 만들어 내는 환경입니다.

빠져 나갈 구멍이 없는 곳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만큼 꼭 막힌 곳이 없을 것입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면이 초나라 군대로 꼭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옆으로도 빠져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사면초가의 상태입니다. 왼쪽으로 보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바다로 뛰어 들어 봤자 물고기 밥이 될 것입니다. 순전히 모래사장뿐이어서 항구를 만들어 배를 띄울 만한 땅이 아닙니다. 오른쪽에는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사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해를 넘어가 봤자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 쪽속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윗쪽은 아람(오늘날의 수리아)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랫쪽은 애굽이 진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강대국들이 가나안땅을 먹겠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나안땅은 하루도 편하게 쉴 수 없는 곳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숨막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야만 사방의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지 않으시면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땅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힘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의 왕도 해결 못합니다. 부모도 해결 못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해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는 환경에 산다고 해서 불평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사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쓰시어 하나님만을 찾을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세상으로 나가다니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나부터 그런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어쩌다 병이 들면 하나님께 따집니다. "내가 뭘 잘못 했기에 이런 병을 주십니까?" 하며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것도 하나님께 따집니다. 남편과 이혼한 것도 하나님 잘못이고, 회사가 망한 것도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철부지 인생을 버립시다. 좋지 못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림으로 나아갑시다. 좋지 못한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신 깊은 뜻을 헤아려 봅시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합시다.

바다보다 더 낮은 땅

가나안 땅은 대부분이 높은 산과 계곡으로 이뤄

져 있습니다. 물론 지중해 근처에는 평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약간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평야는 크게 3개로 나뉩니다. 가장 위쪽이 아코 평야이고 가장 아래는 블레셋 평야입니다. 가운데 놓여져 있는 평야가 우리가 잘 아는 샤론 평야입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샤론의 꽃 예수>란 가사가 있습니다. 샤론 평야에는 꽃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백합화>가 바로 샤론 평야에서 나는 <샤론의 꽃>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지중해를 거쳐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오다 보면 산들이 줄이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 윗쪽의 헬몬 산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산들이 사해 끝자락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산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지들을 넘게 되면 계속해서 땅이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지의 왼쪽에서 측정하는 높이와 오른쪽에서 측정하는 높이가 다른 것은 오른쪽 부분이 깊은 계곡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사실 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보고 <성전 위에서 뛰어 내리라>고 했을 때 높이는 800미터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63빌딩의 높이가 250미터 정도이니 예루살렘 성전의 높이는 63빌딩 높이의 3배 이상이나 됩니다.

산지 오른쪽에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나 사해 바다는 사실 호수입니다. 하지만 그 넓이와 깊이가 바다처럼 거대해서 바다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발보다 212미터나 내려가 있습니다. 바다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놓여진 호수입니다. 이것은 마치 땅 속에 호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은 흘러 내려 사해에 이릅니다. 사해(Dead Sea)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죽음의 바다>입니다. 바다가 너무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400미터나 낮게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212미터 정도 아래에 있으니 사해는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밑에 위치한 것입니다.

사해가 죽음의 바다라고 불린 것은 사해의 물이 더 이상 다른 곳으로 흘러 내리지 않음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로부터 유입된 물은 사해에 다다른 후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흐르는 물과 함께 떠 내려온 고기들이 사해에 이르러 갑자기 물 위로 튀어 오른다고 합니다. 물이 너무 짜기 때문에 고기들이 깜짝 놀라 튀어 오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해는 짠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갈릴리바다와 사해가 왜 그렇게 낮게 위치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지역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짐승의 냄새가 펄펄 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태어나신 예수님을 누인 곳은 짐승의 밥통인 구유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의 겸손하심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 오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걸치시고 이 땅에 내려 오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을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갖게 해 주신 소중한 어머니지만 죽으시면서 제자의 손에 어머

니를 의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어서도 남의 무덤에 안치되셨으며 부활하신 후에도 친히 제 자들과 함께 생선과 떡을 떴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겸손> 그 자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교만>해 지려고 합니다. 스스로 원해서든지 원하지 않든 교만과 함께 살아갑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예수님 잘 믿었다"라고 말하고, "나, 예수님 잘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까지 말합니다. 여전히 <교만함>을 치장하면서 말입니다.

막혀버린 죽음의 바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 나오는 물이 바다에 이르면 그 바다를 소성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 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겔 47:9)

성전에서 흘러 나오는 물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는 곳에는 반

드시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서 소성하는 바다가 되었을 지라도 그 물이 고여있는 진펄과 개펄은 죽을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진펄은 늪지대를 말합니다. 이곳의 물이 들어가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진펄은 계속해서 진펄로 남는 것입니다. 개펄은 저수지나 물웅덩이를 말합니다. 이곳의 물도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물이 썩고 맵니다.

사해는 마땅히 갈릴리에서 흘러온 물을 다시 다른 곳으로 흘러 내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을 위해 꼭 쥐고 있었기에 물이 썩고 죽어버렸습니다. 항상 갈릴리 바다로부터 받기만 했지 남에게 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고 죽고만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새생명을 얻습니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금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만 은혜를 받고 만다면 그 사람은 사해처럼 죽은 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요즘은 남에게 상처주지 않으면 감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 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은 몸만 교회에 있고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사탄처럼 악한 짓을 저지르니 그 사람이 사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출 3:15)라는 말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문장은 히브리어로 <예흐웨 아쉐르 예흐웨>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예흐웨>는 '나는 존재한다(I am)'의 뜻입니다. 또한 <아쉐르>는 관계대명사 who 의 뜻으로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없으시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지존자(自存者)입니다.

“[계 1:8]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의 히브리어는 <예호와>입니다. 이것을 영어식으로 표기하면 ‘YHWH’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시하여 그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본 필사자들이 성경을 피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쓰던 붓을 부러뜨리고 목욕을 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에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

출애굽기 4장 =====

[출 4:1]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모세의 가장 큰 걱정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때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지만 40년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생활을 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약하고 능력없는 천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에 가서 애굽왕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임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에 권세를 더하셔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출 4:2]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출 4: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출 4: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출 4:5]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출 4:6]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 같이 흰지라

[출 4:7]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기 위하여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막대기를 던졌을 때 뱀이 되게 하셨고 그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변케 하셨습니다(2-4절). 또 다른 한 가지는 모세의 손을 그의 품에 넣을 때에 문둥병이 걸리게 하였는데 다시금 품에 넣었더니 건강한 손이 되게 하셨습니다(6-7절).

[출 4:8]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출 4:9]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왕이 앞서 행한 두 가지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때에 나일강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에 담

대한 믿음을 갖도록 배려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세는 두려움에 가득차 있었습니다.

[출 4:10]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 4:11]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방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는 계속해서 두려움에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할 이유를 찾고 싶었나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말씀 드려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전히 모세는 자신의 능력없음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조금도 인식치 못한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눈으로 보고 아는 것과 그의 생각으로 느끼는 혼적인 부분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의 영이 깨어나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영이 깨어나야만 비로소 강력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출 4:12]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 4:13]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

[출 4:14]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출 4:15]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출 4:16]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

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출 4:17]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11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네가 더 이상 빠지 말라.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이제는 애굽에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보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봤고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봤으며 자신의 말 주변이 없음을 봤습니다. 이러한 무능력함때문에 애굽에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한 무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첨가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무능력함만을 바라봤을 때는 절대로 애굽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는 애굽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을 때 아무 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하나님께서 너희의 할 말을 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0:19]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마 10: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는 모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말을 하여 주십니다.

[출 4:18]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
고 드디어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모세는 장인어른인 이드로에게 애굽땅에 가겠
다고 고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원대로 애굽
에 가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사
실대로 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드로가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이유이기도 했지만 위대한 사명을
놓고 사사로이 이방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 또한
좋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장인어른이라고는 할
지라도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만일 하나 장인어른이 애굽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하나님의 명
령에 대한 것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을 수 있었습
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 장

인어른이 행여라도 엉뚱한 계획이라며 모세의 발걸음을 가로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 4:19]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죽이려 했던 투트모세3세가 죽은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려는 일들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던 투트모세3세가 죽었으니 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출 4:20]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출 4: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박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출 4:22]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출 4:23]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출 4:24]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출 4:25] 십보라가 차돌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출 4:26]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 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애굽에 가는 모세에게 돌발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입니다. '

길의 숙소'는 여행객을 위해 마련된 숙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십보라에게서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할례의식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십보라는 차돌을 취하여 아들들의 양피를 베어 할례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라고 비아냥거리듯 말을 내뱉었습니다. 십보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십보라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들의 할례의식을 행하지 않은 것때문에 그리 화를 내시면서 모세를 죽이려까지 하신 것을 보고서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결국 십보라는 그곳에서 자식들을 데리고 다시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 거주할 때에 장인어른의 도움으로 두 사람이 함께 하게 되었지만 십보라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것은 모

세가 자식들을 할례하지 않은 것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십보라의 거만하고 못된 성격때문에 행여 거룩한 사역을 그르칠까봐 일부러 하나님께서 십보라를 모세로부터 떼어놓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출 4:27]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아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출 4:28]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출 4:29]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출 4:30]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출 4:31]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드디어 모세는 형 아론을 만납니다. 27절은 아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든지 아니면 꿈에 현몽하듯 들었든지 알 수는 없으나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5장 =====

[출 5:1]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드디어 애굽왕을 대면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40년 전에만 해도 바로 이 궁궐에서 왕자로 있었던 모세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매우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의 인생도 뒤바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잘 나갔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서 인생의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모세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

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고 전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우리 스스로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전하고 우리의 감정을 전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이라는 수식어구를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이라는 수식어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기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들은 것이 없으니 인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꿈에서 듣든지 천사를 통해 듣든지 아니면 성경말씀을 통해 듣던

지 내면의 음성으로 듣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출 5:2]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정세로 볼 때 초대형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노예로 붙잡아 놓은 히브리인의 지도자의 말을 들을리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바로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수백만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섬겼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가 모를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

니”라고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보내라는 모세의 말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듣고 싶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가 신성모독죄의 값을 톡톡히 치렀듯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역시 그 죄값을 지불해야만 할 것입니다.

[출 5:3]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하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는 바로의 다소 위협적이고 냉소적인 반응

에 위촉된 듯 보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기를 허락하소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허락하소서'라는 히브리어는 <나>인데 이 단어는 마치 사람이 신에게 간청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절히 애원하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한 나라의 왕에게 간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세가 바로의 위엄앞에 기가 꺾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그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간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지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네와 네 가족과 네 백성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

[출 5:4]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

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출 5:5]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
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출 5:6]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
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출 5:7]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출 5:8]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
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므
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
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출 5:9]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
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권세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에 믿지 않
는 자에게 이러한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할지라도 믿
지 않는 자의 반응이 바로의 태도와 비슷하겠지
만 사역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현저하게 다른 것입니
다. 비록 상대자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로 강력하게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떳떳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바로는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고 모세를 매우 무시했습니다. 바로의 말은 "너희의 엉뚱한 소리는 집어치고 가서 너희들이 할 일이나 하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모세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무시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말은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출 5:10]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아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쟁을 주지 아니하리니

[출 5:11] 너희는 쟁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출 5:12]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쟁을 대신하니

[출 5:13]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출 5:14]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출 5:15]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출 5:16]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출 5:17]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출 5:18]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을 여수히 바칠지니라

[출 5:19]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출 5:20]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벽돌 만들 짚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직접 벽돌 만들 재료인 짚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들어야 할 벽돌 분량은 똑같이 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중한 노역에 시달리며 할당량을 완수하지 못하자 간역자들이 패장을 때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지지 이스라엘 패장들은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워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저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게으르다"며 화를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바로가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 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줄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 하소연을 하며 도와

달라 요청합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당신 생각에는 적절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생각했던 문제해결자보다 더 확실한 문제해결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옳바른 방법입니다.

[출 5:21]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와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출 5:22]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출 5:23]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패장들은 바로에게 꾸지람을 듣고서 쫓겨나다시피 내어침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거하는 고센 땅으로 오는 길에 모세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패장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저주하였습니다. 마치 "강남에서 뽀뽀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패장들의 원망과 저주의 소리를 들은 후에 곧장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을 후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니이다"(23절)라며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내뱉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사람에게 뽀뽀 맞고 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묻는 잘못을 자주 범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범죄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잘못이고 남편에게 뭘 일이 터져도 하나님 잘못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다시금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터지고 문제가 발생하자 금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잊어버릴 때 항상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에 사역을 내려 놓고 싶어집니다. 아무 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예배하기도 싫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져 갑니다. 좀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

[출 6: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하므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하므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 내리라

[출 6: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출 6: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거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처음 밝히신 것입니다. 이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하심입니다.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여호와' 이름을 밝히신 것입니다.

[출 6:4]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출 6:5]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때가 이르러 모세 때에 맺은 언약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창 15: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창 15:14]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찌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 6: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 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출 6:7]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줄 너희가 알지라

[출 6: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출 6:9]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출 6: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 6:11]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출 6:12]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출 6:1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는 자꾸만 뒤로 빼려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뒤로 빼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히 10:37]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
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 10:38] 오
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
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물론 모세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스라
엘 백성을 인도하여 40여년간을 인도하였지만
뒤로 빼려는 그의 성품은 항상 있었습니다. 모세
가 뒤로 빼려는 성품을 제외하고는 참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그
만큼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만한 자였기 때
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
을 것처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도 모세처럼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의 생활도 해 봤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생활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모세처럼 여러 굴곡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있게 하심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 6:14]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เบน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เบน의 족장이요

[출 6:15]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족장이요

[출 6:16]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수는 일백삼십칠 세이었으며

'그 조상을 따라'라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지파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근간으로 세우셨습니다. 12지파의 가장 큰 어른은 '르우벤' 족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몬'족장이었고 그 다음은 '레위'족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레위'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난 것을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민 8:17]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짐승이야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죽일 수 있지만 처음 난 자녀를 짐승 죽이듯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자녀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신 것입니다.

“[민 3:41]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
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
라”

그렇기때문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신의 의지와 뜻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
님께서 이것을 하라하면 이것을 행해야 하고 저
것을 하라하면 저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님께서 죽으라 하면 하나님을 위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
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 드러
진 레위지파와 같은 자들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목회자는 주
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영적 레위인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스스로 주님께 드린 자는 다 영적 레위인
입니다. 스스로를 가리켜 주님께 드려진 제물이

라 여기는 자는 레위인처럼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출 6:17]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립니와 시므이요

[출 6:18]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일백삼십삼 세이었으며

[출 6:19] 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출 6:20]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일백삼십칠 세이었으며

[출 6:21]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와 네벅과 시그리요

[출 6:22] 웃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출 6:23]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출 6:24] 고라의 아들은 앓실과 엘가나와 아비

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출 6:25]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
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
른들이라

[출 6:26]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
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출 6:27]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
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
있더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그의 아비의 누이인 요
게벳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아므람의 아버지
는 고탕이었습니다. 고탕은 레위의 아들이었습
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고탕의 누이였습
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
니다. 이곳에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저들의 누이
는 '미리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
여 레위지파를 선택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레위지파 중에서 모세를 세우

신 것입니다. 마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회와 나라를 구원케 하십니다.

[출 6:28]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출 6:2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출 6:30]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늘 뒤로 빼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항상”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라는 말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리 없으셨습니다. 그런 모세를 기뻐하실리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들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부족한 자를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온유한 자의 성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민 12:3]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뛰어난 것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지혜 있다고 자랑하고 능력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고전 1: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

전 1: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
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
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전 1:29] 이는 아
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
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7장 =====

[출 7: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출 7:2]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처럼 세우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모세는 아론에게 전하였고 아론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존재하고 우리의 교회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단체에 항상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열쇠(key)를 부여하십니다. 누구든지 열쇠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권세를 부여하시며 그 사람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열쇠를 주실 때 모세를 위해 아론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가장에게 열쇠를 주시고 가장을 위해 아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담임목사에게 열쇠를 부여하시면서 담임목사를 위해 여러 사역자와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질서는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질서를 깨뜨린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엡 4:11]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엡 4:12]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살아갈 때 더욱 평통할 것

입니다.

[출 7:3]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출 7:4]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 7:5]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출 7:6]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출 7:7]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팔십 세이었고 아론은 팔십삼 세이었던라

[출 7: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 7:9]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

이 되리라

[출 7:10]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
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출 7:11]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출 7:12]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
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
라

[출 7:13]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퍅하여 그들
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강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
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
키기 위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허락하
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삶
을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일들
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출 7: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출 7:15]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출 7:16]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출 7:17]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출 7:18]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출 7:1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에게 전할 말을 들려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하수에 갖다 댈 때에 하수가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들려 주셨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다면 바로 앞에 나아갈 때에 훨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까지 봤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는데 무슨 겁이 나겠습니까?"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봤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잘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셨건만 바로의 반응이 신통치 않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우리의 믿음보다 더 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면 어쩌면 모세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출 7:20]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출 7:21]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출 7:22]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강퍅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 7:23]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출 7:24] 애굽 사람들은 하수 물을 마실 수 없으
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출 7:25]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칠 일이 지
나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들려주신 음성과 보여주신 환
상에 힘입어 담대함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아
가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
니 애굽의 나일강물이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애
굽의 하수 물이 피로 변하여 물을 마시지 못하는
고난이 닥쳤지만 바로는 더욱 마음을 강박하게
먹고서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았습니
다.

아마도 바로의 이러한 강박함때문에 마음에 상
처를 심하게 받은 사람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모
세는 바로가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스
라엘 백성을 보내주길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여 애굽의 모든 사람
들이 물을 마실 수 없는 곤경에 처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끝까지 강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
하는 바로로 인해 모세의 마음은 큰 상처를 받았
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
드리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때
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에는 더욱 마음에 상
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강박한 자는 바로처럼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
는 자도 있음을 인식하며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
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우
리가 해야 할 사명을 완수한 것을 스스로 기뻐해
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하나님
의 말씀을 받아드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
가 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드리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

[출 8: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 8:2]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출 8:3]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예와 네 침실에와 네 침상 위에와 네 신하의 집에와 네 백성에게와 네 화덕에와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출 8:4] 개구리가 네게와 네 백성에게와 네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두번째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은 '개구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애굽 온 지경에 보내셨습니다. 개구리들이 하수에서 무수히 올라와 애굽 궁궐와 침실과 침상과 모든 백성의 집과 부엌과 모든 그릇마다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내리신 재앙은 애굽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 대한 파쇄였습니다. 애

굽 사람들은 개구리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저들은 개구리가 많은 자녀를 낳게 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사람들이 섬기는 개구리 우상을 파쇄하기 위해 저들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개구리 떼를 보내어 오히려 저들 스스로 개구리를 싫어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출 8: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출 8:6]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출 8:7]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출애굽이라는 사명과 가나안 입성이라는 사명을 부여하셨을 때 그를 위해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물론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광야에 나가 모세를 맞이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출 4:27]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대적하시어 재앙을 내리실 때에 오직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을 시켜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질서입니다. 모세와 아론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만 대화를 나누시고 모세를 통해 아론이 그의 말을 순종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팀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팀사역을 행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으며 아론은 직접 사역을 집행하였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일까지 다 하지 않았으며 아론이 모세의 자리를 탐할수 없었습니다.

[출 8:8]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출 8:9]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이까 내게 보이소서

[출 8:10]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출 8:11]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출 8:12]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출 8:13]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출 8:14]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출 8:15]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개구리가 온 애굽 땅을 뒤덮을 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말 뿐이었지 실제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아와 죽은지라"(13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말대로 개구리를 제하시자 바로는 금새 자신의 마음을 강퍽하게 먹고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는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의 열매를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열매를 지켜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내뱉은 말을 그대로 믿어서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 7:20]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람의 열매를 통

해서 그 사람을 보다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 8: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출 8:17]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애굽 온 지면에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는 히브리어 <켄>으로 '모기'라는 뜻입니다. 한글성경은 '이'나 '하루살이'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리신 '이'는 애굽인들의 우상으로 섬겼던 곤충의 신 케퍼(Kheper)에 대한 정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섬기는 우상에 대한 파쇄작업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출 8:18]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 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는지라

애굽의 술객들은 모세처럼 '이'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때에도 술객들은 그대로 똑같이 뱀을 만들었습니다. 하수를 피로 만들 때에도 똑 같이 피를 만들어 냈습니다. 개구리를 만들었을 때에도 똑같이 개구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있는 술객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갈수는 없는 것입니다.

[출 8:19]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박케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술객들은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라고 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술객들이 이렇게 전했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리고는 오히려 강박해졌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는 하나님의 권능인줄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거나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더욱 악한 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려는 마음을 가지고서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 8:2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 8:21]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출 8:22] 그 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의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출 8:23]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 8:24]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 떼가 바로의 궁에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 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네번째 재앙은 '파리'였습니다. 파리 역시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파리'의 신은 '바알세불(Beelzebub)'입니다. 애굽인들은 파리를 귀한 곤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우상인 바알세불을 파쇄하시기 위해 파리떼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바알세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 내셨을 때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 3:22]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예수님은 저들에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없다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막 3:23]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귀신이 귀신을 죽이는 것은 마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것과 같고 한 집안 사람이 스스로 싸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저들의 잘못됨을 지적하셨습니다.

“[막 3:24]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막 3:25]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막

3:26]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바알세불’은 헬라어로 말하면 ‘베엘제불
(Beelzeboul, 954)’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본에
서는 베엘제뿔(Beelzeboub)으로 표기되었습
니다. 대표적인 영어성경의 KJV이나 NIV에서는 ‘
베엘제뿔’(Beelzebub)이라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엘제뿔’은 라틴어 성경(Latin Vulgate)
의 표기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베엘제불’이란 단어는 가나안 민족들이 섬겨왔
던 ‘바알제불(Baal-Zebul)’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소유주’ ‘주(Lord)’라는 뜻입니
다. 그리고 ‘세뿔(제뿔)’이라는 말은 ‘파리’라는 뜻
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이란 말은 ‘파리들의 주
인’이라는 뜻인데 마귀를 섬기는 귀신들을 파리
로 비유하여 마귀를 높이는 단어로 형성된 것입
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베엘제불’이 ‘베엘제
뿔’으로도 사용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제뿔’은 ‘
왕’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알세불’의 보다 폭
넓은 뜻은 ‘귀신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엘제불’이란 단어를 유대인들은 사단을 가리
킬 때 사용하는 단어로 대치하였던 것입니다. 그
래서 예수님께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는 단
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가 열왕기하에 기록되고 있는데 아하시아 왕이 병들었을 때 병치유를 위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나을 것인지 물어보라고 한 대목이 나옵니다.

“[왕하 1:2]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 보라 하니라”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를 통해 죽음을 경고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바알세불에게 병 낫기를 바랬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바알세불을 의지하였던 것은 저가 하나님보다 사단을 더 의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왕하 1:16] 고하되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나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찌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알세불을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이 바알세불을 섬기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사람들에게 파리떼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역시 바알세불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파리를 귀한 곤충으로 취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파리떼를 저들에게 보내사 저들이 섬겼던 신으로부터 저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출 8:24]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 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집예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 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이처럼 애굽사람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거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

게 있게 말찌니라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
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
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 8:25]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
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
라

[출 8:26]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
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
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출 8:27]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
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
하시는 대로 하려하나이다

애굽에 나타난 10가지 재앙

	재 앙	깨뜨려진 이집트의 신들	관련성구
1	물이 피로 변함	나일강의 수호신 크눔(Khnum) 하 피(Hapi)	출 7:14-25
2	개구리	부활과 다산(多産)신 헤크트(Heqt, 크눔의 부인)	출 8:1-15
3	이	흙의 신 셉(Seb), 곤충의 신 케퍼(Kheper)	출 8:16-19
4	파리	파리의 신 바알세불(Beelzebub, 에 그론 도시도 이 신을 섬겼다)	출 8:20-32 (마 12:24)
5	가축의 악 질	신성한 황소의 신 아피스(Apis, 내세를 약속했다)와 므네비스(Mnevis), 암소의 수호신 하도르(Hathor)	출 9:1-7
6	독종	주술과 치료의 신 토트(Thoth)	출 9:8-12
7	우박	창공의 여신 누트(Nut), 대기(大氣)의 신 수(Shu)	출 9:13-35
8	메뚜기	곡물의 신 셋(Seth),	출 10:1-20
9	암흑	태양의 신 라(Ra), 태양의 여신 세케트(Sekhet)	출 10:21-29
10	초태생의 죽음	생명을 부여하는 신 오시리스(Osiris), 생명을 수호하는 신 이시스(Isis), 지상의 태양신 바로	출 11:4-12:30

바로는 파리떼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리함은 불가

하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 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애굽사람들에게 신성시 여기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흰염소는 매우 신성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애굽사람들이 신성시 하는 짐승을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애굽사람들이 볼 때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출 8:28]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출 8:29]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

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
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출 8:30]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출 8:31]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
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출 8:32]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마음을 완강
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설명을 들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
굽을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을 허락했
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하였
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모세에게 부탁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
탁한 것은 모세의 하나님께 잘 봐 달라는 청원이
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 재앙을 내리지 말라는
뜻으로 부탁한 것입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
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만 저들 스스로
마귀에게 붙잡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
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악한자
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할 때는 더욱 열심히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저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세력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

[출 9: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고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 43: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지명하셨고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 내셨으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사 43:7]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 전에 이미 자녀로 정하셨고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롬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출 9:2] 네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출 9:3] 여호와와 그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곧 말

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출 9:4]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다섯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은 '가축의 악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가축의 악질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황소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황소신은 아피스(Apis)였는데 이 황소는 저들의 내세를 약속해주는 신이었습니다. 아피스 신 외에 또 다른 황소신인 므네비스(Mnevis)신과 암소신인 하도르(Hathor)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처럼 우상신을 파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을 애굽의 우상들처럼 파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우상이 될 수 있으며 재물은 매우 큰 우

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마치 하나님에 대한 간음행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더 좋아하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안좋은 일들이 어찌면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우상을 섬김으로써 발생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출 9:5]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출 9:6]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출 9:7]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악질이 있게 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였지만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강박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습니다. 바로가 이처럼 마음을 강박하게 먹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파쇄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계획이 이뤄지지 위해서는 바로가 계속해서 강박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롬 9: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롬

9:18]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
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
박케 하시느니라”

[출 9: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
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출 9:9]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
라

여섯번째 재앙은 '독종'이었습니다. 독종은 피부
병입니다. 애굽에 내린 피부병은 피부에 열이나
고 가려움 증세가 있으면서 몸 전체에 고열이 생
기고 피부에 고름이 생기면서 썩어져가면서 죽
게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 저주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애굽
의 질병이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
다.

”[신 28:27]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

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를 얻을지 못할 것이며”

여섯번째의 피부병 재앙은 처음으로 인간의 생
명을 취할만한 재앙이었습니다. 물론 이전까지
의 재앙으로도 사람이 고난을 받아 죽을 수 있겠
지만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아니었
습니다. 여섯번째부터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 9:10]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
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출 9:11]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
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
에게 발하였음이라

[출 9:12]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
박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
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성경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

셨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
로가 강박하게 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
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
게 만드신 것에 대해 15-16절에 계속해서 언급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
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
라”(15-16절).

하나님께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것은 바
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
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하
나님께서 거대한 강대국인 애굽을 초토화 시켰
다는 내용이 가나안 땅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
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매우 두
려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
나의 나라를 더욱 굳건히 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롬 9: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

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출 9: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 9:14]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
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출 9:15]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
을 쳤더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출 9:16] 네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
음이니라

[출 9:17]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
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출 9:18]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
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출 9:19]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출 9:20]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와 말씀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출 9:21] 여호와와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출 9: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일곱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미리 그것을 알려주시고서 미리 재앙을 피하도록 배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미리 재앙을 피하도록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

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는가하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며 받아 드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그 말씀을 받아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출 9:23]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출 9:24]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출 9:25]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출 9:26]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출 9:27]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

라 여호와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출 9:28]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출 9:29]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애굽에 내린 일곱번째 재앙은 '우박'이었습니다. 이 우박은 자연적으로 생긴 우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을 내리칠 때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함락한 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한 아모리 다섯 왕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려 아모리 다섯 왕을 진멸하셨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의 수가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수 10:11]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벰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

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인 악한 자들을 상대로 우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인 악한 자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으로 인해 진멸될 것입니다.

“[계 16:21]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재로 인하여 하나님을 훼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출 9:30]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출 9:31]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출 9:32]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하고
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출 9:33]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
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출 9:34]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의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출 9:35]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이스라엘 자
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
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은 불과 함께 떨어진 것
이기때문에 사람과 생축뿐만 아니라 소산물에
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께서는 애굽인들의 굶주림을 생각하시어 밀과
나맥은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밀과 나
맥이 자라지 않은 때이기때문에 우박에도 보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

[출 10: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출 10:2]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강박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시다. 이러한 표징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표징을 보고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기 때문입시다.

유대인들은 표적 보기를 좋아하는 민족입시다. 바울은 "[고전 1: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유대인들의 취향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

은 이러한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표적을 바라지 말고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 10:3]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출 10:4]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출 10:5]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애굽에 내린 여덟번째 재앙은 '메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6절)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메뚜기는 우박의 재앙을 통해 남은 것들을 모두 먹어

치웠습니다. 결국 메뚜기 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출 10:6]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비와 네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옴으로 오늘 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출 10:7]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 이까 하고

[출 10:8]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 누구뇨

모세가 바로에게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서 바로를 떠났을 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

까?”라며 모세를 붙잡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보내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출 10:9]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출 10:10]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출 10:11]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는 신하들의 간청에 따라 모세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 누구뇨?”라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남녀 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고 꾸짖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바로로부터 쫓

겨나고 말았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며 나가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을 용납치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바로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애굽 땅에는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말았습니다.

[출 10: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일들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대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서 그것대로 행하였습니다.

“[요 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 8:28]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 12: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대로 대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겔 37:9]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겔 37:10]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예언'의 의미는 모두 '대언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아버지의 들려주신 음성대로 말씀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에게는 성경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보다 더 정확한 말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성경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출 10:13]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
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출 10:14]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
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
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출 10:15]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날으매 땅
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
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
하였더라

[출 10:16]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
죄하였으니

[출 10:17]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
서 떠나게 하라

[출 10:18]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출 10:19]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출 10:20]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급히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는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구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죄를 인식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사라지자 바로는 다시금 마음을 강박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바로처럼 고난과 역경이 몰려올 때에는 회개하지만 평탄한 삶에는 전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

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삶은 회개의 삶이 아닙니다. 회개는 지었던 죄를 똑같이 되풀이 하며 짓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드린 사람은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출 10: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만한 흑암이라

[출 10:22]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삼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출 10:23] 그 동안은 사람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아홉번째 재앙은 '암흑'이었습니다. 이 암흑은 애굽사람들이 섬겼던 태양신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태양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있어서 태양은 축복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땅이 비옥한 것은 1년 내

내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나일강때문입니다. 오히려 태양은 풍성을 더해주는 것이었기때문에 애굽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태양신을 꺾으시고 오히려 3일 동안 암흑 속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결국 애굽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약한 우상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한 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국 백성이 그것을 인정하였으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내린 암흑은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암흑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빛이십니다. 주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오히려 빛으로 오신 주님을 꺼려했습니다.

“[요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 1:5] 빛이 어둠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출 10:24]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출 10:25]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출 10:26]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출 10:27]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3일 동안 암흑이 애굽 땅에 임하자 바로는 모세더러 여호와를 섬기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축은 함께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바로의 이러한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 애굽 땅에서 도망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담대하게 바로에게 말하기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축이 없이는 절대로 가능치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 왕에게 제사 지낼 가축을 달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모세의 대답은 매우 담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서 여전히 강박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바로의 이러한 강박함은 열번째 재앙을 불러왔고 바로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출 10:28]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출 10:29]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바로는 모세에게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모세 또

한 강력하게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 하리이다"라고 모세는 담대하게 자신의 뜻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바로의 얼굴을 본 것은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바로를 만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번째 재앙이 있고 난 후에는 바로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사귀는 필요치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 믿는 자를 사귀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 믿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드리지 않을 때에는 더 이상 안 믿는 자를 만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

다.

“[고후 6: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고후 6: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후 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라 할찌라도 저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대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

다. 결국 그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모양은 똑 같을지 몰라도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친해지거나 사귀어 있는 것은 좋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당신은 모세가 바로에게 무례히 굴었다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인데 너무나 불공손하게 굴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모세는 바로에게 그렇게 담대히 말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지 마십시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바로같은 사람은 많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바로일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악한 자였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1장 =====

[출 1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녕 다 쫓아 내리니

[출 11:2]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출 11:3]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뵈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매우 큰 자가 되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히 큰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세를 높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크게 세워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로부터 매우 크게 세워주십니다.

[출 11:4]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로 들어가리니

[출 11:5]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맏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
까지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열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 사
람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
자의 죽음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에 대한
파쇄작업이었습니다. 애굽사람들은 오시리스
(Osiris), 이시스(Isis)를 섬겼는데 이 신들은 생명
을 부여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하
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죽임으로써 애굽 사람
들의 모든 우상을 완전히 파쇄하신 것입니다. 더
군다나 바로의 장자까지 죽이심으로 바로의 강
박한 마음을 완전히 꺾으셨던 것입니다.

[출 11:6]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
으리라

[출 11:7]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출 11:8]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좇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출 11: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출 11:10]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가축의 첫태생이 죽임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 고센 땅에는 그 어떠한 죽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축복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12장 =====

[출 12:1]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 12:2]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세가지 달력을 사용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이 있고 달의 움직임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민간력이 있습니다. 음력을 이용하는 민간력은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음력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 다 또 한가지 달력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력'입니다.

종교력은 유월절을 근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있는 달을 새로운 달로 정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달은 '닛산월'이며 '아빍월'이라고도 합니다.

[출 12:3]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

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
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출 12:4]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
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
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출 12:5]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 된 수컷
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때 사용하는 짐승의
조건을 정하셨습니다. 그 짐승은 양이나 염소 중
에 취할 수 있었으며, 흠이 없는 일년된 수컷이
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완전한 제물
로 하나님께 드리졌습니다.

[출 12:6] 이달 십사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출 12:7]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출 12:8]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출 12:9]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출 12:10]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출 12:11]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 12:12]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출 12:13]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가다’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유월절을 ‘passover’라고 표기하고 있듯이 유월절의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피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이 그 피를 넘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출 12:14]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출 12:15] 너희는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칠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출 12:16]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칠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갓출 것이니라

[출 12:17]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라

[출 12:18] 정월에 그 달 십사일 저녁부터 이십

일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출 12:19] 칠 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무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출 12:20]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행하라 명하시면서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무교절은 7일동안 지켜졌으며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가 열렸습니다.

[출 12:21]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출 12:22]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말라

[출 12: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
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 자
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대로 어린 양
을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경
우에 따라 염소도 가능했습니다.

“[출 12:5]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렇게 준비된 어린 양이나 염소는 일년된 수컷
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아무 흠이 없는 건강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만일 가족의 수가 적으면 적은 가족끼리 함께 모
여서 어느 집에서 짐승을 잡도록 했습니다.

“[출 12:4]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
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또한 이방사람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군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출 12:4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출 12:44]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출 12:45] 거류인과 타국 품군은 먹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짐승의 피를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것에 피를 묻혀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발랐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절대로 아무도 집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월절 규례에 한 가지 포함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뼈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출 12:46]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하나님께서 짐승의 뼈를 꺾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루기 위함이

었습니다. "[요 19:32]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요 19:33]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요 19:34]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 19:35]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함이니라 [요 19:36]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함이라"

[출 12:24]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л 것이니

[출 12:25]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행해야 할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그 절기는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신 16:16] 너의

중 모든 남자는 일년 삼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와 택하신 곳에서 여
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무교절’은 유월절부터 시작하여서 8일동안 행해
지는 절기로써 가장 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
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
교절 절기(유월절 포함)를 계속해서 지켰왔습니
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절 절기를 지키
고 있습니다.

[출 12:26] 이 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
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출 12:27]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와 유월
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
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
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켜 행하

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 절기에 대해서 자손대대로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일 자녀가 이 절기에 대해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여호와와 유월절 제사라"고 말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고 가르치라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자녀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가르쳤습니다. 저들이 나라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2000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유월절 절기를 가르쳤습니다. 저들이 유월절 절기를 자녀에게 가르쳤을 때 저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내리셨는지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전수될 것입니다.

[출 12:28]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출 12:29]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것을 다 치시매

[출 12:30]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열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사람과 가축에 대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바로의 장자도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강박하게 먹을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에는 자신들의 목숨도 없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애굽에는 큰 호곡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하는 고센땅에는 그 어떠한 죽음도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녀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며 사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크나큰 축복이 아닐수 없습니다.

[출 12:31]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출 12:32]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출 12:33]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출 12:34]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니라

바로는 밤에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너

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가 밤에 모세를 찾아 온 것과 급히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라고 말했던 것을 통해 바로의 심정이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빼앗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철저히 파쇄하셨습니다. 이렇듯 바로가 급하게 찾아와 서둘러 떠나길 간청할 때까지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심으로 철저히 악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서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서는 자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가 악한 자로 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내린 재앙은 바로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를 핍박하고 성령의 역사를 훼방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눈동차처럼 보호하시기때문에 그 어떠한 악한 자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 12: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출 12:36]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
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
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
게 된 것도 큰 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
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지하고 있었던 모
든 가축과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었으
며 애굽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과 의복까지 구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둘러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모든 배
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여행길에 필요
한 은금 패물과 의복을 준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사람으로부터 빼앗은 것
이 아닙니다. 저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
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녀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때는 믿지 않는 자의 복까지 덤으로 얹혀서 내려 주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복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출 12:37]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숙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

[출 12:38] 중대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사람 수는 모두 여성과 어린 아이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후 시내 산에서 백성을 계수하였을 때 레위 지파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장정이 603,550명이었습니다(민 1:46-47). 따라서 60만명의 장정에 해당하는 전체 인구는 대략 200만명에서 많게는 300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땅의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가장 먼저 숙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 12:39]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 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나 황급하게 애굽을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제발 서둘러 애굽을 떠나달라고 사정을 했기때문입니다. 비록 애굽사람들의 재촉에 못이겨 애굽을 떠나면서 무교병을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애굽사람들이 스스로 떠나달라고 요청할 지경까지 만드셨던 것입니다.

[출 12:40]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지 사

백삼십 년이라

[출 12:41] 사백삼십 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와 그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 12:42]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연도는 기원전 1446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갔던 때가 기원전 1876년이었음으로 정확하게 430년이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30년의 차이가 있는 셈입니다.

“[창 15: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창 15:14]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찌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던 기간을 400년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행 7:6]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
람이 종을 삼아 사백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
라 하시고”

정확한 기간은 430년이지만 그 대략적인 기간을
400년이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 12:4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
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출 12:44]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
은 후에 먹을 것이며

[출 12:45]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출 12:46]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출 12:47]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전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유월절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기때문에 이방인은 유월절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거류인과 타국 품군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출 12:48]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출 12:49]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출 12:50]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
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
하였으며

[출 12:51]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
더라

만약에 이방인이나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길
원할 때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할례의식을 행해
야만 했습니다. 할례의식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례의식
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
에 나타낼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의
식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 달인 닛산월
15일부터 7일동안 갖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1월 14일 하룻만에 끝
을 내고 유월절이 끝난 다음 날부터 1주일간 갖
는 명절이 무교절인 것입니다. 따라서 무교절은

유월절의 연속된 명절입니다.

“정월 십사일은 여호와와 유월절이며 또 그 달 십오일부터는 절일이니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민 28:16-17)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과 연관된 명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전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의 모든 첫번째 난 것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출 12:29-30). 애굽사람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을 때 이스라엘민족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피가 묻혀진 집을 지나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출 12:23)

이것이 유월절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죽음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다. 그러면 무교절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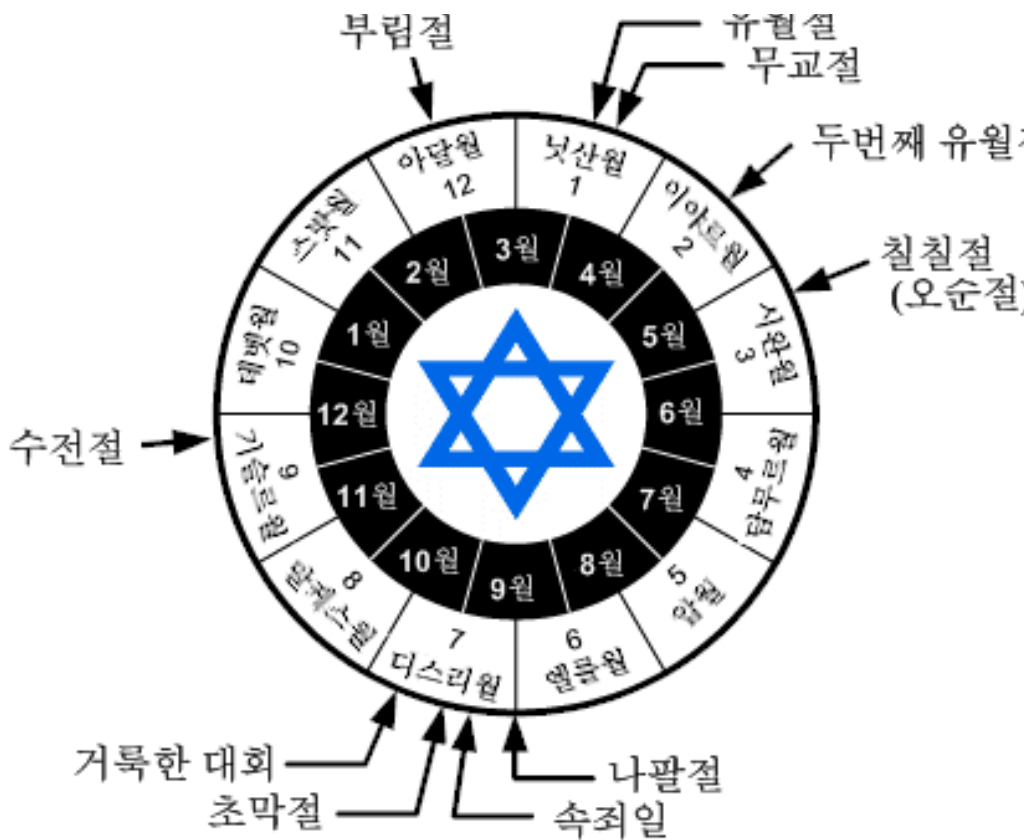
무교절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누룩을 넣을 정도의 시간도 허락되지 않는 매우 긴박한 위기의 상황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매우 급히 애굽을 떠나 홍해 바다를 건너가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박한 상황의 고난을 통해 무교절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무교병(누룩을 넣지 않는 떡)과 쓴 나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시대 때에는 성도들이 이 날에 금식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무교절을 잘 지키는 방법은 (1) 누룩을 집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출12:19, 출 12:5). 이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인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하는 이방인에게도 유교병을 먹게 했습니다. (2) 노동을 해서는 안되었습니다(출 12:16, 레 23:78, 민 28:18). 전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날은 첫째날과 마지막날이었습니다. 나머지 5일 동안은 하나님을 위한 노동을 했습니다. 이렇듯 첫날과 마지막날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며 나머지 날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했던 것입

니다. (3) 성회에 참여해야 합니다(레 23:78, 출 12:16). 첫째날과 마지막날에 성회로 모입니다. 그 때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제사를 지냈습니다(민 28:19-23).

이스라엘의 월력



*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하였다. 민간력(농경과 목축 및 각종 일상사를 기준)과 종교력(출애굽을 기념하여 그 달을 신년으로 설정)각 달의 이름은 원래 가나안식 명칭이었으나 바벨론 포로 이후 바벨론식 명칭으로 개편되었다.

* 현재 전해지는 가나안식 명칭은 아빍(1), 시브(2), 에다님(7), 불(8) 등 4달의 명칭만 남아 있다. 종교력 1월인 니산월은 원래 '아빍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시대 이후에 바벨론식으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 유대력은 1년이 12개월로, 각 달은 평균 29.5일로 구분되어 홀수 달은 30일, 짝수달은 29일로 되어 있다. 따라서 1년은 약 354일로 구성된다. 이런 이유로 매 19년을 주기로 1주기 때마다 7번씩 양력으로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새 봄의 달인 '베달' 또는 '아달 세니'라는 제 13번째 달을 윤달로서 첨가시켰다. 1년마다 부족해지는 11일을 채워 3년마다 윤달을 넣어주는 것으로 양력과 음력을 맞추고 있습니다.

* 히브리력과 태양력의 관계는 대략 히브리력의 한달이 태양력의 보름에서 시작되어 다음 달 보름에 끝나는 즉 태양력의 15일이 히브리력으로 는 초하루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무방하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1.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열번째 장자의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문 설주와 좌우 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유월절과 관련된 절기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생각할 때 다음의 두가지 절기를 함께 기억하기 바랍니다.

먼저 유월절은 종교력의 1월 14일(민간력의 7월)에 지켜졌으며, 무교절은 14일부터 1주일간 지켜졌습니다. 무교절은 누룩없는 떡을 먹었는데 이것 역시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후 첫번째 안식일 다음날에는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초실절은 보리추수를 기념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2. 오순절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오순'이라는 뜻은 50을 의미합니다. 한 주가 7일로 구성되어 있고 오순절은 모두 일곱번의 안식일이 지난 후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 \times 7 = 49$ 다음날인 50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불려

지는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이 맥추절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은 오순절이 밀추수를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강림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오순절 절기때였습니다.

3.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생활을 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종교력의 7월(민간력의 1월) 15일부터 1주간 장막에서 생활하면서 광야생활을 기념하여 지켜집니다.

단순히 광야생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만은 아닙니다. 이 절기는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절기입니다. 포도나 무화과열매의 결실이 풍성한 절기여서 가을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막절기는 1년 중 가장 마지막에 열리는 절기이며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매일 제단에 붓는 행사가 행해졌는데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에 참여하여 '배에서 생수가 흘러 나올 것'이라는 설교를 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쓰인 짐승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 염소도 가능했습니다.

“[출 12:5]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렇게 준비된 어린 양이나 염소는 일년된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아무 흠이 없는 건강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만일 가족의 수가 적으면 적은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어느 집에서 짐승을 잡도록 했습니다.

“[출 12:4]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또한 이방사람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군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출 12:4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

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출 12:44]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좋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출 12:45] 거류인과 타국 품군은 먹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짐승의 피를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것에 피를 묻혀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발랐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절대로 아무도 집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월절 규례에 한 가지 포함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뼈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출 12:46]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찌며”

하나님께서 짐승의 뼈를 꺾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요 19:32]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요 19:33]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요 19:34]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 19:35]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

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줄 알고 너희로 믿
게 하려함이니라 [요 19:36]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
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함이니라"

출애굽기 13장 =====

[출 13: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 13:2]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 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 13: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엄격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자녀 중 초태생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들의 초태생된 자녀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셨습니다. 레위인은 모든 백성의 초태생을 대신하

여 하나님께 드려진 대속물이 된 것입니다.

“[민 8:16]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민 8:17]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민 8:18]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처럼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초태생을 대속하여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에게는 그 어떠한 재물을 취할수도 없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명령이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고유한 명령은 많이 퇴색되어 갔으며 많은 레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이 하나님의 대속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초태생 장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레위인을 돌보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레위인에 대한 초태생 대속제물로 삼음은 오늘날에는 목회자로 연결되었습니다. 모든 목회자는 하나님 백성을 위한 대속제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목회자는 세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회자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정하신 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초태생 대속제물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 위에서 군림하는 왕같은 존재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면서 "모두가 똑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주장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초태생을 취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초태생이 있

습니다. 우리의 자녀 중에도 초태생이 있으며 우리의 재물 중에도 초태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될 것입니다.

[출 13:4] 아빱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유월절은 아빱월 14일에 지켜졌으며 무교절은 15일부터 7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아빱월은 종교력의 신년입니다. 아빱월의 명칭은 훗날 포로시대를 거치면서 '니산월'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아빱월은 태양력(전 세계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 꽃피는 시기인 3월 말경 또는 4월 초순 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 13:5]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출 13:6]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칠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언급하실 때 자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언급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은 아무리 황량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비옥한 땅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출 13:7] 칠 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네 지경 안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출 13:8]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

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출 13:9]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와 의 율법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출 13:10]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키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와 의 율법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련된 성구를 천에 적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다녔으며 손에 끈을 묶어 말씀적은 천을 메달고 다녔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삶에 행위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적인 것은 형식주의와 타민족 배타주의를 낳았고 지극히 영적으로 교만한 바리새인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고후 3:3]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

[출 13:11]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출 13:12] 너는 무릇 초태생과 네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한번 반복해서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태생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너는 무릇 초태생과 네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러면서 초태생을 여호와께 돌려야 하는 조건을 말씀하셨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내게 초태생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그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초태생과 십일조가 바로 그 예입니다. 초태생은 처음 얻은 것을 의미하며 십일조는 수입의 십분의 일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때문에 우리가 내는 초태생과 십일조는 결코 아까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의 가진 것 중의 일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이 될 것입니다.

[출 13:13] 나귀의 첫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

기 위하여 나귀의 초태생의 경우엔 양으로 대속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귀의 첫새끼로 초태생을 바치려면 그 목을 꺾어야 했습니다. 아들 중 장자의 경우엔 레위인이 대신 속제의 제물로 드리지지만 만일 자신의 아들을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의 뜻대로 자신의 아들을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장자는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일생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출 13:14] 장래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새

[출 13:15] 그 때에 바로가 강박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의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니

하나님께서 초태생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태생을 바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장자와 생축의 초태생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육적으로 이스라엘 자녀가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기 때문에 초태생에 대한 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모든 기독교인은 누구나 초태생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출 13:16]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련된 성구를 천에 적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다녔으며 손에 끈을 묶어 말씀적은 천을 메달고 다녔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삶에 행위로 나타냈습니

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적인 것은 형식주의와 타민족 배타주의를 낳았고 지극히 영적으로 교만한 바리새인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고후 3:3]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

[출 13:17]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출 13:18]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출 13:19]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

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최단거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을 택하셨습니다. 최단거리는 애굽의 지중해 해안거리를 이용하여 블레셋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이용할 경우엔 4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걸어서 족히 30일 정도 소요되는 광야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힘에 버거운 상대임이 분명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힘든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께서 이렇듯 광야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30일 이내면 갈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이나 지체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부여하셨으며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막을 통한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군대를 조직하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출 13:20] 그들이 숙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의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숙곳을 거쳐 에담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숙곳은 라암셋에서 대략 5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대략 이틀정도 소요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숙곳에 머무르지 않고 곧장 길을 떠나 에담에 이르렀습니다. 에담은 대략적으로 하루길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광야 끝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홍해 상류지역의 왼쪽편에 놓여진 광야의 어느 한 지역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 13:21]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취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출 13:22]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해 햇빛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으며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인해 추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0만명 이상되는 거대한 민족의 이동이었기때문에 작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서는 전체 민족이 혜택을 받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 따라서 구름기둥의 크기나 불기둥의 크기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뒤쫓아 왔습니다. 그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 놓였을 때 이편과 저편이 서로 분리되어 빛과 암흑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구름기둥이 두 진영 가운데에서 넓게 펼쳐졌기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출 14:19]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출 14:20]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출애굽기 14장 =====

[출 14: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 14:2]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므딤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돌쳐서'라는 말은 '우회하다'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근처로 경로를 수정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의 라암셋에서 떠나 숙곳을 통과하였고 다시 금 숙소에서 발행하여 에담에 도착하여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출 13:20] 그들이 숙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담에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에담에서 홍해 앞 광야에 이르러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언급된 '므딤'이나 '비하히롯'이나 '바알스본'은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맞은편 바닷가'라는 말을 통해 지금 이스

라엘 백성은 홍해(Red Sea) 앞 애굽지경에 장막을 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바다가'가 사람들이 쉽게 건널 수 있는 낮은 호수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중반쯤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바닷물이 애굽군대를 덮어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을 정도라면 사람의 키보다 훨씬 깊은 바다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 14:21]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 14:22]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출 14:23]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 오는지라 [출 14:24]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출 14:25]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

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출 14:2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출 14:27]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출 14:28]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출 14:3]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바 되었다 할지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바 되었다 할찌라"(3절).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담'에 장막을 쳤던 백성들에게 '돌쳐서(우회해서)' 바닷가 맞은편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 14:4]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결국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고 바다 맞은편 광야에 갇히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뒤쫓게 된 것입니다.

[출 14:5]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출 14:6]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출 14:7] 특별 병거 육백 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출 14:8]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출 14:9]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바로는 황급히 모든 애굽의 군대를 소집합니다. '병거'는 말이 이끄는 신속한 이동도구로서 군사용입니다. '특별병거'는 일반 병거에 비해 특별하게 제조되었던 병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거가 일반 군인쯤 된다면 특별병거는 특공대쯤 된

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애굽의 시삭(Sishak)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병거 1,200승을 거느리고 예루살렘까지 간 것을 보면 바로가 600승의 병거를 소집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쫓은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일겁니다(대하 12:1-3).

[출 14:10]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출 14:11]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출 14:12]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보게 되었을 때 저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저들이 두려워했을 때 나타난 반응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곧 바로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저들에게서 보여지는 행동은 현재 문제를 만들어낸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후에 보여지는 저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을 알았을텐데 오히려 저들의 두려움은 더욱 극에 달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불과 며칠 전만해도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를 죽음에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새까맣게 잊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당

신이라면 가능할까요? 당신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벌벌 떨면서 며칠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이 먼 옛날 일처럼 잊어 버릴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잊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 사실을 잊어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출 14: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출 14: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세를 보면 항상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군대가 쫓아오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상태에서 모세의 태도가 예전 것과는 너무 달라졌습

니다.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 하는 지금까지의 기간은 길어야 6개월도 채 안되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2주에 하나씩 있었다고 할지라도 대략 2개월 정도의 세월이 지났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려고 작정하셨으니 10가지 재앙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 때까지는 대략적으로 2개월 이내의 세월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짧은 기간 내에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세는 자꾸만 뒤로 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로 일관했던 모세의 태도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심한 노역으로 모세를 원망했을 때에도 모세는 곧장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하나님께 따

지거나 원망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정말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듯 변화되었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담대히 선포하였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형상만 있고 인간의 경배만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간의 삶을 지켜보시고 돕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훨씬 강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적으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믿음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겠다는 음성을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0가지 재앙때에 그대로 하나님

의 말씀을 전했듯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실로 큰 축복입니다. 많은 축복이 따르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축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쉬운 것입니다.

[출 14:1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출 14:16]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출 14:17]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출 14:18]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

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통해 얻고자 하심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하나님은 다른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섬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하여금 여호와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땅이 많았지만 홍해를 건너도록 인도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멸하시고 저들로부터 여호와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받으시려 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애굽사람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신임을 인정케 하고 하나님을 섬길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출 14:19]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출 14:20]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거하였을 때 애굽 군대가 뒤 쫓아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맞은편 광야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시키려고 군대를 몰고 뒤쫓아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사면초가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앞은 바다요 뒤는 애굽 군대가 있으니 도무지 빠져 나갈 구멍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해결책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담당하는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진영을 인도하였는데 애굽군대가 뒤쫓아 오자 자리를 이동하여 이스라엘 진영 맨 뒤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자리를 이동하자 함께 하였던 구름기둥도 이스라엘 진영 뒤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렇게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뒤쪽으로 옮길 때에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더군다나 애굽군대 쪽은 흑암이 있었는데 이스

라엘 진영쪽에는 광명하였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온 시각은 '밤(night)'이었습니다. 20절에는 그 때의 시각을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있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출 14:2]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므딤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광야에 무슨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빛을 밝히는 무슨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진영은 '광명'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름기둥 저 편에 있는 애굽군대 진영은 '흑암'이 있고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이 편과 저 편이 암흑과 광명으로 분리된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앞 쪽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인도했던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뒤쪽으로 옮겨갔지만 여전히 불기둥은 이스라엘 진영 쪽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은 광명했지만 구름기둥에 가려진 애굽군대 진영은 암흑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두 기둥은 항상 함께 존재했습니다. 불기둥이 있다가 시간이 될 때 구름기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기둥만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은 출애굽기 14장 24절입니다. 24절을 보면 새벽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 14:24]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밤새도록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을 당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거하였다는 사실이 출애굽기 40장 3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 40:38] 낮에는 여호와와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38절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So the cloud of the LORD was over the tabernacle by day, and fire was in the cloud by night, in the sight of all the house of Israel during all their travels."(Exodus 40:38, NIV)"

이처럼 밤에 불기둥이 구름기둥 안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불기둥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밤이라서 구름기둥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도 불기둥이 구름기둥과 함께 있었지만 태양빛때문에 불기둥이 보이지 확연히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구름기둥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기둥은 밤의 추위를 견디게 해 주었고 낮의 구름기둥은 태양빛을 가려주어 신선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두 기둥이 함께 있었지만 밤과 낮의 온도 변화에 맞춰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조절하셨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셨습니다. 40년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갑자기 사라질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육안으로는 더 이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더 이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40년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었던 만나가 어느 순간에 멈췄듯이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없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육안으로 볼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마치 언약궤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듯이 두 기둥 역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들 우리 몸 안에 성령하나님께서 거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합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했듯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출 14:21]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 14:22]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출 14:23]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 오는지라

[출 14:24]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출 14:25]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출 14:2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출 14:27]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
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얹으시니

[출 14:28]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
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출 14:29]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출 14:30]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200만명에 달하는 사람
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아주 넓게 갈라졌습니다.
아무리 홍해의 상류지역이 갈라졌다고 할지라
도 200만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이 바다를 건너
려면 매우 넓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시작했던 시각
은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군대가 뒤쫓아
왔을 때의 시각이 벌써 암흑이 깔린 '밤'이었기
때문입니다.(20절)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홍해를 건넜습니다.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

께서 불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저들을 수장시킨 장면이 나옵니다. '새벽'에 홍해 바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27절에도 새벽에 물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었으시니"

이 구절들이 뜻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홍해를 건넜다는 말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홍해를 건널 때까지 밤새도록 역사하였습니다. 20절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도운 흔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저 편은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바마새로독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다시말해 애굽군대는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그냥 지켜 보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구름기둥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볼 수 없었는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지나갈

새벽 무렵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는 모습을 지켜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중 매우 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어떤 성경학자는 홍해의 사건을 성경에서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물이 갈라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바다가 아닌 호수였다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바다가'라고 말했으면 호수가 아닌 바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이 갈라졌다고 하면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다고 말하면 실제로 물이 덮혀 애굽 군대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떠한 사람의 지혜나 지식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추측이나 가정만으로 해석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는 책임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는 정확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홍해가 갈라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해는 계속적으로 갈라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출 14:31]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 죽임을 당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믿었습니다. 물론 바로 눈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 앞에 홍해가 12번 갈라져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은 자신의 자녀가 살아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눈으로 목격했기때문에 믿는 것은 연약한 신앙입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닥칠 때 여지없이

그들의 믿음이 꺾기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요 20:29]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가리켜 표적을 좋아하는 백성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고전 1: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표적이 있을 때는 믿지만 표적이 없어질 때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는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의 형틀로밖에 안 보이는 십자가이지만 영적인 사람에게는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고전 1: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

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전 1:24]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스라엘 출애굽 경로



1. 라암셋 > 숙곳(출12:37-13:19) -->

2. 에담(출13:20-22) -->

3. 바알스본 맞은편 > 홍해 > 마라(출14:1-15:26): 홍해를 건넌 -->

4. 엘림(출15:27): 물샘 12개와 종려 70주가 있었음. -->

5. 신광야(출16:1-36): 만나/메추라기 내림. -->

6. 르비딤 > 시나산 (출17:1-40:33):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함 >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짐 > 모세가 십계명을 받음. -->

7. 다베라 > 하세롯(출40:34-38, 민10:33-12) : 다베라에서 탐욕으로 원망한 자들이 죽음. -->

8. 호르산 > 에돔(민14:44-21:9) :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음 > 길로 인해 백성들이 원망함. -->

9. 모압 > 느보산(민21:10-36 13) :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함

[출 15:1]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출 15:2]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 15:3]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출 15:4]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출 15:5]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출 15:6]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 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출 15:7]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개 같이 사르니이다

[출 15:8]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
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출 15:9]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
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
라 하였으나

[출 15:10]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
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납 같이
잠겼나이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올
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찬양의 멜
로디는 전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때문
에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가사뿐입니다. 하지만
가사뿐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올렸는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출 15:11]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
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
할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

구니이까

[출 15:12]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출 15:13]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것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홍해 사건이 있는 직후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셨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 1:3]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눈에 보이

는 것에 치중하고 느껴지는 감각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전 1: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냐"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표적'을 구하는 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홍해의 역사같은 기적을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눈에 보일 때에 그것이 표적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러한 사람은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육적이고 혼적인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오직 영적인 사람이라야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전 2:9]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

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
니라 [고전 2: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
니라”

[출 15:14]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
려움에 잡히며

[출 15:15]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
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출 15:16]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
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 같이 고요하였사
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
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출 15:17]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
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출 15:18]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
도다 하였더라

[출 15:19]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

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마음에 가득차
있는 염려와 근심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였을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특별한 무기도 없고 식량도 없이 애굽
을 떠나왔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도
착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가득차 있었을 것
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군대를 바다속에 잠기
우고 홍해길을 열어주셔서 모든 백성이 다 건너
도록 하심을 지켜 보면서 그러한 근심과 염려가
다 씻겨 나갔던 것입니다. 블레셋 거민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에돔 방백들에 대한 떨림도
사라지고 가나안 거민에 대한 부담이 사라져 버
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할 때에 우
리 안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출 15:20]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
고를 잡고 춤추니

[출 15:21]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
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찬양은 남자와 여자가 모
두 함께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마지막 부
분에서는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서 춤을 추었습
니다. '소고'는 탬버린과 같은 악기입니다. 여인
들이 전혀 부끄러워 하지도 않고 부담도 느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전심으
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
다.

성경은 남자들만 우선시 하는 책이 아닙니다. 비
록 유대인들이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박혀져 있
어서 여성들을 남성에 비해 비하시키는 경향이

하지만 성경은 결코 남존여비 사상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남존여비 사상이 어찌하여 유대인들에게는 것처럼 강하게 뿌리박게 되었는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좋지 못한 사고방식이 민족성을 바꿔놓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전통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워놓은 전통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적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막 7:6]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막 7:7]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은 이사야서의 다음 구절입니다.

“[사 29:13]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두 구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의 계명”은 바로 ‘사람의 전통’을 말합니다.

[출 15:22]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출 15:23]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수르(Shur)광야는 애굽의 동편 국경 지역의 광야를 가리킵니다. 수르광야가 매우 건조한 땅이기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

에서 3일 동안 물 구경을 못하였습니다. 저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가져온 물은 짐승 가죽통에 다가 가져왔기 때문에 지극히 적은 양이어서 하루 정도면 이미 다 사용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광야를 3일동안 여행하였으니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에 다다랐을 때 그것에 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물은 맛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최초로 장막을 친 곳이 마라였습니다. 이 곳 '마라'는 홍해로부터 대략 7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써 오늘날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수에즈만 (Suez 灣)에서 대략 11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출 15:24]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출 15: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

험하실새

[출 15:26]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그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게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자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물에 던지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대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살 때에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이 있는 자를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질병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내리신 조건대로만 행한다면 그 어떠한 질병도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질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질병'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애굽 질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은 곧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에 내린 질병'은 세상에 내린 질병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질병에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 뿐만 아니라 재물의 질병도 있으며 가정의 불화나 자녀가 똑바로 성장하지 못하는 질병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질병이 임할 때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없어지며 자녀에게 문제가 임하고 직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업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1)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2) 의롭게 살며 3) 3)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4) 규례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보기에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여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듯이 우리의 의로움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으며 목사나 사역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들으면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질병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는 것은 성도간의 지켜야 할 관습이나 질서를 말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자는 애굽의 질병이 임할 것입니다. 성도간의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성도간의 예의를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애굽의 질병이 임할 것입니다.

[출 15:27]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칠십 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떠나 엘림에 도착하였습니다. 엘림은 수에즈만에서 동남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엘림은 강수량이 많아 개울과 샘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물샘이 12개가 있었고 종려 70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좋은 휴식처였을 것입니다.

물샘 12개와 종려 70주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전세계 70족속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곳으로 진행했더라면 이

러한 오아시스 지역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저들은 이곳 엘림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따라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또한 12지파 안에 속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애굽 고센 땅 라암셋(21:37) -> 숙곳(12:37) -> 에담(13:20) -> 바알스본(14:2) -> 홍해(14:22) -> 수르 광야(15:22) -> 마라(15:23) -> 엘림(15:27).

창세기 16장 =====

[출 16: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나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이월 십오일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온지 한 달이 지났 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떠나 신 광야에 머물렀는데 그 때의 날짜가 '이월 십오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이 아빉월 15일이었으므로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난 것입니다.

"[민 33:3] 그들이 정월 십오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유월절 다음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출 16:2]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출 16:3]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와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들이 원망했던 이유는 다름아닌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애굽에 있었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비록 애굽에 노예로 살았지만 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지금 당장에 굶고 있는 저들의 신세를 한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하나님께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백성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함께 하신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 갑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과거로 돌아가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 16:4]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 16:5] 제육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출 16:6]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출 16:7]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관대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을 위해 양식을 비같이 내려 주셨습니

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원을 들어 주시면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이 6일간밖에는 허용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6일째에 안식일을 위해 미리 예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처럼 안식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 20: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출 20:10]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 20: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 16:8]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출 16:9]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출 16:10]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출 16: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 16:12]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

시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꾸짖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모세를 원망하는 자는 저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모세를 대항하는 자는 저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원망하거나 대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저들이 성경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고 대항치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 16:13]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출 16:14]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출 16:15]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나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와 떡을 달라고 모세에게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매일 공급되었으며 무려 4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출 16:16]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출 16:17]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출 16:18]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만나는 각 사람마다 한 오멜씩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짐을 의미합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요 6: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멜은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언급된 도량형 단어입니다. 오멜(Omer)은 조그마한 토기 사발인데 곡식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

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물건의 부피를 재는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오멜은 대략 2리터 정도에 해당됩니다.

[출 16:19]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 두지 말라 하였으나

[출 16:20]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각 사람마다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둬서 그것으로 하루 양식을 삼아야 했지만 그러한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더 많이 거두는 사람이나 또 먹지 않고서 그것을 남겨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먹지 않고 남긴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만나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음식이었으므로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에 대해 화를 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도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도 귀한 것입니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자신의 건강도 귀한 것이고 재물 또한 귀한 것입니다. 그 무엇이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출 16:21]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쬘이면 그것이 스러졌더라

[출 16:22] 제육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출 16:23]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출 16:24]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출 16:25]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출 16:26] 육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칠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출 16:27] 제칠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출 16: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출 16:29]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 제육일에는 이들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칠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출 16:30] 그러므로 백성이 제칠일에 안식하니라

[출 16:31]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출 16:32]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출 16:33] 또 아론에게 이르되 향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출 16:34]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출 16:35]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출 16:36] 오멜은 에바 십분의 일이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먹다가 남은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놔두게 될 때 만나가 썩거나 벌레가 생겼는데 안식일날에 보존된 만나는 전혀 상하지도 않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6일째 되는 날에는 평소보다 두 배의 만나를 거둬야 했습니다. 안식일날에는 만나 거두는 것을 쉬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행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함이

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안식일의 법을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안식일의 법을 거룩히 잘 지키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출 20: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출 20:10]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 20: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력으로 첫째달인 아빕월 15일에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14일날 유월절을 치른 후에 애굽사람들이 급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는 바람에 급하게 무교빵을 만들어서 애굽

을 떠나왔습니다. 애굽을 떠난지 한달이 되었을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출 16:1-3).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며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출 16:1-3]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 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 이월 십 오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 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 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전에 홍해를 건넌 후 사흘째에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였는데(출 15:22), 이번에는 음식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떡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떡을 원하였기에 떡과 같은 만나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떡과 고기를 먹고 싶어 모세

를 원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고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떡과 같은 만나만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내려주지 않으시고 만나만 내려주신 것은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떡되신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 6: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지 않으시고 만나를 먼저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생활을 온전히 끊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는 애굽에서 먹던 떡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려 40년동안 이나 만나를 공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묻어있는 애굽의 떡 맛을 완전히 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는 갯씨같고 색깔은 진주와 같았습니다. “[출 16:31]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민 11:7-8] 만나는 갓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찜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갓씨는 3mm 정도크기의 매우 작은 회백색 동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마치 진주와 같습니다. 열매가 처음에는 악취와 함께 비린내가 있지만 나중에서야 비로소 향기나는 열매로 변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 것은 저들이 애굽생활의 삶을 벗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저들에게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만나를 내려 주셨지만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허락하십니다. 처음에는 주지 않으셨지만 끝내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말았습니다.

“[출 16:11-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들에게 내린 고기는 3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고기를 내리셨을 때 기쁜마음으로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시기 위해 내리신 고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 11:18-20]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

어 먹게 하실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닳새나 열흘이나 이십 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일 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는 백성에게 “코에서 넘쳐서 싫어 하기까지 일 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라는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말한 ‘재미있었다’는 의미는 세상의 정욕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성욕’입니다. 저들이 고기가 없어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소와 양과 가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른 음식과는 달리 살아있는 생축을 가지고 나올 때는 생축을 통해 얼마든지 고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말한 ‘고기’는 단순히 영양분을 제공하는 고기가 아니라 ‘정력’을 키워줄만한 그런 고기였던 것입니다.

“[민 11:4-6]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도다 하니.”

물론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정력'이라는 단어는 '영혼'이나 '생명'을 의미하는 <네페쉬>입니다. 하지만 '정력이 쇠약하다'는 말은 '몸이 뼈쩍 말라졌다'란 의미로써 만나밖에 없는 지루하고 반복된 삶을 통해 세상적인 재미없는 삶을 빚대어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광야생활을 통해 애굽생활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소원대로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30일 동안이나 메추라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30일동안 메추라기를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즐거먹었던 고기였습니다. 특별히 메추라기는 저들에게 정력을 돋게 해 주었습니다. 애굽에는 갈대 숲이 많았는데 메추라기가 많이 날아 들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메추라기를 통해 저들이 고된 노역생활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정욕을 발휘해서 자손을 많이 낳아 심히 번성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죄하시면서 저들을 가르켜 '탐욕을 낸 백성'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민 11:31-34]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진 곁이 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십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퍼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잇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탐욕'은 '바라다' 혹은 '소

원하다'의 뜻을 가진 <아바>인데 다른 여인을 탐할 때에도 <아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 5:21]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찌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찌니라" 결국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은 메추라기 고기가 잇사이에 끼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고 만 것입니다.

마땅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길 때 그것이 믿는 자의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 8:3]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기 17장 =====

[출 17: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아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딴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지라

[출 17:2]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출 17:3]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갈하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신 광아에서 떠나 르비딴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르비딴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며 다투었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을 때도 모세를 원망했는데 또 다시 르비딴에서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와 다투어 돌로 쳐 죽일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마라에서 쓴 물을 단 물로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채 당장에 물이 없음으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출 17:4]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 하겠나이다

[출 17: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출 17:6] 내가 거기서 호렙 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출 17:7]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

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모세는 르비딴 이름을 '맛사' 또는 '므리바'라고 명하였습니다. '맛사'는 '시험하다'란 뜻이며 '므리바'는 '다투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이 지역 이름을 '맛사'와 '므리바'로 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더불어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 분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시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출 17:8]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딴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딴에서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었던 사건이 종료되자마자 더 큰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

엘 백성을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그 곳에 살고 있는 족속이 아니라 약탈을 일삼는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광야여행으로 인해 피곤해 있는 틈을 타서 약탈하려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출 17: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출 17:10]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출 17: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출 17:12]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출 17:13]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

을 쳐서 파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케 하시기 위해 매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높은 산 위에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르비딤이 호렙산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근처의 높은 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방법은 두 손을 높이 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세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여 손을 내리고 있을 때에는 아말렉이 우세하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동행한 아론과 훌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서는 모세의 팔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 강력한 아말렉 족속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높이 들어 아말렉 족속을 승리토록 하신 것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 오기 바로 이전에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고 다 투었기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

여금 다시는 모세를 원망하거나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의 위치를 세워주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출 17: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출 17:15]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출 17:16]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말렉을 완전히 도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말렉 족속을 미워하신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 유혹하기 때문이었

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빠져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사울왕에게도 내려졌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삼상 15:2-3)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사울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녀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건드리거나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우리는 결코 악한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말렉 족속

‘아말렉’이라는 뜻이 ‘골짜기의 거주자’인데 그들은 주로 골짜기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저들이 골짜기에서 주로 살았기때문에 농업생활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어쩌면 약탈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지금은 아말렉이 열방중에 으뜸이니 종말에는 멸망하리라”(민 24:20)고 예언을 할 정도로 아말렉의 위세는 매우 컸습니다. 아말렉의 거주지는 가데스바데아를 중심으로해서 사해 남쪽부분의 바란광야였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는 미디안과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7년동안 괴롭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갔을 때에 아말렉이 시글락에 침입하여 부녀들을 사로잡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여 부녀들과 노략해간 물건을 다시 빼앗아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삼상 30:1-20).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첫번째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높은 산 위에 올리시고 그곳에서 두 손을 높이 들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말렉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출 17:11)

‘아말렉’ 족속의 조상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딤나’라는 첩을 통해 낳은 자식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창 36:12)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하기 위해서 쳐들어 온 것입니다. 오랜 광야에서의 여행으로 인해 피곤해 있는 틈을 타서 공격해 온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신 25:17-18)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싫어하신 이유는 저들이 비겁하게 피곤한 백성들을 쳐서 약탈하려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더욱 싫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말렉 족속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도 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신 25:19)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약속하시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출 17:16) 이처럼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말렉족속을 싫어하신 가장 큰 이유는 아말렉 족속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구원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말렉 족속은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모두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삼상 15:2-3)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완전히 멸망되어야 할 아말렉 족속이 대를 이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삼상 15:9)

결국 사울왕의 불순종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싸움은 아하수어로 왕이 통치하던 때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아말렉의 후손인 '아만'이라는 자에 의해 유대인이 완전히 몰살 당할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왕에게 거짓 모함을 고해 바치고 유대인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조서를 받아내었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부쳐 왕의 각 도에 보내니 십이월 곧 아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노소나 어린 아이나 부녀를 무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에 3:13-14)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유대인 스스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에 8:11) 결국 유대인은 칠만 오천명을 죽이며 스스로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죽은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조서에 의하면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유대인은 스스로의 생명만 지켰을 뿐 저들의 재산은 탈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의 각 도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칠만 오천 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에 9:16)

출애굽기 18장 =====

[출 18:1]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
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출 18:2]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 보
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출 18:3]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
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
에서 객이 되었다 함이요

[출 18:4]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위대한
업적들이 주변의 나라에 전파되었습니다. 미디
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
었으며 천지천하의 절대적인 위대한 신으로 인

정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핍박하는 사람들이나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알게 될 때에 저들의 심령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해야 할 것입니다.

[출 18:5]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 친 곳이라

[출 18:6]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출 18:7]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출 18:8]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출 18:9]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출 18:10]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곳으로 찾아 갔습니다. 모세가 애굽땅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십보라와 두 아들과 이별하였는데 이드로가 저들을 데리고 모세와 만나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가족과 헤어진 곳은 애굽으로 가는 길의 숙소였습니다. 모세는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출 4:24]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천사가 이처럼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수행할 모세가 정결하고 거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기때

문에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함에 있어 합당하지 못한 무언가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했을 때 모세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아직도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십보라가 차돌을 취하여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출 4:25] 십보라가 차돌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그런데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십보라의 말을 통해서 그의 심정을 엿볼수 있습니다. 그녀는 모세에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십보라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한 것은 오히려 모세를 비꼬면서 말한 것입니다. '피 남편'이라는 말은 '할례받은 민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출 4:26]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 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드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저들 나뭇대로의 신이 있었으며 십보라는 미디안의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피 남편'인 모세에 대해 자신의 신과 하나가 될 수 없음을 공인한 것입니다. 그녀의 그러한 태도는 불가불 모세와 헤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가 저들을 분리시키고 만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에는 "모세가 돌려 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세와 십보라가 헤어진 것은 결과적으로 모

세가 아내를 돌려 보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서로 다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십보라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행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십보라와 헤어지는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드로를 통해 십보라가 다시 모세와 재회를 하였지만 성경은 더 이상 십보라에 대해 공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쩌면 여전히 그녀가 자신의 믿는 신을 여호와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민 12:1]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칼빈을 비롯하여 여러 성경학자들은 '구스 여인'이 바로 '십보라'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

는 성경학자의 마음에는 모세의 거룩한 선지자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보라는 이미 이전에 모세의 아내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새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구스 여인과의 결혼을 놓고 매우 대단한 반대의견을 보였는데 이전에 이드로가 십보라를 데려왔을 때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제사까지 지낼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십보라는 모세로부터 다시금 버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미디안으로 다시 돌아갔거나 모세의 새로운 결혼 이전에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 18:11]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와 모든 신보다 크시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출 18:12]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

을 먹으나라

이방인이라 할찌라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왔을 때에는 아직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성막의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막뜰까지만 허락되었을 뿐 성소나 지성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후에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방인의 하나님께 대한 경배라기 보다는 이스라엘 장로급 이상으로 이드로를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에 대해 매우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이방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차별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출 18:13]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출 18:14]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이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냐

[출 18:15]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이라

[출 18:16]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출 18:17]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출 18:18] 그대와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는 200만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송사를 혼자서 집행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도 모세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행하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14절)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서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라고 꼬집어 말하였습니다. 언뜻보면 모세의 행동이 좋게 보일지 모르나 모세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과 함께 모든 백성의 필요사항을 다 충족해야만 하는 모세의 형편을 보고서 이드로가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사 혼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설교부터 시작해서 교회 청소까지 모든 일을 목사가 혼자서 다 감당하는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 18:19]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
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
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출 18:20]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
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출 18:21]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
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출 18:22]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
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
대에게 쉬우리라

[출 18:23]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
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
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출 18:24]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출 18:25]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재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

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출 18:26]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
더라

[출 18:27]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먼저 이드로는 모세의 해야 할 일과 백성의 해야
할 일을 구분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율례
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
들에게 보이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리고 백성 중에서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께서 가
르치신 바대로 백성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조직
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드로가 제안한 조직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습
니다. 그는 천부장을 세우고 천부장 밑에 10명의
백부장을 세우며 각 백부장은 두 명의 오십부장
을 거느리며 오십부장 밑에는 다섯명의 십부장
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직 형태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도 이러한 조직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지도자의 자격까지 제안했습니다. 이

드로가 제안한 지도자의 자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적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

[출 19: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삼월 곧 그 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 19:2] 그들이 르비딴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출 19:3]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출 19:4]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을 때가 종교력으로 1월 15일이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난 지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 된 셈입니다. 르비딴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른 후에 이곳 시내 광야로 이동하여 시내산 앞에다 장막을 쳤습니다.

[출 19: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 19: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선민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출 19:7]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출 19:8]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출 19: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뽕뽕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일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시나산에서 모습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매우 가까이 거하셨습니다. 에덴동산 이후에 이토록 백성들과 가까이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그 모습을 감추시기 위해 뽕뽕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시나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출 19: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출 19:11] 예비하여 제삼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삼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 앞에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결'이란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카다쉬>는 '거룩'이란 의미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깨끗함 보다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지는 거룩입니다. '성결'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거룩히 올려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세상과의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결과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이 '정결'이라면 세상의 정욕

에서 깨끗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 19:12]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녕 죽임을 당할 것이라

[출 19:13] 손을 그에게 댄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쏘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무론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출 19:14]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정한 '지경'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고서 소홀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히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

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정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부끄러워 할 것입니다.

[출 19:15]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 삼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삼일간의 기간을 주어 저들로 하여금 성결케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으로 하여금 성결케 하기 위해 저들의 옷을 빨도록 하셨습니다.

“[출 19: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출 19:11] 예비하여 제 삼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

삼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의 옷을 빨고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여인을 가까이 말라”고 덧붙였고 백성들을 더욱 성결토록 하였습니다.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적인 욕망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적인 정욕의 대표적인 것은 '성욕'입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 부부간의 성관계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욕망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 성적인 욕망을 자제하기 위해 부부가 잠시동안 분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전 7:5]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전 7:6]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그 외에 정욕으로는 '식욕'과 '수면욕' '명예욕' '재물욕'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정욕은 모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하는 자는 이러한 세상적인 정욕을 모두 버려야 할 것입니다.

[출 19:16] 제삼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뽕뽕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 19:17]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제 삼일이 되었을 때 "우리와 번개와 뽕뽕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와 '번개'와 '뽕뽕한 구름'과 '나팔소리'가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요한이 시현으로 천국 성전을 봤을 때 그곳에도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 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며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마 24: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 24:31]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출 19:18]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웅기점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출 19:19]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출 19:20]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출 19: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출 19:22]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출 19:23]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연기가 자욱하였습니다. 이 '연기'는 뽕뽕한 구름을 의미합니다. 뽕뽕한 구름 가운데에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연상케 합니다. 불기둥이 구름기둥 가운데 있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불과 구름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출 40:38]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출 19:24]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출 19:25]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하나님은 일반 백성들은 시내산의 어느 지경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게 명하셨습니다. 더 이상 높은 곳에 오르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모세와 아론만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일 성결치 못한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했기때 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 셧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거 룩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것이지만 죄가 없을 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오직 '회개'와 '보혈'뿐입 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질 것이며 우리는 거룩하다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

[출 20: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출 20: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지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십계명의 처음 네가지는 하나님과 연관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부터 열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첫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
든지 만들지 말며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
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
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
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 20: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
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번째 계명은 첫번째 계명과 구분되고 있습니
다. 첫번째 계명에 나오는 '다른 신들'은 석가모
니나 공자와 같은 어떠한 종교적인 신을 의미합
니다. 하지만 두번째 계명에 나오는 '우상'은 '다
른 신들'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물'이 될
수 있으며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
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

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 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다른 우상이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자손 천 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만일 그 계명을 어길 때는 자손 삼 세대까지 죄를 갚으십니다. 사람들은 왜 가정에 불화가 있고 재물에 문제가 있으며 자녀가 똑바로 성장하지 못하며 질병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볼 때는 우리가 1)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못하고 2) 의롭게 살지 못하고 3) 계명을 지키지 않고 4)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출 15:26]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

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
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
라”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럴때 하나
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
다.

[출 20:7]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
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
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어
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하나님께서서는 그런 자를 죄없다 하지 않으시겠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용에는 '오용'하거나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 20: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출 20:10]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 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 20: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으며 그 날을 거

룩한 날로 삼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안식일의 법
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
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세번째 계명은 하나님
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 20:7]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misuse)’이라는 말은 그 말의 의미가 ‘오용
하다’ ‘악용하다’ 그리고 ‘남용하다’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
용’하는 것입니다. ‘악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
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함
부로 사용되어서도 안되며 잘못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되거나 악용되거나
남용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참지 못할 치욕
스러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의 대표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되이 맹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 19:12)

하나님께 거짓으로 맹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거짓되이 맹세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맹세한 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사람이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찌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마 5:34-36)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맹세가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도 상처를 입고 사람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악한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목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구입하는 이유를 정직하게 적을 땐 많은 손해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땅이라고 그 이유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록 교회나 목사에게 이익이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서 얼

마나 많은 악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한 나라와 한 나라간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여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치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막 7:11-12)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르반'이라고 규정된 예물은 다른 곳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한 행위로 사용되는 것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했습니다. 특별히 부모에 대한 효도를 게을리 하기 위해서 부모를 위해 사용될 재물을 '고르반'이라 말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

입니다.

교회모임을 빙자해서 남편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는 욕설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욕설을 하는 사람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런 욕설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

있을 뿐이라”(사 29:13)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용을 절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선 안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자녀들 이름 부르듯이 쉽게 불러선 안됩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의 귀한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거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는 않습니다(마 7:6).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마 6:7)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아버지를 하루에 수천 번 부른다고 나무랄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버지의 장난 삼아 이름을 부를 땐 화내지 않을 아버지도 없을 것입니다.

안식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의 법을 제정 하셨습니다. 안식년은 안식일의 연장이었습니다. 안식일이 6일 후에 7일째에 안식하는 것이라면 안식년은 6년 후에 7년째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안식하였습니다. 이 해에는 사람도 안식했으며 토지도 안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갈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냥 놔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은 땅으로 하여금 안식을 취하게 함이며 이로 인해 더욱 소득이 증대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 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 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 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 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 니한 포도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레 25:1-5) ”

하나님은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제 7년째 땅을 쉬게 할지라도 6년째에 3년 동안 취할 수확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6일째에 만나를 갑절로 내려 주신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7년째 땅을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 칠 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 육 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삼 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 팔 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 구 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레25:18-22)

안식년 기간에는 모든 사람이 공평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땅이 안식을 누림으로 땅 주인과 일반 사람은 모두 공평하게 되었습니다. 안식년 기간

에는 토지 주인이라 할지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으며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은 모든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종이냐 나그네냐 들짐승까지 안식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레25:6-7)

또한 안식년에는 종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종은 모든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었으며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 7년 안식년에는 모든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매 칠 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 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 할지라도 너는 치리 함을 받지 아니하리라.”(신 15:1-6)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되는 39가지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느질 2) 밍가는 일 3)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 4) 곡식단을 묶는 일 5) 타작하는 일 6) 곡식을 까부는 일 7) 곡식이나 거두어 들인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8) 곡식을 가는 일 9) 체질하는 것 10) 반죽하는 것 11) 빵을 굽는 일 12) 양털을 깎는 일 13) 양털을 빠는 일 14) 양을 치는 일 15) 양털을 물들이는 일 16) 실을 짓는 일 17) 실 따위를 엮는 일 18) 두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19) 두 개의 실을 엮는 일 20) 두 개의 실을 푸는 일 21) 실을 묶는

일 22) 실을 푸는 일 23) 두 조각을 꼬매는 일
24) 두 조각을 꼬매기 위해 찢는 일 25) 사슴을
뺏으로 잡는 일 26) 사슴을 도살하는 일 27) 사
슴의 가죽을 벗기는 일 28) 사슴의 고기에 소금
을 치는 일 29) 사슴 가죽을 가공하는 일 30)
사슴 가죽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 31) 사슴의 가
죽을 자르는 일 32) 두 글자를 쓰는 일 33) 두
글자를 쓰기 위해 두 글자를 지우는 일 34) 건
물을 짓는 일 35) 건물을 부수는 일 36) 불을
끄는 일 37) 불을 켜는 일 38) 망치질 39) 물
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안식일의 법규를 어기는 사람은 우상숭배자라
고 여겼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법입니다. 안식
일의 법규에 대해서는 미쉬나에서 보다 구체적
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옛세나파 사람들은 일
반 유대인들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안식일 법
규를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500m
이상 움직여서는 안되었으며, 마실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붓는 것, 무엇을 집에서 밖으로 내가
거나 밖에서 집으로 들여오는 것, 닫힌 항아리
를 여는 것, 새끼를 낳는 짐승을 도와주는 것, 집
안 청소, 아이를 안아 주거나 업어 주는 것도 금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일을 시
키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 가까이에도 머물지 않

있습니다. 다만 생명을 구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지만 이러한 법규를 어겼을 경우엔 7년 동안 구금생활을 하게 하는 엄격한 안식일법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락된 것이었지만 생명의 위험이나 매우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것이나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예수님의 기적은 선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나 소경같은 경우엔 안식일이 지난 평일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마 12:11)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신 것은, 안식일의 법규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주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양을 잃는 것이 아까워 법규를 쉽게 어기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절대적

인 이유는 "왜 평일 날에 할 수 있는 일을 안식일에 행하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18년동안 귀신걸렸던 여인을 고쳐 주셨을 때도 안식일이었는데(눅 13:10-17) 이때에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이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십 팔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고 반박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된다는 법규를 중요시 여긴 반면에 예수님께서서는 생명과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중요성을 두셨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었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일련의 노동이라고 정죄했지만 배고파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배고픔을 해소하고자 했던 행위임을 내세우면서 제사장만 먹었던 진설병 음식을 다윗이 제자들과 함께 먹었다는 내용으로 반박했습니다(삼상 21:1-6).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 2:27).

이처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얽매어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율법은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이지만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도 아니됨을 가르치셨습니다. 오히려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더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처음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여섯 가지 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에 대한 여섯 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첫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생명을 길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할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같은 약속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엡 6:1]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엡 6: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엡 6:3]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여서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교육은 자녀들이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칩니다.

[출 20:13]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섯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도 있지만 영적 살인도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요일 3: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출 20:14] 간음하지 말지니라

일곱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입니다. '간음'은 성적인 죄입니다. 배우자를 두고서 다른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모두 '간음'입니다. 또한 주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마 5: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

하였느니라”

또한 주님은 음행한 연고 외에 배우자를 내어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간음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 19: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 13:4]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출 20:15] 도적질하지말지니라

여덟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찌니라”입니다.

‘도적질’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도적질 하는 것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도적질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는 것은 ‘십일조’와 ‘헌물’입니다. 누구든지 십일조를 내지 드리지 아니하고 헌물을 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 3: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할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말 3:9]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출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홉번째 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입니다. 거짓 증거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거짓 증거가 나타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형제를 사랑한척 하는 것도 거짓증거입니다. 바울은 "[엡 4:25]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증거하는 자는 양심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딤후 4:2]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거짓말 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요일 4: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거짓 증거는 우리의 믿음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 사역자들에게 이러한 거짓된 믿음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진실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도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요일 3: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이거나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거짓되이 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미 선지자들의 타락됨을 이렇게 적어 놔습니다.

“[미 3:11]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

며 그 제사장은 샅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 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 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누구든지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서 양심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거짓을 일삼는 자들은 모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된 증거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거짓 증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주님의 생명책에도 기록되지 못할 것입니다.

“[계 21: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이처럼 거짓말 하는 자들은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계 22:15]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출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열번째 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입니다. 이말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며 이웃의 남종과 여종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재산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심은 곧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 서너가지를 말하였는데 주로 ‘탐심’이었습니다. 재물을 탐하여 형제를 팔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가난한 자를 내치며 형제가 잘 되는 것이 싫어서 형제로

하여금 고난을 받을 함정을 준비하는 등 주로 이웃에 대한 '탐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암 2:6]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암 2:7]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암 2:8]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렇기때문에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골 3: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하면서 '탐심'을 버리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해결되고, 인간에 대한 계명은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해결됩니다. 주님은 "[마 22: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9]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롬 13: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찌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출 20:18] 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출 20:19]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산 기슭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거하시고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하도 장엄하고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저들 심령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깃들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반응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되시지만 정작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뵈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정작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한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는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를 좋아하고 부모와 함께 있으려 하는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싶어할 것입니다.

[출 20:20]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1)자녀의 믿음을 시험하고 2)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살펴보고 3)자녀들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지를 보
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
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
리로 하여금 마귀의 계략에 빠져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출 20:21]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모세는 하
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고 기록하
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흑'이라는 히브리
어는 <아라펠>로써 '어둡거나 캄캄한 구름'을 의
미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하나님 계신 곳과 백성
들과의 사이에 둘러져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볼 때는 마치 모세가 암흑 속으로 가는 것이라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출 19:16] 제 삼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백백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처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함께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해 능히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가 되었으며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왕상 8:10]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왕상 8: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또한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는 구름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회막에 구름이 가득했을 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출 40: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출 40: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출 20: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친히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입니다.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뽕뽕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 것을 보았다는 것을 더 우선

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보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말로 해석하여도 전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말하는 것'은 보는 것이라기 보다는 듣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증거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출 20:23]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출 20:24]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곳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이미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제 2 계명을 보면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라는 계명 속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모두 '나 자신'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설명할 때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적인 신들이 수도 있으며 재물이나 자녀나 명예나 건강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우상숭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 만든 것

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모은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사람으로 사용되라고 간구하면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것'은 모두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재물을 모으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건강을 챙기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학업에 열중한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 자신을 위한 노력은 모두 우상숭배입니다.

누구든지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

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자손 삼 세대까지 그 죄 값을 치루게 하실 것입니다.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지만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인데 이 단어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 들어오시며 나가는 모습이 마치 한 가정에 함께 사는 가족과 같은 느낌을 들게 함은 어쩔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주 가까이서 강림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 20:25]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출 20:26]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묻어 있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러지는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의 방법(전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 15: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 15: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는 사람의 세운 전통을 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은 정결과 거룩함으로 나아오라는 의미입니다. 행여하도 예배를 드릴 때 정결치 못하고 거룩치 못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21장 =====

[출 21: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칠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출 21: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는 힘없고 불쌍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히브리 종을 샀을 경우에 반드시 6년 동안 부린 후에 만 6년이 지난 7년째에 그 종을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관대한 율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같은 동족에게 매우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종일 경우엔 히브리 종과는 달랐습니다. 이방인 종의 경우엔 주인의 평생 부리는 종이 되었고 그 후손에게까지 대대로 소유권이

유지되었습니다.

“[레 25:45]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는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찌니 [레 25: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찌니라”

[출 21:3]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출 21:4]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출 21:5]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출 21: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यो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
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
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히브리 종이 남자일 경우엔 다음과 같은 율례가
있었습니다. 1) 남종이 결혼하지 않고서 종이 되
었을 때는 7년째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되었습
니다. 2) 남종이 결혼한 상태로 종이 되었으면 7
년째 아내와 함께 자유케 되었습니다. 3) 남종이
종이 된 후에 주인의 배려로 아내를 얻게 된 경
우엔 남종은 7년째 자유케 될 수 있지만 그의 아
내와 자녀는 상전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남종이
아내와 헤어지기 싫어할 경우엔 상전의 평생 종
이 되어서 아내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귀를 뚫어 영원히 상전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서
약해야 합니다.

[출 21:7]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
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출 21: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
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

[출 21: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
으면 그를 딸 같이 대접할 것이요

[출 21:10]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
이요

[출 21:11] 이 세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여종으로 팔았으며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찌며”라는 말은 일반적인 여종이 아니라 “첩”으
로 팔려진 여인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종을
취했을 경우에도 남종과 마찬가지로 7년째에 그
녀를 자유케 해야 합니다.

“[신 15:12]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육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칠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
게 할 것이요”

하지만 만일 여종을 첩으로 맞이했을 경우엔 다른 종과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만일 상전이 그 여종을 첩으로 맞이했는데 그녀를 맘에 들지 아니할 경우엔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에게는 팔 수가 없었습니다. 타국인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히브리 여종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또한 만일 그 상전이 여종을 사서 아들에게 주었다면 그 여종을 딸처럼 대접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전이 그 여종을 버리고 다른 여인에게 장가를 들찌라도 그 여종에게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베풀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여종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만일 상전이 의복과 음식과 동침을 베풀지 않으면 여종은 속전을 지불하지 않고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침'은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결혼한 배우자에게 의복과 음식과 동침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배우자에게 필요한 의복을 제공해야 하며 배우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말고 자신의 몸이 배우자의 것임을 인

식하며 배우자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고전 7:3]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찌라 [고전 7:4]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고전 7:5]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출 21:12]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출 21:13]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출 21:14]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출 21: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율법은 매우 엄격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예기치 않는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을 위해 '도피성'을 만들어 그곳에 거하여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민 35: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민 35:12]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 이니라”

하지만 만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엔 비록 그가 도피처가 되었던 성소의 단 뿔을 잡고 있을지라도 그를 잡아 내려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제단
뿔을 잡았을 때 아도니아를 죽일 수 없었던 것처럼
성전의 제단 뿔은 도피처 역할을 했습니다.

“[왕상 1:51]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
되 아도니아가 솔로몬왕을 두려워하여 지
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왕이 오
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출 21:16]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
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 지니
라

‘사람을 후린다’는 것은 유괴를 의미합니다. 오늘
날도 유괴는 매우 극악한 죄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매우 극심한 죄였습니다. 누구든지
유괴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출 21:17]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

드시 죽일 지니라

[출 21: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었다가

[출 21:19] 지팡이를 쥔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출 21: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출 21:21] 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출 21: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가장 큰 비중을 두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치 않는 부모는 없지만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는 자식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부모를 공경치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심한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막 7:10]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막 7:11]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막 7:12]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출 21: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출 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출 21: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기본적인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상대방이 내게 행한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죄값을 요구해서는 안됨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잘못을 행했을 때 그것에 대한 죄값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운 감정까지 더해서 더 많은 죄값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상대방의 지은 죄에 대한 그것만 죄값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 지은 사람은 죄를 자복해야 하며 그 죄값을 갚되 오분의 일을 더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민 5:7]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 줄 것이요"

[출 21: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출 21:27]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출 21: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남종과 여종을 함부로 다스리지 못하도록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남종과 여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할 경우나 쳐서 이빨을 빠뜨리게 하면 그들을 자유케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보호하려 하심입니다.

[출 21:29]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 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출 21: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출 21: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
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만일 소가 사람을 받아치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
서도 소를 단속하지 않아 소가 남자나 여자를 죽
일 경우엔 그 소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을뿐만
아니라 그 임자 또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
만 만일 그 주인에게 속죄금을 내라는 명령이 떨어
지면 그 주인은 죽은 생명에 대한 속죄금으로
내고 생명을 구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 21: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
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출 21: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
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
지면

[출 21: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치하여 짐승
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

지가 될지니라

[출 21: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출 21: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값은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하지만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이게 될 경우엔 일반 사람을 죽였을 경우와는 많이 달라집니다. 종이 죽을 때는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종의 상전에게 속죄금으로 지불하면 되었습니다. 죽은 남종과 여종이 불쌍하지만 그 당시 노예신분은 것처럼 불쌍한 신세였던 것입니다. 가롯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겼을 때 받은 돈 역시 '은 삼십 세겔'이었습니다. 이는 노예를 구입할 때 요구되는 금액이었으니 예수님은 노예처럼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마 26:15]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출애굽기 22장 =====

[출 22:1]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출 22:2]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출 22:3]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출 22:4]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출 22: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출 22: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난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하나님은 개인 소유권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법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도적질하였을 경우엔 소는 다섯마리, 양은 네 마리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 한 후에 아직까지 팔거나 죽이지 않았다면 두 배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배상할 돈이 없다면 그 사람의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심할 정도로 재산권 보호법을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도적질을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함입니다.

도적이 장막을 찢거나 뚫고 들어올 때 도적을 죽일 때는 무죄가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낮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엔 비록 정당방위라 할지라도 도적을 죽인 죄의 대가를 치뤄야 했습니다.

[출 22: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출 22:8]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출 22:9]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
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
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
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갑
절을 배상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겼는데
그 이웃집에서 도적을 당할 경우엔 그 도둑은 갑
절을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도둑이 잡히
지 않았을 경우엔 돈이나 물건을 맡은 이웃은 재
판장 앞에서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재판장
의 판결에 따라 그 이웃은 그대로 지켜야만 했습
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세우시고 재판장의
판결대로 백성들이 따를 수 있게 하신 것은 이스
라엘 백성들이 법을 잘 준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 22: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
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

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출 22: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출 22:12]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출 22: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출 22:14]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출 22: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 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소나 양이나 짐승을 맡겼는데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어디론가 가버렸을 때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없을 때는 이웃은 자신에게 그 어떠한 잘못도 없음을 하나님께 맹세하여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것

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짐승을 맡아 관리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리했던 이웃의 부주의함으로 누군가로부터 도적질을 당하였을 때는 관리자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관리했던 짐승이 찢김을 당하였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 배상하지 않지만 만일 어떠한 이유로 짐승을 빌려와서 그 짐승을 사용하다가 상하거나 죽으면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만일 임자가 그 상황에 함께 하였다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출 22:16]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꺾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출 22:17]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아직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꺾어서 동침하였을 경우엔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만일

그 처녀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딸을 주고 싶어 하지 않을 경우엔 그 사람은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정혼하지 않는 처녀와 동침한 사람에게 처녀와 결혼하도록 명하신 것은 성관계의 중요성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동침한 사람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적인 능력이 쾌락적인 것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성적능력은 인간이 만들어진 적부터 훼손되어 왔고 오용되어져 왔습니다. 노아때 모든 인류가 죽임을 당한 것도 이러한 신성한 성적능력을 쾌락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했을 때 세상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결혼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 6:1] 사람이 땅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창 6: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의 아름다움에 이끌린 것은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성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반드시 누군가 동침을 하였다면 그 사람과 결혼을 목적으로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에 대한 율법입니다.

[출 22:18]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지니라

'무당'이라는 단어는 '박수'나 마법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 '무당'이라는 말에 쓰인 히브리어 <카샤프>라는 단어가 '신접하는 자'나 '박수' 그리고 '점치는 자'와 '무당'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당'에 속하는 '신접한 자'나 '박수' '술객'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대항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술을 부리고 마술

을 부리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불어 대적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자들은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기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매우 싫어하시며 이런 자들을 죽이겠다고 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거나 좋아해서 따르게 될 때 그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출 22: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성적인 능력을 그릇되이 사용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적인 능력을 부여하신 것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성적능력을 이처럼 잘못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찌니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성적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의 육신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저들의 영혼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여자가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같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능력은 오직 창조적인 것에 국한된 것입니다. 같은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는 것은 자녀를 낳기 위한 성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창조능력을 가로막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 대해 반항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귀의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죄값을 치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동성끼리의 성관계 맺는 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롬 1:26]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롬 1:27]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출 22: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 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멸할찌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람>입니다. <하람>이라는 단어는 ‘금지’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뭔가를 하지 못하게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때에는 멸망시키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금지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 또한 하나님의 멸하심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성전을 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전 3: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이곳에 쓰인 '성전을 더럽힌 자'와 '멸하시리라'는 말은 같은 같은 단어입니다. 모두 <프테이로>입니다. 이 <프테이로> 단어는 '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전 3장 17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멸하는 것은 곧 성령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곧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

께서 멸하십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에서 더러운 음행을 행하는 것도 큰 죄이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죄는 더 큰 죄일 것입니다.

[출 22: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던음이니라

[출 22: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출 22: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출 22:24]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신변을 보호하시는 법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대우하기 때문입니다. 우

리 중 가장 연약한 자는 과부와 고아입니다. 과부와 고아는 연약한 자의 대명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 68:5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누구든지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의 가족들이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 25:40] 임금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출 22: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 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출 22: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출 22:27]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
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
이니라

만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 줬을 경우엔 이자
를 받지 말고 빌려 줘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이
자를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웃
의 옷을 전당잡았을 경우엔 해가지기 전에 그
옷을 가난한 자에게 돌려 줘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사람
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
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
이니라"

가난한 자를 이처럼 꼼꼼히 돌보시고 보호하시
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라도 저들처럼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유있는 자는 가난한 자를
돌봐줘야 합니다. 그래야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께 호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난한 자들의 상태를 아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 18:10]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출 22:28]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출 22:29]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재판장'은 '하나님'을 지칭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사'는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백성 지도자에게 추수한 것과 생산한 것의 일부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백성의 처음 난 아들들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모든 첫번째 아들을 원하셨습니다. 백성은 아들을 구속하기 위해 속죄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첫번째 아들들을 위해 하나님께 대신 속죄물로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첫번째 아들을 속죄하기 위해 레위지파를 통해 하나님께 속죄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출 22:30]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레로 하되 칠 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만에 내게 줄 지니라

[출 22: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제물로 사용되는 소와 양의 경우엔 7일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였습니다. 7일 동안 어미 젖을 먹고 성장할 때 면역성이 좋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도 8일 만에 할례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8일 만에 행해지는 할례의식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

[출 23:1]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허망한 풍설’은 헛된 소문을 뜻합니다. ‘무함하는 증인’은 거짓되이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십계명 중 아홉번째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증거하는 자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출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하나님은 거짓증거하는 것을 음행을 행하거나 악행을 저지르는 자처럼 싫어하십니다. 이렇듯 거짓증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계 21: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

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
된 자들뿐이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에는 거룩한 성
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거
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취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 22:14]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
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 나무에 나아가
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
려 함이로다 [계 22:15] 개들과 술객들과 행
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
에 있으리라”

그러니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거나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퍼트리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출 23:2]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출 23:3]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호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을 좇아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견적인 호의를 베풀어서도 안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공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정에 이끌리어 살다보면 아는 사람의 죄를 눈감아 주거나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재판을 공정치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다수가 선택한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것을 따르는 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정한 재판을 행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인간의 정에 이끌리어 편견적인 재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확한 재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편견적인 재판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 23:4]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출 23:5]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앞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출 23:6]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출 23:7]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날 때 그 원수에게 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앞드러져 힘들어 할 때에 그 짐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계명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구약의 하나님을 다소 엄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법대로 지은 죄값을 치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다소

부드럽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죄인을 용서하라는 사랑의 표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역시 신약의 하나님과 똑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때문에 백성에게 주신 말씀 또한 똑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리 말씀하셨으며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기본적인 사상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고 죄지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소 율법을 통해 지킬 것을 지켜야 하고 지불해야 할 것은 지불해야 하는 면이 신약보다 다소 강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백성들이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율법에 의해 은혜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인해 율법적인 면이 강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은혜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로 표현했습니다.

”[갈 3:23]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간
험느니라 [갈 3: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갈 3:25]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
하도다”

[출 23:8]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
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
느니라

[출 23:9]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
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
고 명하셨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만들기 때문
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뇌
물받고 잘못되이 백성을 다스린 것에 대해 통탄
하듯 기록하였습니다.

“[미 3:11]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샅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 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처럼 뇌물은 사람의 영혼을 흐리게 하여서 의로운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언급하면서 돈의 위험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딤후 6:9]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딤후 6: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었도다”

[출 23:10] 너는 육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출 23:11] 제칠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 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 리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6년 동안 땅을 경작하되 7년 쟁은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 저들로 그 땅을 사용하여 생활을 돕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7년마다 1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큰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우 단호하게 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대로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러한 땅의 안식년을 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의 손실을 더 크게 생각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손실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율법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가난한 자를 위해 물질을 모아야 하며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대한 것이 곧 주님께 대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작은 형제에게 행한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 줄 때에 하나님은 결코 그 상급을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 25:40] 임금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출 23:12] 너는 육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칠 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 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출 23:13]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하나님은 땅의 안식년에 이어 인생의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땅이 7년째 안식을 취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 또한 7일마다 안식을 취하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제정하신 법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법은 십계명의 법 중에서 다섯번째 계명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지만 사람들은 안식년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안식일의 법 또한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년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안식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출 23:14] 너는 매년 삼차 내게 절기를 지키지
니라

[출 23:15]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빍월의 정한 때에 칠 일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출 23:16]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
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 23:17]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번씩 주 여
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년에 세차례 나
오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남자는 해마다 세차례
성전에 나아와야 했습니다. 세차례는 '유월절(무
교절)' '오순절(맥추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성
경에서 언급하는 남자의 나이는 20세 이상인 남
자를 말하는데 어린 아이를 포함한 여인들도 성
전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출 23:18]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

겨 두지 말지니라

‘희생의 피’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제사에 따라 유교병이 드러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무조건 누룩이 든 떡으로 제사를 드리면 안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상한심령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록된 것입니다.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지니라”는 말씀 또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절기 희생에 쓰이는 짐승에게서 기름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모두 남김없이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태워야 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 23:19]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항상 처음 열매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소산의 첫 것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매우 올바른 섬김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염소 새끼를 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비인간적인 행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염소 새끼를 드리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헌신이지만 염소 새끼의 어미 젖으로 삼는 것은 비인간적이고도 무정한 행위이기때문에 그런 제물을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족을 핑개치면서 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

음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에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가족을 향한 의무까지 내팽개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딤후 5: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출 23:20]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출 23:21]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출 23:22]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출 23:23]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

리 사람과 헛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
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
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자'를 보내셨
습니다. 이 '사자'는 출애굽할 당시에도 한번 언
급된 바 있습니다. 바로가 애굽의 군병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을 앞서 지휘했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맨 뒤
쪽으로 이동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 사실
을 알 수 있습니다.

"[출 14:19]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
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
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출 14:20] 애굽 진
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
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
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이곳 출애굽기 23장에
서 '사자'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성경학자마

다 이 '사자'에 대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자'를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보내신 사자이며 이 사자는 또한 모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돕기 위해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마 18:10]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천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 작은 자에 대한 것을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

는 하나님의 돕는 '천사'를 통해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보새신 '사자'를 통해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은 커다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출 23:24]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며 그것들을 다 훼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출 23:25]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출 23:26]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출 23:27]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출 23:28]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출 23:29]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일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출 23:30]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선제조건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른 신에 속할 수 있는 우상은 우리의 '돈'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세상의 야망이나 학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지간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아끼며 귀하게 여기는 것은 모두 '다른 신'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은 먹을 '양식'을 허락하시고 '물'의 복을 내려 주시며 '질병'을 제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낙태하는 자가 없이 모두 잉태하는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출 23:31]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아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출 23:32]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출 23:33]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의 지경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땅의 지경은 "홍해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아에서부터 하수까지"였습니다. 이 말은 애굽의 홍해로부터 유부라데강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 23:20]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출 23:21]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출 23:22]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출 23:23]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자'는 출애굽할 당시에도 한번 언급된 바 있습니다. 바로가 애굽의 군병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지휘했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맨 뒤

쪽으로 이동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 14:19]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출 14:20]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이곳 출애굽기 23장에서 '사자'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성경학자마다 이 '사자'에 대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자'를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보내신 사자이며 이 사자는 또한 모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돕기 위해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예수님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마 18:10]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천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 작은 자에 대한 것을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천사'를 통해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보새신 '사자'를 통해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은 커다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출 23:24]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며 그것들을 다 훼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출 23:25]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출 23:26]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출 23:27]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출 23:28]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출 23:29]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일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출 23:30]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

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선제조건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른 신에 속할 수 있는 우상은 우리의 '돈'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세상의 야망이나 학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지간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아끼며 귀하게 여기는 것은 모두 '다른 신'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은 먹을 '양식'을 허락하시고 '물'의 복을 내려 주시며 '질병'을 제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낙태하는 자가 없이 모두 잉태하는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출 23:31]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

다까지 광아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출 23:32]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출 23:33]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옭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의 지경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땅의 지
경은 "홍해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아에서부
터 하수까지"였습니다. 이 말은 애굽의 홍해로부
터 유부라데강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

[출 24:1]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출 24:2]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출 24:3]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 24:4]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십이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출 24:5]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출 24:6]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출 24:7]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

가 준행하리이다

[출 24:8]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과 율법을 백성에게 전하였더니 백성이 모두 그 말씀대로 준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한 내용을 글로 기록하고 그곳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또한 언약한 백성에게도 피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뿌리는 피를 가리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언약서에 피를 뿌리고 백성에게도 피를 뿌렸던 것은 반드시 그 언약이 지켜져야 함을 뜻했습니다. 만일 그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피흘려 죽음당한 짐승처럼 찢개져 죽게 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식은 고대 근동에서 행해졌던 방법입니다.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짐승을 둘로 갈라 놓고서 언약체결자로 하여금 짐승 사이로 지나 가게 하는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찢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은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

람이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창 15:17] 해가 저서 어둑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언약식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출 24:9]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출 24:10]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출 24:11]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를 비롯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성경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습을 지니셨습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을 지니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형상을 지니고 계신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 33:11]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

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시면서 “[민 12:8]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와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 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뵈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출 33:22]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출 33:23]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자녀가 볼 수 없다는

것이 더욱 이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뵈었고 모세가 날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뵈었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과의 대면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형상을 지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오늘날은 성령시대입니다. 구약의 율법시대와 신약의 은혜시대를 거쳐 말일의 성령시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성령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구든지 성령님과 함께 하며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배울 수 있으며 주님의 행하신 능력 또한 전해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출 3:15)라는 말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문장은 히브리어로 <예흐웨 아쉐르 예흐웨>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예흐웨>는 '나는 존재한다(I am)'의 뜻입니다. 또한 <아쉐르>는 관계대명사 who 의 뜻으로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없으시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지존자(自存者)입니다.

"[계 1:8]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의 히브리어는 <예호와>입니다. 이것을 영어식으로 표기하면 'YHWH'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시하여 그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본 필사자들이 성경을 피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쓰던 붓을 부러뜨리고 목욕을 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이 나올 때에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 이(Adonay)'를 발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학자들이 '아도나이'에 사용되는 모음(a, o, a)을 YHWY에다가 같다 붙여서 발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YAHOWAY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첫 음절의 a 모음에 대한 사용은 발음을 꺼려하는 연구구조상의 문제때문에 보다 부드러운 e 모음이 포함되었습니다. 결국 '예호와(yehowah)'로 변화가 되었고 이것이 16세기에 들어와서 'jehovah'로 통상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표준역성경(ASV)과 신세계번역본(NWT)는 Jehovah로 표기 되었으며, 한글 개역은 "여호와"로 그것을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성경과 공동번역은 'yahweh'(야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출 24: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출 24:13]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출 24:14]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출 24:15]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출 24:16] 여호와와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육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칠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나 관습적인 규범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 간에 지켜야 할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과 성도들 간에 지켜야 할 규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출 24:17]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 같이 보였고

[출 24:18]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사십 일 사십 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임하였을 때 백성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불 같이' 보여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기도 하고 '불'처럼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과 빛과 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하였을 때에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모세는 성막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을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매우 강력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출 40:34]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출

40: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솔로몬 성전에도 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모두 완공하고 나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낙헌식을 올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성전에 가득히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누구도 성전에서 의식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왕상 8:10]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왕상 8: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출애굽기 25장 =====

[출 25: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 25: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출 25:3]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출 25:4]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과 염소털과

[출 25:5]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출 25:6]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출 25:7]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는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으며 오직 즐

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만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물의 내용물을 보면 모두 성막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이처럼 모든 예물이 성막과 연관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처소는 바로 믿는 성도 그 자신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전입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마땅히 성도가 내는 헌금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헌금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헌금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데 헌금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인 교회건물을 짓는데 많은 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너무 많은 헌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생활이 배고픈 성도와 너무나 다른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사람들의 생활을 기본적인 삶의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수준으로 제한시키신 것은 오늘날 부유한 목회자들이 돌아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결코 성경은 목회자의 삶이 임금같은 부유한 삶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헌금이 별 필요없는 모임이나 여행이나 교육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참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예배를 살리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건물이 예배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 가장 먼저 온 심령을 다해 예배하도록 모든 헌금이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각 사람을 돌아보아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도 헌금이 사용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을 돌아보아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가난한 자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각 성도로 하여금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는데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눅 4: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출 25:8]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출 25:9]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대로" 성막을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 만들 성막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세의 만든 성막이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본 따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진 성막대로 이 땅에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출 25:10]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 고가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출 25:11]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출 25:12]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출 25:13]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출 25:14]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꺾어서 궤를 메게 하며

[출 25:15] 채를 궤의 고리에 꿰 대로 두고 빼어 내지 말지며

[출 25:16]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언약궤가 가장 먼저 언급되었던 것은

언약궤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궤의 크기는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 고가 일 규빗 반"이었습니다. 한 규빗이 대략 50cm이기 때문에 언약궤의 크기는 1.25미터 x 0.75미터 x 0.75미터 였습니다. 이 정도의 크기는 사과 상자보다 약간 큰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매우 흔한 나무이며 볼품도 없고 별로 사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나무입니다. 나무에 가시가 많아서 사용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매우 딱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언약궤에 가장 불필요한 나무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죄많은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볼품도 없고 늘 가시많은 존재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기 십상이고 심령이 굳어 있어 딱딱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성품이 없어 늘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더러운 인간을 고귀한 성전으로 삼으셨듯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언약궤를 정금으로 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윗가를 금테로 두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의 손으로 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채를 만들어 사람으로 들고 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언약궤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언약궤 속에 "증거판"을 두게 했습니다.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 주신 율법과 계명이 담긴 돌판이었습니다. 하나의 성전의 핵심이 되는 언약궤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 행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출 25:17]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출 25:18]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출 25:19]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출 25:20]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
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
죄소를 향하게 하고

[출 25:21]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과 광이 언약궤의 크기
와 같습니다. 속죄소의 크
기는 이 규빗 반과 일 규빗
반입니다. 언약궤는 장(길

이)과 광(폭)과 고(높이)가 있는 반면에 속죄소
는 장과 광 밖에는 없습니다. 언약궤 위에 놓여
지는 뚜껑 역할이다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속죄소는 정금을 두들겨 패서 하나로 만들어졌
습니다. 속죄소 위에는 두 개의 그룹이 속죄소
양 끝에 놓여져 있는데 두 그룹과 속죄소가 모두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그룹은 날
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으며 서로 열

굴을 마주 하면서 속죄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이 이처럼 서로 마주보며 있는 것은 그 만큼 속죄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이 들어 있습니다. 증거판은 하나님의 주신 계명과 율법이 적혀져 있는 돌판입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만나 향아리는 언약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출 25:2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모세는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곳에서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출 33:11]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

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한 곳은 성막이 아닌 회막이었습니다. 이 회막은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배처소였습니다. 비록 이곳에는 지성소나 속죄소나 언약궤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세는 바로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를 나눴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과 미리암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민 12:8]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 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모세는 회막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을 뿐 아니라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는 지성소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 직접적인 대

화를 나눴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하나님과의 대화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얼마나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 12:6]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민 12:7]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속죄소의 은혜

지성소에는 오직 언약궤만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아래 구절 때문에 금향로와 언약궤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언약궤만이 놓여져 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싹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히 9:4)

히브리서 기자가 지성소에 금향로와 언약궤가 함께있다고 설명한 것은 이 땅의 지성소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의 성막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히 8:5)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는 그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일년에 하루동안 들어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향로는 지성소 휘장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성막에는 금향로가 언약궤와 함께 있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와 함께 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과 만나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지상에서 바라 봤을 때의 의미와 천국에서 바라봤을 때의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언약궤 속의 성물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돌판은 말씀이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부활이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 만나 항아리는 생명이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바라본 언약궤의 성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판은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모든 말씀을 상징하며 그것은 곧 언약을 뜻합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없는 것을 있게 하며 죽음을 생명으로 만드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 만나 항아리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상징합니다. 언약과 믿음, 그리고 사랑은 천국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이 세 가지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의 구조를 생각해 볼 때 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언약궤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가로 2규빗 반과 세로 1규빗 반 높이 1규빗 반으로 만들어진 박스입니다. 한 규빗을 45cm로 계산했을 때 언약궤의 크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 고가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출 25:10)

사람이 직접 그 궤를 들고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짐승을 통해서 이동해서도 안됩니다. 사람이 함부로 만지면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삼하 6:6-7)

웃사는 레위지파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언약궤를 만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약궤에 사람의 손이 닿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궤어서 궤를 매게 하며”(출 25:14)

언약궤는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궤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출 40:20)

언약궤 그 자체가 하나이고 언약궤를 덮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들을 수 있는 양쪽 막대기가 그 하나입니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은 속죄소입니다. 이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매우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속죄소에서는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대제사장을 위해 피를 뿌렸으며 백성의 죄를 위해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는 두 그룹이 날개를 치켜 세운 형상으로 지성소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출 25:20)

속죄소의 그룹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언약궤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놓여져 있는 두껍습니다. 그 속죄소는 언약궤의 크기와 똑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2.5규빗이고 세로가 1.5규빗입니다. 그리고 약간 높이가 올라가 있어서 그곳에 피를 뿌려도 피가 흘러 내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속죄소 양 끝에 두 그룹이 놓여져 있는데 날개를 최대한 활짝 편 상태에서 고개는 속죄소를 향하고 있어 마치 속죄소를 경배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에다가 금을 씌워 만들었는데 속죄소는 100%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룹은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붙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조각목으로 만들어 졌다는 사실은 사뭇 놀라움이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가장 흔하고 천한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죄인이 이곳에서 만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신 하나님께

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천한 자를 만나 주시는 장소가 바로 언약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금은 불순물이 1%도 없는 금을 말합니다. 1%의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정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1%도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언약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곳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한번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잘 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죄소와 언약궤 사이를 지키고 있는 그룹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 쫓았을 때 에덴동산에 무엇을 두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화염검과 그룹이었습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을 보호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섭습니다. 악한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사입니다.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죄인에게 두려운 천사입니다. 에덴동산은 곧 천국을 의미했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룹을 통해 천국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언약궤에 들어가면 실제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천국의 세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 25:23]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이 규빗, 광이 일 규빗, 고가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출 25:24]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출 25:25]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출 25:26]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네 발위 네 모퉁이에 달되

[출 25:27] 턱 곁에 달라 이는 상 밑 채를 꿰 곳이며

[출 25:28]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꿰 것이니라

하나님은 진설병을 만들라고 명하시면서 구체적인 크기와 기구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설

병의 크기는 장(길이)이 이 규빗이고 광(폭)이 일 규빗이며 고(높이)가 일규빗 반이었습니다. 약간 길다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설병은 역시 언약궤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 가장 하찮은 나무입니다.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로써 매우 딱딱하고 가시가 많은 나무입니다. 이러한 조각목은 매우 딱딱하고 가시가 많은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목이 곧은 백성이며 인생의 환란과 역경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조각목 인생에 정금으로 싸서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조각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진설병 역시 매우 고귀한 성물이기때문에 함부로 만져서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궤를 매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므로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으며 언약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

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보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출 25:29]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출 25:30]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진설병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진설병이 놓여진 상에는 다른 기구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잔입니다. 이것들은 하나씩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여러개 필요했던 것입니다.

“[민 4:7]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민 4:8]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대접은 떡을 담을 때 사용되었으며 숟가락은 분향을 위해 필요한 기구였습니다. 주발은 병처럼 생긴 것으로 유황을 담아 놓는 기구였고 붓는 잔은 포도주를 담을 때 쓰였던 기구입니다.

진설병의 은혜

성소에 들어 서면 오른쪽으로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떡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떡을 말합니다. 이 진설병은 모두 12개로서 안식일 전날에 만들어져 안식일 아침에 진설해 놓습니다. 두 줄로 진설하는데 한쪽에 여섯개의 떡을 놓습니다.

“[레 24:8] 항상 매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찌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진설병의 의미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요 6:48)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만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 만나를 먹

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임을 믿어야 합니다. 성소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의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떡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진설병은 성소 내의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반대편 남쪽에는 정금등대가 놓여졌고 서쪽에는 분향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진설병의 크기는 장(길이)이 이 규빗이고 광(폭)이 일 규빗이며 고(높이)가 일 규빗 반이었습니다.

“[출 37:10]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이 규빗, 광이 일 규빗, 고가 일 규빗 반이며” 또한 정금으로 싸서 윗가로 돌아가면 금테를 둘렀습니다. “[출 37:11] 정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출 37:12]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진설병에는 여러가지 기구들이 함께 놓여졌는데 대접들과 숟가락들, 그리고 병들과 붓는 잔들이 함께 놓여졌습니다. 대접들은 떡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숟가락은 분향을 위해 사용

되는 작은 숟가락과 같은 기구를 말합니다. RSV 성경은 숟가락을 "분향을 위한 접시(dishes for incense)"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9절에는 '병'이라 표현되었고 민수기 4장 7절에는 '주발'이라고 언급된 기구는 목이 길다란 병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황을 담아 놓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설병과 함께 놓여진 '잔'은 전제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되는 포도주를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

"[민 4:7]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민 4:8]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을 운반할 때에는 진설병에 이러한 기구들을 함께 쌓아서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은 후에 진설병에 만들어진 고리에 채를 꿰어 운반하였습니다.

"[출 37:13]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출 37:14]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메

는 채를 꺾게 하였으며”

[출 25:31]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출 25:32]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출 25:33] 이편 가지에 살구 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같게 할지며

[출 25:34]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출 25:35]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출 25:36]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출 25:37]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출 25:38] 그 불집게와 불뚱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출 25:39]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금등대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정금등대는 모두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달란트로 만들었는데 한 달란트는 대략 34kg 정도되는 양입니다. 정금등대는 정금으로 쳐서 모두 하나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정금등대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정금등대의 빛은 주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빛되신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완전해집니다. 정금등대의 일곱개의 등대는 완전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가운데의 등대는 주님을 상징하며 양 옆으로 만들어진 6개의 등대는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며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이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완전해집니다.

정금등대는 살구꽃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살구꽃을 알몬드(almond)로 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살구꽃 모양의 형태는 부활, 희망, 보호를 상징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정금등대의 영적의미

정금등대는 성소 안을 밝히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성소에는 빛을 낼 수 있는 기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정금등대만이 빛을 내었습니다. 정금등대의 빛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의식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금등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켜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출 27:20]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짙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출 27:21] 아론과 그 아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 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정금등대의 빛은 주님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 1:5]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은 어두움에 속한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구해 주셨습니다.

“[벤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금등대의 빛은 주님을 상징하지만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정금등대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렇듯 정금등대에서 성령님의 인도따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성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과 우리 심령 안에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성전에는 번제단과 물두멍도 있으며 성소와 지성소도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오직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전은 없습니다. 오직 영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전 2:9]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정금등대는 밀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밀판(base)'은 넓은 판으로써 등대를 똑바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줄기(shaft)'는 양 옆에 세개의 가지들을

붙들고 있는 한가운데 위치한 줄기입니다. '잔 (bowl)'은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진 장식품입니다. 이것은 등불을 켜는데 사용되는 등잔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잔은 모두 22개로 만들어져 있는데 왼쪽 세 줄기마다 각각 세개씩 있어서 $9+9 = 18$ 개이며 중앙 가지에 4개가 더해져서 모두 22개로 이뤄져 있습니다. '꽃받침'(knob)'은 꽃잔을 받쳐주는 밑줄기로서 모두 22개였습니다. 또한 '꽃'(blossom)'은 각 잔에 붙어 있는 꽃잎 모양의 장식품이었습니다.

정금등대는 양쪽으로 각각 세 가지로 뻗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세 가지는 완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한 가운데 줄기를 통해 완전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한 수를 7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6은 인간의 숫자이고 불완전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완전해집니다.

모든 가지는 살구꽃 형상을 띄고 있는데 우리에게 알려진 살구꽃이 아니라 '알몬드(almond)'입니다. 영어 성경은 살구꽃을 알몬드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살구꽃은 히브리인들에게 부활과 희망 또는 보호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이러한 등대모양은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국장(國章)이 되었습니다.

정금등대의 등잔은 모두 일곱개입니다. 정금등대의 불은 모두 잎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앞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빛 되신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때문에 정금등대는 성령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빈다. 정금등대에는 '불집게'와 '불똥그릇'이 함께 있습니다. '불집게'는 등잔의 타버린 심지를 자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불똥그릇'은 등대에서 타서 떨어진 심지를 모우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구는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진설병의 부속기구들(대접, 숟가락, 주발, 잔)이 모두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정금등대의 부속기구들 또한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금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모두 '정결'과 '거룩'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정금등대와 정금등대에 딸린 부속기구들을 만드는데 사용된 금은 '한 달란트'였습니다.

“[출 25:39]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한 달란트(talent)는 약 34kg에 해당됩니다.

[출 25:40]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을 때 모세가 만들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 25:8]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출 25:9]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찌니라”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성막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지시하신 이유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 43:7]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

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들어질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찌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어야 할 성막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성막’에서의 예배를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미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는 천국의 것들은 모두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은사도 부분적인 것이며 우리의 가진 행복이나 기쁨 또한 모두 부분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드러지는 예배 또한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천국에 가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얼마나 부분적인 것이었는지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고전 13:12]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삼가 모든 것을 산에게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본을 좇아’라는 말은 샘플대로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본’이란 헬라어 단어인 <τύπος>는 ‘본’

형상' '모형'이라는 뜻인데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식양'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찌니라"는 표현에서 '식양'이라는 히브리어 <타브니트>라는 단어는 '형상' '구조' '모형'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는 단순히 설명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떠한 모형을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의 샘플은 바로 하늘에 있는 '장막'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장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성막'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천국의 장막에는 '스케네'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고, 구약시대의 성막에는 '미쉬칸'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 모두 같은 뜻입니다.

사도요한은 하늘의 증거 장막인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 15:5]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또한 그는 계속해서 하늘의 성전 안에 놓여져 있는 언약궤도 보았습니다.

“[계 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다음의 두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바울이 기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의 언급한 성경구절과 사도요한의 기록한 성경구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모두 천국의 장막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사도요한은 '장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기록을 보십시오.

“[고후 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

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의 기록은 사도요한의 다음 기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은 바로 하늘에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든지 아니면 '장막'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든지간에 '성막'과 같은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

[출 26:1]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장 열 폭을 가늘게 곧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 놓아 만들지니

[출 26:2] 매 폭의 장은 이십팔 규빗 광은 사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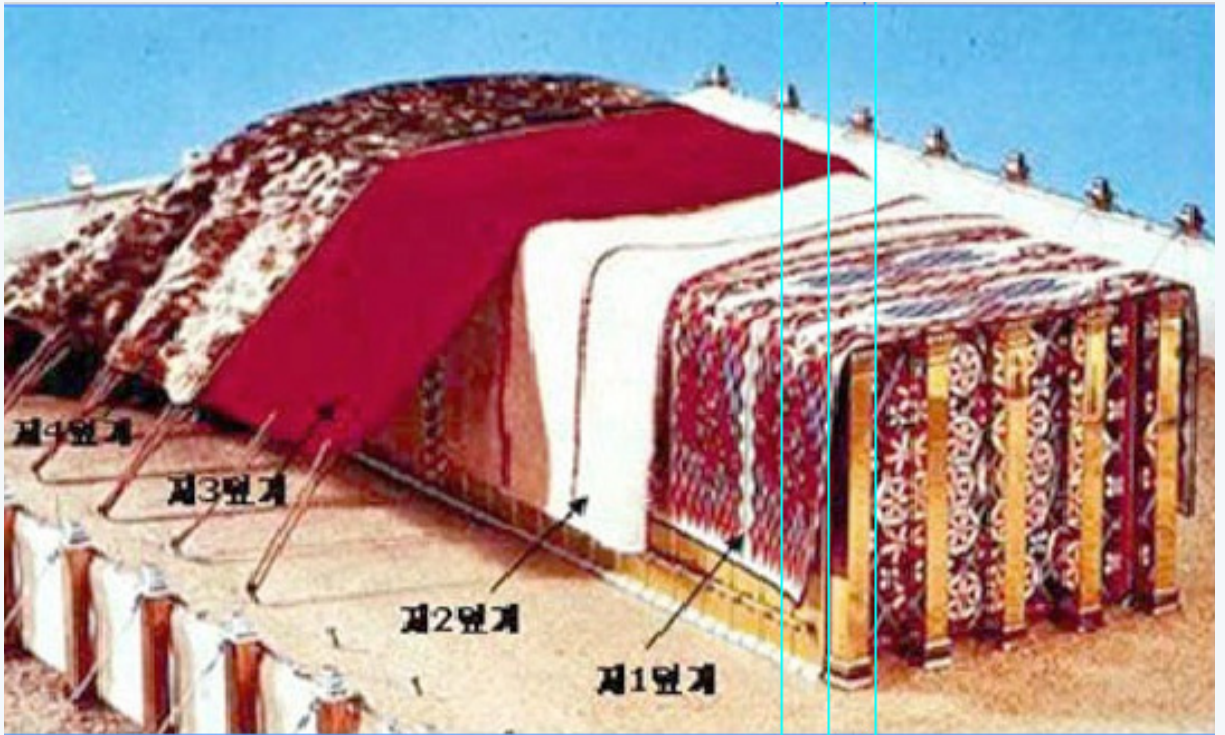
[출 26:3] 그 양장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하고

[출 26:4] 그 양장의 연락할 말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출 26:5] 양장 말폭 가에 고 오십을 달며 다른 양장 말폭 가에도 고 오십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출 26:6] 금 갈고리 오십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양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를 덮을 덮개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막'은 '성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덮개는 천으로 짠 양장입니다. 사용된 실 색깔을 보면 성막문에 쓰



인 것과 같습니다. 성막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청색은 생명되신 예수님을,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흰색(베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두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짠 것입니다. 염소는 희생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양이나 소에 비해 값어치가 떨어진 제물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 의식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두마리의 염소와 한 양과 한 소를 준비합니다. 그 중의 한 마리 염소는 살려 둡니다. 모든 제물짐승이 죽임을 당하여 의식을 치른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광야로 보내었습니다. 성경은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낸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

하고 있습니다.

“[레 16:21]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찌니”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지고가신 염소와도 같으셨습니다. 염소털로 덮개를 만들었던 것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덮개는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양 역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양은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요 1:35]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 1:36]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번째 덮개는 해달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해달가죽은 바다표범 종류의 바다짐승 가죽입니다. 맨위의 덮개를 이처럼 해달가죽으로 했던 것

은 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해달가죽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방수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주님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악한 세력이 저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첫번째 양장의 크기는 장(길이)이 28 규빗이고 광(폭)이 4 규빗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섯 폭씩 두개를 만들었습니다. 다섯폭의 길이는 28규빗 x 20 규빗입니다. 한 규빗을 50cm 로 계산했을 때 대략 15미터 x 10 미터 정도입니다. 이것이 두 개로 나뉘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크기는 길이가 15미터이고 폭은 20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크기는 성소의 크기보다 긴 것입니다. 성소의 크기는 길이 20규빗 x 폭 10 규빗입니다. 이는 길이가 10미터와 폭 5미터 크기입니다. 덮개가 이렇듯 성소보다 긴 이유는 온전히 성소를 덮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 26:7]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양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출 26:8] 각 폭의 장은 삼십 규빗, 광은 사 규빗

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출 26:9] 그 양장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출 26:10] 양장을 연락할 말폭 가에 고 오십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 가에도 고 오십을 달고

[출 26:11] 낫 갈고리 오십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출 26:12] 그 막 곧 양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드리우고

[출 26:13] 막 곧 양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드리우고

[출 26:14]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두번째 덮개인 염소털로 짠 덮개는 첫번째 양장으로 만들어진 덮개보다 약간 그 길이와 폭이 길게 제작되었습니다. 첫번째 양장 덮개는 28규빗이었는데 두번째 염소털덮개는 30규빗입니다. 또한 폭은 한쪽의 것이 6개의 양장을 연결시켰

습니다. 결국 11개의 양장이 된 것입니다.

“[출 36:14]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양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십 일폭을 만들었으니 [출 36:15] 각 폭의 장은 삼십 규빗, 광은 사규빗으로 십 일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두번째 덮개가 첫번째 덮개보다 2규빗 더 큰 이유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막 곧 양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드리우고”

세번째 수양가죽 덮개와 네번째 해달가죽 덮개의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염소털덮개의 크기와 같거나 조금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길이가 작을 경우엔 다른 덮개가 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맨 위 덮개가 다른 덮개보다 같거나 더 크게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 26:15]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출 26:16] 각 판의 장은 십 규빗, 광은 일 규빗 반으로 하고

[출 26:17] 각 판에 두 측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 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출 26:18]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스물을 만들고

[출 26:19]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마흔을 만들 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측을 위하여 두 받 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측을 위하 여 두 받침을 만들찌라

[출 26:20]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스물로 하고

[출 26:21] 은받침 마흔을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출 26:22]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을 만들고

[출 26:23]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 판 둘을 만들되

[출 26:24]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 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출 26:25]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열여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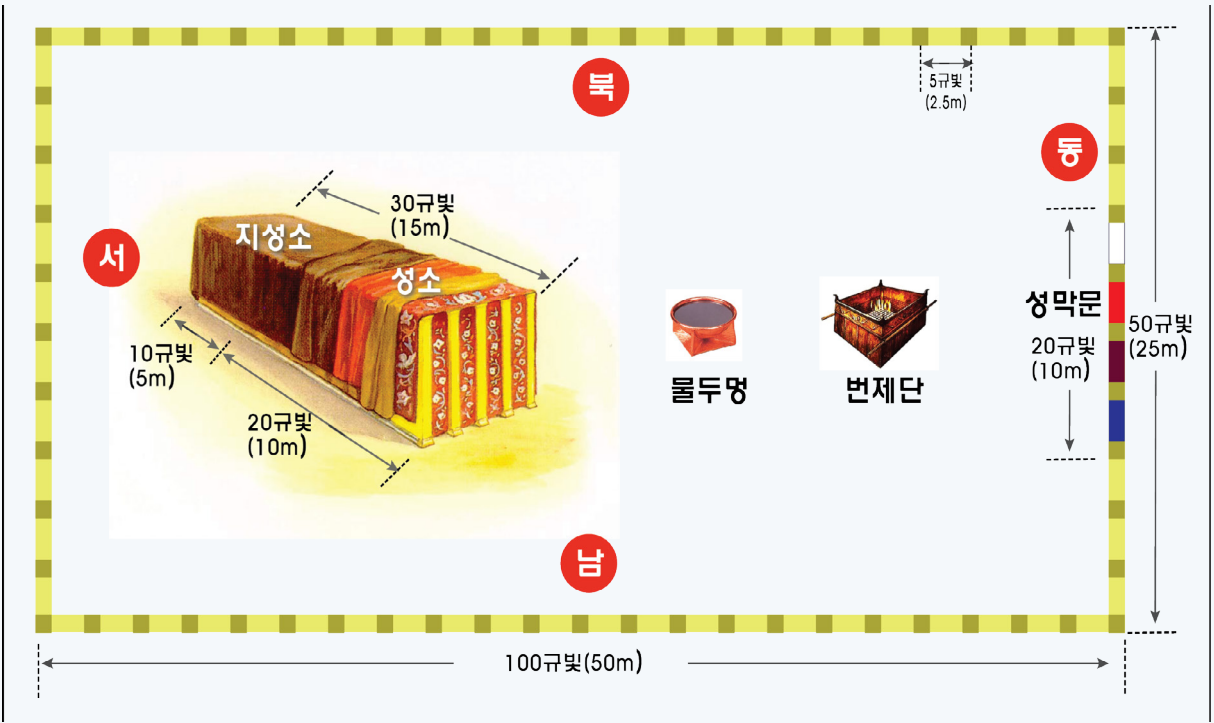
니 이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출 26:26]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이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출 26:27]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성막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출 26:28]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출 26:29]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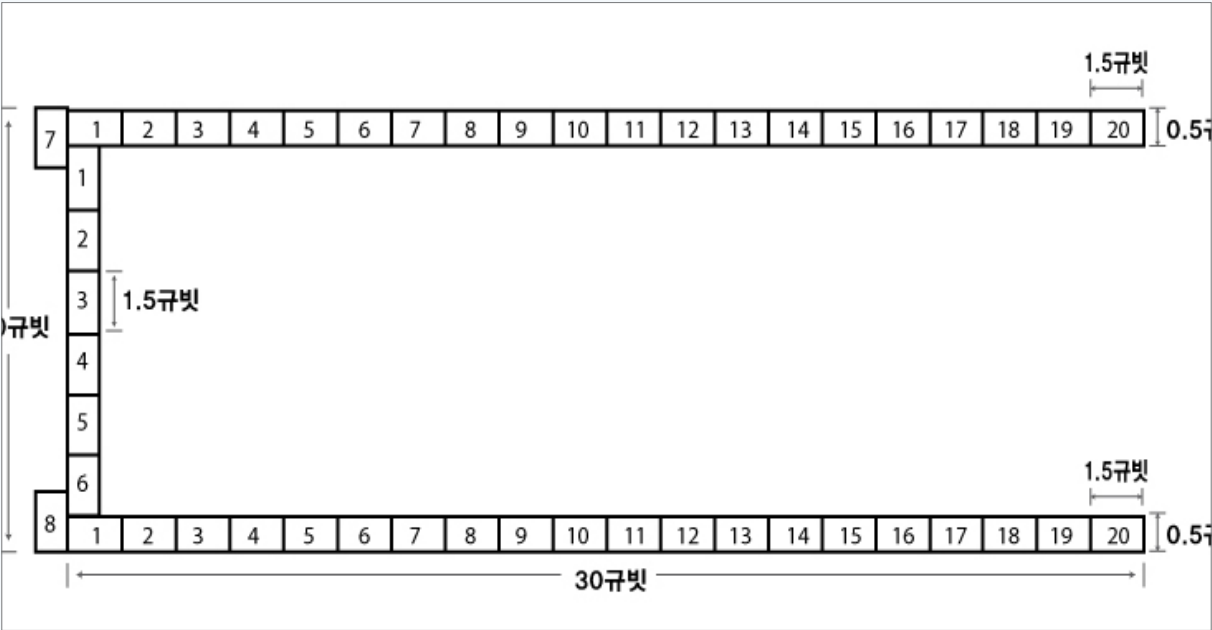
회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본문에는 회막을 '성막'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

막과 회막과 지성소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뜻하는 바를 본문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회막을 둘러 싸고 있는 벽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막의 전체 크기는 북쪽과 남쪽 길이가 100규빗이고 동쪽과 서쪽의 길이가 50규빗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널판은 성막 전체를 의미하기 보다는 회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막의 크기는 전체 30규빗(15미터)이었습니다. 그 중의 20 규빗(10미터)은 성소의 길이이고 나머지 10규빗(5미터)는 지성소 길이였습니다. 벽으로 세워진 널판 하나의 폭이 1.5규빗이고 이것이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씩 만들어졌기 때문에 $1.5\text{규빗} \times 20 = 30\text{ 규빗}$ 이 되어서 결국 회막의 길이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성소가 놓여져 있는 서쪽에는 6개의 널판이 세워져 있어서 성소의 폭의 길이는 9규빗(4.5미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회막의 서쪽의 넓이가 10규빗이 이니까 부족한 1규빗의 길이는 양쪽(동쪽과 남편)에 세운 기둥의 넓이로 채워져 정확하게 회막의 서쪽과 북쪽의 길이는 10규빗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그림으로 도식화했을 때 아래 그림 모양처럼 회막의 널판지가 세워졌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널판 밑에는 은받침이 놓여져 있어서 널판을 강하게 지탱하고 있었으며 각 널판을 끈으로 연결하였기 때문에 성소를 아주 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출 26:30]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을 때 모세가 만들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 25:8]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출 25:9]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찌니라”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성막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지시하신 이유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 43:7]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들어질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찌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어야 할 성막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

섰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성막’에서의 예배를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미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는 천국의 것들은 모두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은사도 부분적인 것이며 우리의 가진 행복이나 기쁨 또한 모두 부분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드러지는 예배

또한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천국에 가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얼마나 부분적인 것이었는지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고전 13:12]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삼가 모든 것을 산에게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본을 좇아’라는 말은 샘플대로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본’이란 헬라어 단어인 <튀포스>는 ‘본’ ‘형상’ ‘모형’이라는 뜻인데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식양’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찌니라”는 표현에서 ‘식양’이라는 히브리어 <타브니트>라는 단어는 ‘형상’ ‘구조’ ‘모형’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는 단순히 설

명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떠한 모형을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의 샘플은 바로 하늘에 있는 '장막'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장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성막'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천국의 장막에는 '스케네'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고, 구약시대의 성막에는 '미쉬간'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 모두 같은 뜻입니다.

사도요한은 하늘의 증거 장막인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 15:5]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또한 그는 계속해서 하늘의 성전 안에 놓여져 있는 언약궤도 보았습니다.

“[계 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다음의 두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바울이 기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의 언급한 성경구절과 사도요한의 기록한 성경구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모두 천국의 장막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사도요한은 '장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기록을 보십시오.

”[고후 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의 기록은 사도요한의 다음 기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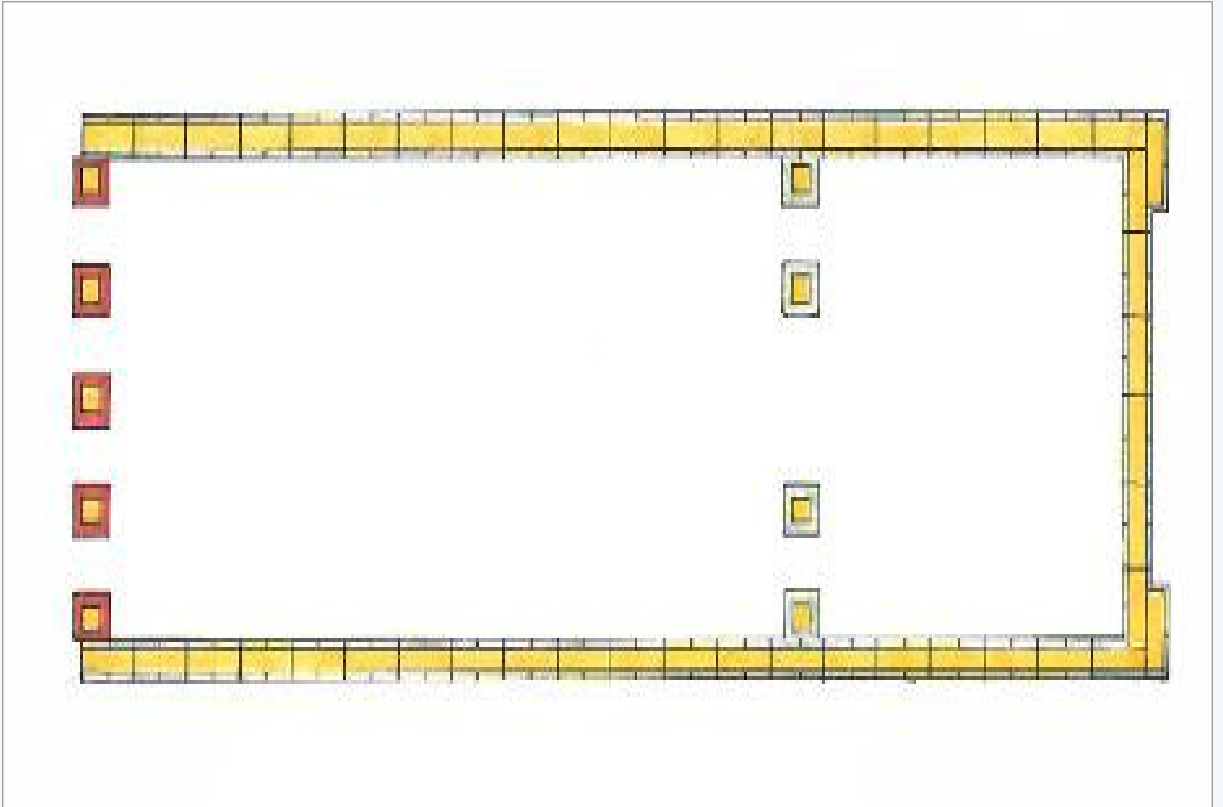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은 바로 하늘에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든지 아니면 '장막'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든지간에 '성막'과 같은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31] 너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 놓아서

[출 26:32]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드리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들지며

[출 26:33]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드리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안에 들어 놓으라 그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것을 마련토록 하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네 개의 기둥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둥들 윗쪽에 고리를 만들어 휘장을 걸치도록 했습니다.



[출 26:34]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지성소 안에는 오직 증거궤와 속죄소 밖에는 없습니다. '증거궤'는 언약궤를 말합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성소에는 언약궤 밖에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

다.

[출 26:35]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회막의 북쪽에는 진설병을 놓을 상을 마련해 놓고 반대편 남쪽에는 정금등대를 놓으라는 말입니다. 회막으로 들어가서 보게 될 때 오른쪽은 진설병이 마련되어 있고 왼쪽에는 정금등대가 놓여져 있으며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출 26:36]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 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출 26:37]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 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찌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을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하나님은 회막에도 휘장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다. 이것은 성막뜰에서 회막으로 들어갈 때 거쳐야 하는 휘장이었습니다. 회막을 지탱하도록 만들어 놓은 성소의 벽의 널판 높이가 10규빗이었으므로 성소의 높이는 10규빗인 것입니다.

“[출 26:15]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출 26:16] 각 판의 장은 십 규빗, 광은 일 규빗 반으로 하고”

또한 넓이는 10규빗입니다. 회막의 서쪽에 1.5규빗자리 널판이 6개 세워졌으니 이 길이는 9규빗입니다. 나머지 1규빗은 양쪽(동쪽과 남편)에 세운 기둥의 넓이로 채워져 정확하게 회막의 서쪽과 북쪽의 길이는 10규빗이 되는 것입니다.

회막의 휘장은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막문을 통과하는 일반 회중과는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회중은 오직 성막뜰에만 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막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볼 때, 성막뜰은 일반 회중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볼 때, 성막뜰은 일반 회중이 들어

가는 곳이며 성소는 예배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은받침으로 되어 있지만 성소 휘장은 놋받침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을 놋으로 부어 만들찌니라”(37절). 지성소 휘장을 지탱하는 기둥은 네 개인 반면에 성소 휘장을 지탱하는 기둥은 다섯 개였습니다.

성막의 세 개의 문

성막에는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세 개의 문은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문(성막문)

첫번째 문은 성막입구입니다. 성막문은 높이가 5규빗이고 넓이는 무려 20규빗이나 되는 거대한 통문입니다. 한 규빗을 대략적으로 50cm로 환산한다면 높이 2.5미터에 넓이가 10미터나 되는 거대한 문입니다.

성막문이 이처럼 크게 만들어진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도 않으며 못 배운 사람을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어린 아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도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막문에 턱이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좁은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십니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갈 4:6]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기때문에 성막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문은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흰색(베실)로 짜여진 양장으로 만들어진 문입니다. 네가지 천 색깔은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청색은 생명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홍색은 고난당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흰색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두번째 문(회막문)

두번째 문은 회막 휘장입니다. 회막 휘장은 높이

10규빗(5미터)이고 넓이는 10규빗(5미터)입니다. 회막을 지탱하도록 만들어 놓은 회막의 벽의 널판 높이가 10규빗이었으므로 회막의 높이는 10규빗인 것입니다.

“[출 26:15]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출 26:16] 각 판의 장은 십 규빗, 광은 일 규빗 반으로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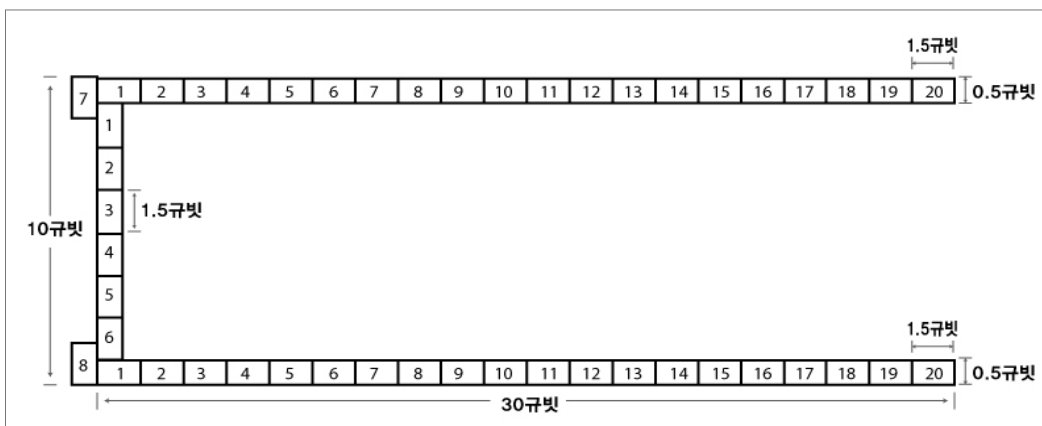
또한 넓이는 10규빗입니다. 회막의 서쪽에 1.5 규빗짜리 널판이 6개 세워졌으니 이 길이는 9규빗입니다. 나머지 1규빗은 양쪽(동쪽과 남편)에 세운 기둥의 넓이로 채워져 정확하게 회막의 서쪽과 북쪽의 길이는 10규빗이 되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막문을 통과하는 일반 회중과는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회중은 오직 성막뜰에만 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볼 때, 성막뜰은 일반 회중이 들어가는 곳이며 성소는 예배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세번째 문(지성소문)

세번째 문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걸쳐있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높이 10규빗(5미터)이고 넓이는 9규빗(4.5미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쪽(북쪽)에 세워져 있는 널판의 넓이가 총 9규빗이기 때문입니다.

“[출 26:22]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을 만들고 [출 26:23]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출 26:24]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출 26:25]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열여섯이니 이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성소 입구인 성소휘장과는 달리 지성소 휘장은

그룹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출 26:31] 너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 놓아서”

하지만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단순히 청색, 자색, 홍색, 흰색(베실)으로 짠 양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성소 휘장에 그룹이 새겨진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저들이 생명나무를 취할까 염려하여 그룹을 두어 에덴동산을 지키게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처럼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7월 10일 속죄일 하루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시면서 성전의 휘장을 둘로 찢으셨습니다.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지성소의 휘장을 둘로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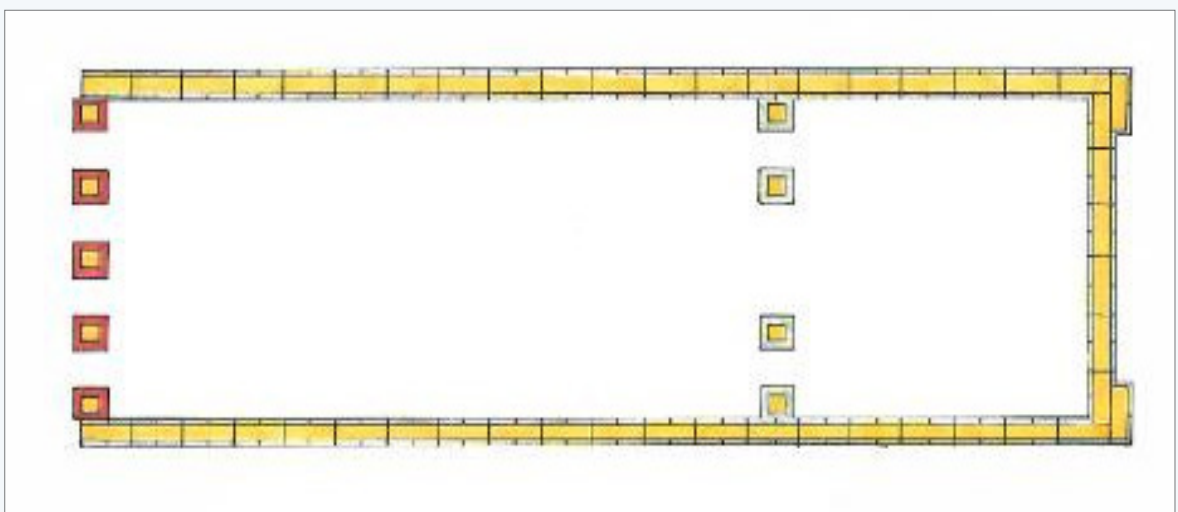
이처럼 주님께서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경배자만을 받아 드리십니다. 만일 참경배자가 아닌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여전히 그룹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제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속죄소의 그룹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는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 26:31] 너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 놓아서

[출 26:32]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드리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돌지며

[출 26:33]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드리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안에 들여 놓으라 그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것을 마련토록 하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네 개의 기둥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둥들 윗쪽에 고리를 만들어 휘장을 걸치도록 했습니다.

[출 26:34]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지성소 안에는 오직 증거궤와 속죄소 밖에는 없습니다. '증거궤'는 언약궤를 말합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성소에는 언약궤 밖에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 26:35]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회막의 북쪽에는 진설병을 놓을 상을 마련해 놓고 반대편 남쪽에는 정금등대를 놓으라는 말입니다. 회막으로 들어가서 보게 될 때 오른쪽은 진설병이 마련되어 있고 왼쪽에는 정금등대가

놓여져 있으며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출 26:36]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
로 수 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출 26:37]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
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찌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을 놋으
로 부어 만들지니라

하나님은 회막에도 휘장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막뜰에서 회막으로 들어갈 때 거쳐야 하는 휘장이었습니다. 회막을 지탱하도록 만들어 놓은 성소의 벽의 널판 높이가 10규빗이었으므로 성소의 높이는 10규빗인 것입니다.

”[출 26:15]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출 26:16] 각 판의
장은 십 규빗, 광은 일 규빗 반으로 하고”

또한 넓이는 10규빗입니다. 회막의 서쪽에 1.5규

빗짜리 널판이 6개 세워졌으니 이 길이는 9규빗입니다. 나머지 1규빗은 양쪽(동쪽과 남편)에 세운 기둥의 넓이로 채워져 정확하게 회막의 서쪽과 북쪽의 길이는 10규빗이 되는 것입니다.

회막의 휘장은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막문을 통과하는 일반 회중과는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회중은 오직 성막뜰에만 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막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볼 때, 성막뜰은 일반 회중이 들어가는 곳이며 회막은 예배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은받침으로 되어 있지만 회막 휘장은 놋받침으로 되어있습니다. "...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을 놋으로 부어 만들찌니라"(37절). 지성소 휘장을 지탱하는 기둥은 네 개인 반면에 회막 휘장을 지탱하는 기둥은 다섯 개였습니다.

출애굽기 27장 =====

[출 27:1]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오 규빗, 광이 오 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하며 고는 삼규빗으로 하고

[출 27:2]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싸지며

하나님은 성막 뜰에 번제단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번제단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각 모퉁이마다 뿔이 있었으며 놋으로 싸여졌습니다. 번제단에는 희생제물이 불로 태워졌습니다.

[출 27:3]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출 27:4] 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출 27:5]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출 27:6]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낫으로 쌀지며

[출 27:7]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메게 할지며

[출 27:8]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번제단에는 여러가지 부속기구가 함께 준비되었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이 번제단과 함께 있습니다. '재를 담는 통'은 번제단에 떨어진 재를 긁어모아 담는 통을 말합니다. '부삽'은 번제단의 떨어진 재를 긁어모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대야'는 짐승을 잡아 각을 떼서 그것을 번제단으로 옮길 때 사용되었습니다. '고기 갈고리'는 대야로 운반해 온 고기를 번제단 위로 들어 올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번제단 절반쯤에 낫으로 된 그물을 달았습니다. 또한 번제단은 운반할 수 있도록 네 기둥에 고리를 만들어 채를 꿰 수 있게 했습니다.

번제단의 영적의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번제단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번제단은 성막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가장 처음 나타나는 성물입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장(길이)이 오 규빗(2.5미터), 장(폭)이 오 규빗(2.5미터)이며, 고(높이)가 삼 규빗(1.5미터)입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음.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은 죄인인 인간을 상징합니다. 조각목은 가시가 많은 나무입니다. 교회에는 불평이 많은 성도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조각목은 단단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조각목은 삐걱 말라 있습니다. 이 역시 바쁜 생활로 인해 심신의 여유가 없고 기쁨과 만족이 없는 성도를 뜻하합니다. 조각목의 가시때문에 서로 부딪히다 보면 상처가 많습니다. 교회내의 성도끼리 서로 싸우면서 상처가 많습니다.

번제단은 놋으로 싸여졌음.

번제단은 놋으로 싸여져 있습니다.

“[출 38:2]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놋으
로 싹찌며”

놋은 모세가 광야에서 치켜들었던 놋뱀을 상징
합니다.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았습니다.

“[민 2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 21:9] 모세가 놋뱀
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
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러한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
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번제단에 쓰이는 짐승에게 안수가 행해졌음

번제단에 쓰이는 짐승에게는 반드시 안수가 행
해졌습니다.

“[레 1:4]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찌니

그리하면 열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물로 바치고자 짐승을 가지고 나온 당사자가 직접 그 짐승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죄가 사해지고 당사자의 헌신이 직접적으로 요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안수를 행함으로써 당사자의 죄가 짐승에게 전이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완전히 죽어야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제물이 완전히 죽지 않은 채 제사를 드리게 될 경우엔 성막이 더럽혀지며 성전의식을 방해하게 됩니다.

번제단의 뿔은 속죄와 구원을 상징함.

번제단에는 네 개의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의 뿔은 속죄를 상징합니다. 속죄를 위한 피가 번제단에 뿌려졌듯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는 속죄함을 얻게 됩니다. 또한 번제단의 뿔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누구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왕상 1:50]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왕상 1:51]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또한 번제단의 뿔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제물은 번제단에 묶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영혼육이 완전히 주님께 묶여 있듯이 친밀하게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번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쓰임.

번제단에 쓰인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불을 사용했습니다.

“[레 9:23]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레 9:24]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며 엎드렸더라”

번제단에는 인간의 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레 6:12]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찌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를찌며 [레 6:13]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찌니라” 하나님의 불은 성령의 불을 뜻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불로 타 올라야 합니다. 인간의 불은 인간의 생각, 능력, 의지, 노력,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레 10: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레 10: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번제단에는 그물이 쳐져 있음.

번제단의 길이 반 정도에 낮으로 만든 그물이

사면 기둥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 그물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에서 주님께 헌신을 약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번제단에는 네 개의 고리가 있음.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고리는 번제단을 이동할 때 유익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고리는 번제단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고리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에는 고기 대야가 있음.

번제단에 있는 고기 대야는 각이 떠진 고기들을 고기 대야를 통해 번제단으로 운반되어지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각이 떠진 고기를 담아 운반한 것은 전도를 의미합니다. 대야에 고기를 담아 번제단으로 가져다듯이 모든 성도는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데려와야 합니다.

번제단에는 고기 갈고리가 있음.

대야에 담은 고기를 갈고리로 찍어서 번제단 위로 올려 놓았습니다. 갈고리가 없으면 그 무거운 고기를 번제단에 쉽게 올려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갈고리는 교회로 전도된 사람을 믿음의 성도 자리까지 올려 놓게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번제단에는 불 옮기는 그릇이 있음.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우기 위해 불을 옮길 때 사용되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을 교회에 있도록 만드는 성령충만한 성도를 말합니다. 교회에는 성령의 불로 충만한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번제단에는 부삽이 있음.

부삽은 번제단에서 태워진 제물의 재를 긁어 낼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재는 교회부흥에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가 많으면 번제단의 불을 꺼뜨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교회 내에도 이러한 재가 많으면 교회부흥에 지장을 줍니다. 이러한 재를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마다 앞장서서 일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번제단에는 재를 담는 통이 있음.

번제단에는 재를 담는 통이 있습니다.

“[민 19:9]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찌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케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이처럼 재를 담는 통은 교회에 문제가 되는 성도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성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도는 희생적으로 헌신적이며 사랑이 많은 성도입니다. 정결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깨끗해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죄를 짓지만 사람에게도 죄를 짓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이웃과 나 자신에 대한 죄입니다.

회개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르지 않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출 27:9]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찌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백 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출 27:10]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찌며

[출 27:11] 그 북편에도 광이 백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찌며

[출 27:12]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오십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출 27:13]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오십 규빗이 될지며

[출 27:14]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십 오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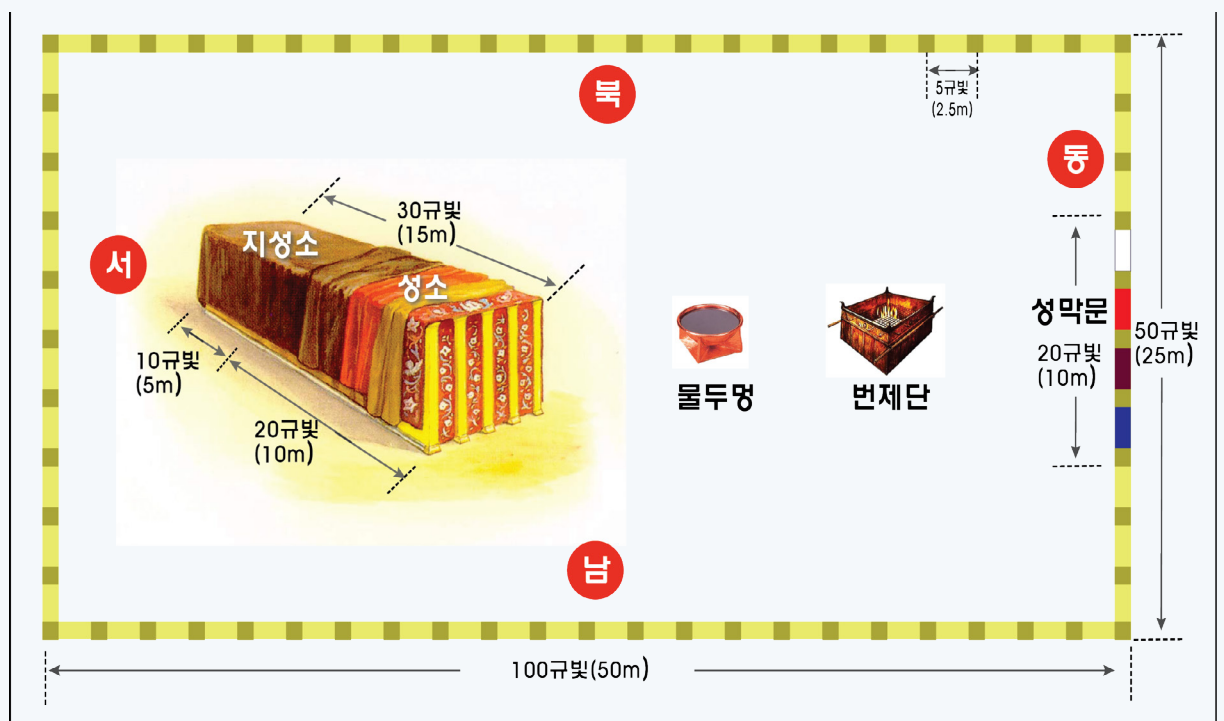
[출 27:15]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십오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출 27:16]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 놓아 짠 이십 규빗의 장이 있게 할찌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출 27:17]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같고 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출 27:18] 뜰의 장은 백 규빗이요 광은 오십 규빗이요 세마포장의 고는 오 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출 27:19]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성막의 크기는 광(길이)이 100규빗이고, 장(폭)

이 50규빗입니다. 한 규빗을 50cm 로 계산한다면 길이 50미터에 폭이 25미터입니다. 성막문은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50미터이고 북쪽과 서쪽은 100미터입니다.

성막문은 20규빗입니다(16절). 무려 10미터나 되는 문이기때문에 매우 크고 넓은 문입니다. 성막은 오규빗(2.5미터)마다 기둥을 세웠습니다. 전체 60개의 기둥이 세워졌는데 동쪽과 서쪽에 각각 10개씩, 북쪽과 남쪽에 각각 20개씩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기둥과 기둥 사이는 5규빗(2.5미터)입니다. 높이도 5규빗이고 기둥간의 간격도 5규빗이기때문에 정사각형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번제단이 5규빗 x 5규빗인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성막기둥을 세마포장으로 둘러싼 것이 성막입니다. 하지만 성막문은 특별히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베실(흰색)로 특별히 천을 짜서 만들었는데 이는 예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청색은 생명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베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출 27:20]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짚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출 27:21]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 귀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
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등불을 항상 켜도록
명하셨습니다. 성막의 등불은 정금등대를 말합
니다. 이 등불은 1년 365일 계속적으로 켜져 있
어야만 했습니다. 성소는 빛을 내는 그 어떠한
도구가 없습니다. 또한 한 낮에도 빛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네 개의 덮개로 덮어
졌기때문에 성소는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
지만 정금등대의 빛으로 인해 성소는 밝게 빛났
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의식을 수행할 수 있
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는 말은 쉬지 말고 등불을 켜라는

의미입니다. 저녁에는 사람이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성막 뒤편에는 그 어떠한 빛을 내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저녁에는 사람들이 성막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녁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만한 특별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녁은 모든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소 안에는 항상 정금등대의 불을 켜두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십니다. 정금등대의 빛은 주님을 상징합니다. 정금등대의 빛이 없으면 성소는 어둠으로 덮히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과 함께 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시 121: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성막의 변천

모세의 성막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천국의 장막을 보여주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장막을 이 땅에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구약의 '성막(미쉬칸)'이라는 단어와 신약에 쓰인 '장막(스케네)'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도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장막'은

모세가 지은 '성막'의 원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후에는 성막이 온전하게 유지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각각 따로 떨어져 살면서 모든 행정도 지파별로 운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성막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지키지 못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거대한 영토를 약속하셨습니다.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차지했을 때에는 더 이상의 땅을 차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노예생활 해 왔던 저들의 문화가 가나안 땅도 거대한 영토로 생각들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영토

를 빼앗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가 잘 지키지 못했던 것은 '성막'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에 단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는 성막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성막을 잘 유지하지 못했으며 성막의 성물들은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예배하도록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졌던 성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갈의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성막은 길갈에 안치되었습니다(수 4:16, 5:10, 9:6). 길갈은 여리고 근처지역입니다. 전쟁때문에 우선 여리고와 가까운 길갈에 성막을 안치해 놓은 것입니다. 길갈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람이 많이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성막을 안치하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땅이 다른 땅에 비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실로의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했을 때 성막을 실로로 옮겼습니다(수 18:1).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성막은 '여호와의 전'이라고 불려졌는데 이것은 장막이 아닌 건물을 뜻하였습니다(삼상 1:9).

“[삼상 1:9]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이때부터 성막은 더 이상 장막이 아니라 건물로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곳 저곳 옮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건물로 지어서 유지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성막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각 지파별로 행정의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예배처소도 만들어졌습니다(삿 18장 참조, 시 78:58). 비록 실로에 있는 성전이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성전이었지만 각 지역마다 사람들의 원함에 따라 예배처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로의 함락 이후의 성막

엘리 사사에 의해 운영되어져 왔던 실로 성전이 블레셋인들에 의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시 78:60-62). 실로가 함락되기 직전에 지성소에 위치한 언약궤는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적군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삼상 4:11).

“[삼상 4:11]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는 다윗때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약궤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언약궤가 있음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길갈에 다시 세워진 성막

실로가 함락된 이후에 성막은 다시금 길갈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사무엘과 사울이 길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삼상 11:15).

“[삼상 11:15] 모든 백성은 길갈로 가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고 그를 왕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함께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

놉의 성막

다윗이 놉 땅에 있는 성막에서 진설병을 취하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삼상 21:1-6). 이러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아마도 성막은 길갈에서 놉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시대 때에 성막이 놉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기브온의 성막

또 다시 성막은 놉에서 기브온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쩌면 성막의 성물이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

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 때에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대상 21:29).

“[대상 21:29]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성막과 번제단이 그 당시에 기브온 언덕에 있었으나”

다윗성의 성막

다윗은 블레셋인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궁궐 옆에 장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하였습니다(삼하 6장 참조). 하지만 비록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안치되었지만 여전히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대상 21:29]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 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으나”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러 기브온 산당을 찾아간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왕상 3:4).

“[왕상 3:4]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

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 유명한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바로 기브온 산
당에서 드려진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
가 안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기
브온 산당에 와서 제사를 드린 것은 기브온 산
당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다윗의 장막보다 더 좋아한 이유는 사람
들이 기브온 산당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다
윗은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을 좋아했지만 솔로몬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산
당을 더 선호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립함으로써 모
든 성막의 성물들은 전부 솔로몬 성전으로 모이
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959년에
만들어져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기까지(기원전
586년) 대략 400년간 존속되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BC 516년에 완공 되었으며 바사 고레스 왕으로

부터 유다총독으로 임명된 다윗의 후에 스룹바벨에 의해 건축됩니다. 외형이 왜소했으며 알렉산더 대왕 사후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루크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 의해 심하게 짓밟혀졌습니다.

헤롯 성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 의해 심하게 더럽혀지고 훼손된 성전을 이두매 족속이었던 헤롯이 유대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원래 매우 왜소한 스룹바벨 성전이었는데 헤롯이 엄청난 규모의 성전으로 호화스럽게 건축을 합니다. 80년간에 걸쳐 건축할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AD63년에 완공된 헤롯성전은 AD70년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성전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떠한 건물에 계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행 7:4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

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오직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향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모세시대에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모든 믿는 성도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각 영혼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8장 =====

[출 28:1]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출 28:2]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출 28:3]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모두 레위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식을 집행하거나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을 통한 자손들은 레위지파 중에서 매우 특별한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서 대대로 아론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이 임명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해 특별한 옷을 지어 입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을 위해서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는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을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 28:4]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겹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출 28:5]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이니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지어 입히도록 했던 특별한 옷에는 흉패와 에봇과 겹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를 갖추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금실을 사용했으며 청색실과 자색실,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이 사용되었습니다. 금실이 사용된 것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베실은 주님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의 예복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후에 성막의 의식을 집행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예복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예복과 대제사장의 예복은 달랐습니다. 제사장의 예복은 단순한 세마포 예복만을 입었습니다. 하얀 세마포 옷에다가 띠를 두르고 머리에 하얀 관을 쓰고 있습니다.

“[출 28:40]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런데 대제사장 예복은 달랐습니다. 위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예복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겹옷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속옷은 평범한 베실로 된 옷이었습니다. 이 옷은 일반 제사장과 같은 옷입니다. 일명 세마포 옷입니다. 대제사장은 평소에는 위의 그림처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일년에 하루 대 속죄일 때(7월 10일)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겹옷과 에봇과 흉패와 띠를 벗어 두고서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갔습니다. 세마포 속옷만 입었습니다.

“[레 16:3]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 제물을 삼고 [레 16:4]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찌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겉옷은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그리고 베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었습니다. “[출 28:6]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베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청색은 생명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홍색실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흰베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에봇에 쓰인 네가지 색깔의 실로 띠와 흉패도 만들어졌습니다. 흉패에는 판결할 수 있는 ‘우림과 둠림’이 들어있습니다.

“[출 28:30]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 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찌니라'



'우림과 둠림'은 판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해 전쟁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삼상 30:7]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삼상 30:8]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녕 도로 찾으리라”

홍패에는 가로 세 개와 세로 네 줄로 모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보석은 매우 단단하게 홍패에 부착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했습니다.

“[출 28:21]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 둘이라 매 보석에 열 두 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도요한이 바라보았던 천국의 거룩한 성에도 12개의 보석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천국과 거룩한 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거룩한 성은 동서남북 각각 세 개의 문이 있어서 모두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마다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었습니다.

“[계 21: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 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 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마치 홍패에 박혀 있는 보석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패에 사용된 보석들과 거룩한 성의 12개의 문에 사용된 보석들은 거의 같은 보석입니다 (출 28:17-20과 계 21:19-20을 비교하세요).

이처럼 홍패에 사용되는 12개의 보석이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고 거룩한 성의 12개의 문에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적혀진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또 다른 단서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되고 있는 144000명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144000명은 모두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을 상징적으로 더해진 수입니다. $12,000\text{명} \times 12\text{지파} = 144,000\text{명}$ 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국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12지파와 연관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할 뿐더러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셈입니다.

“[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언급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감람나무이고 이방인은 돌감람나무입니다. 참감람나무가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하시고 충만한 이방인의 수를 채우셨습니다. 충만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질 때에 다시금 하나님은 돌감람나무를 통해 그루터기만 남아 있는 참감람나무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롬 11:24]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

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
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
심을 얻으랴 [롬 11: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
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
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
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또한 대제사장은 머리에 금패를 맸습니다. 그
금패에는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글이 쓰여졌습
니다.

“[출 28:36]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
호와께 성결」 이라 하고 [출 28:37] 그 패
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
에 있게 하라”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말은 정결과 거룩을 뜻
합니다. 대제사장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식을 집행해야 하고 백성에게 하나
님의 뜻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정결하고
거룩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마땅히 정

결하고 거룩해야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인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출 28:29]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대제사장은 성소에 나아갈 때에 에봇을 입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곳에 언급된 '성소'는 히브리어 <코데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에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성소'는 성막 자체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과는 달리 에봇을 입고 에봇에 흉패를 달고서 성막에 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만 에봇을 벗고 일반 제사장 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레 16:3]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
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
을 삼고 [레 16:4]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
으며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찌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곳에 쓰여진 '성소' 역시 <코데쉬>입니다. 하
지만 이 단어는 문맥상 지성소임을 알 수 있습
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바로 앞 구절에 보면
“[레 16: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
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안 법궤 위 속죄
소'는 바로 지성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출 28:30] 너는 우림과 둠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 갈 때에 그 가
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
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출 28:31] 너는 에봇 받침 겹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하나님은 '우림과 둠뭉'을 흉패 안에 넣어 놓게 하셨습니다. '우림과 둠뭉'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우림과 둠뭉'은 "Yes, No"라고 양간의 결정을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일종의 제비뽑기 식의 인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결정해 놓고 "이것이 옳습니까?"라고 여쭘었을 때 "그렇다"는 대답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다"란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우림과 둠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삼상 30:7]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삼상 30:8]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녕 도로 찾으리

라”

[출 28:32]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하고

[출 28:33]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출 28:34]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출 28:35]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의 에봇은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내었습니다. 통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에봇은 갑옷 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것은 천을 두겹으로 덮여 짠 것을 의미합니다. 에봇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석류를 수 놓고 금방울과 함께 달았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

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34절).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금방울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출 28:36]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출 28:37]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출 28:38]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출 28:39] 너는 가는 베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베실로 관을 만드고 띠를 수 놓아 만들지니라

대제사장의 이마에 금패를 둘렀습니다. 그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인으로 새겼습니다.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입

니다.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쉬>입니다. 이 단어는 '거룩함' '분리됨' 입니다. 이 말은 곧 '정결과 거룩'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정결과 거룩함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이마에 금패가 있어 그곳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쓰여진 것은 제물로 가져온 성물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출 28:40]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출 28:41]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출 28:42] 또 그들을 위하여 베로 고의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출 28:43]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

리니 그와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대제사장과는 달리 제사장의 예복은 매우 단순하였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옷에는 속옷이 있습니다. 그 속옷 안에는 고의를 입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체를 덮는 거들이나 팬티와 같은 것입니다. 속옷은 흰 세마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이 흰 색으로 만들어진 것은 '정결과 거룩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제사장으로 하여금 성막에서 예복을 입도록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

[출 29:1]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출 29:2]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출 29:3]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 오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실 때 거룩한 의식을 수행토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성스러운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저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수행하셨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두마리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과자와 무교전병을 한 광주리에 담아 제물로 바쳤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식을 수행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목사에게 안수식을 할 때에도 백성들 앞에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합니다. 장로 안수식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직분자를 세울 때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식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거룩한 의식을 백성 앞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사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역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한 의식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출 29:4]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제사장들은 회막 문 앞에 나아가 그곳에서 물로 씻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사역자들은 반드시 날마다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는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 29:5]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겹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띠우고

[출 29:6]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출 29:7]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대제사장에게 의복을 입힐 때 속옷을 입히고 에봇 받침 겹옷과 에봇을 입히고 그 위에 흉패를 달고 에봇에 허리띠를 띠우며 머리에 관을 씌우고 이마에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금패(성패)를 두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거룩한 기름인 관유를 가져다가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어 발랐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이처럼 복잡스럽고도 많은 장식품이 달린 의복을 입힌 것은 모두 정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

장으로서 백성 앞에 의식을 집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마치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듯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마치 목회를 직업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목회를 직업화시킴으로 인해 형식적인 목회가 되고 전통적인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는 오직 거룩함입니다. 목회자는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달하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출 29:8]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출 29:9]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대제사장과는 달리 제사장들에게는 속옷과 허리 띠와 머리에 관을 씌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얀 세마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들의 옷이 하얀 세마포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 정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바라는 것은 '거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는 '거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거룩을 강조할 때 구식스러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정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 29:10]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 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 할지며

제사장 임명식 때 하나님은 모든 제사장들에게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도록 했습니다. 송아지에게도 안수를 했으며 수양에게도 안수를

행했습니다(15절). 이렇듯 가져온 짐승에게 안수를 행하였던 것은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짐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실제적인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짐승을 죽이지도 않으며 불에 태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출 29:11]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출 29:12]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출 29:13]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

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출 29:14]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출 29:15]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출 29:16]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의 주위에 뿌리고

[출 29:17]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 뜯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출 29:18]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송아지를 잡고서 네 손가락에 피를 묻혀서 번제단의 네 개의 뿔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송아지의 피를 번제단에 모두 부었습니다. 그리고 내장의 기름과 간 꺼풀과 콩팥의 기름을 취해 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송아지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사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은 그렇게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기름들을 취하시고 나머지 고기들은 진밖에서 불사르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송아지의 고기가 중요하지 기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송아지의 가죽 또한 매우 진귀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기와 가죽을 모두 불사른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진 밖에서 불사르라고 명하신 것은 마치 가장 중요한 것을 내버린 듯한 모습입니다. 마치 제사로서도 필요치 않는 하찮은 것이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렇듯 고기와 가죽을 진 밖에서 불사른 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진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고귀한 분이셨지만 가장 비천한 형틀에 십자가형을 당하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히 13:11]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히 13:12] 그

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출 29:19]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출 29:20]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출 29:21]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제사장은 한 마리의 송아지와 함께 두 마리의 양을 가져왔는데 한 마리 양은 죽여 각을 떠 번제단에서 태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고 나머지 한 마리 양은 안수한 후에 죽여 그 피를 취하여 제사장에게 뿌렸습니다.

제사장에게 피뿌림의 의식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오른 귓부리

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 발 엄지에 각각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다음 나머지 피를 단 주위에 뿌렸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옷에다가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기름인 관유도 함께 제사장의 옷에다가 뿌렸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목적은 '거룩함'이었습니다. "그와 그 옷과 그 아들과 그 아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그렇게 피와 관유를 뿌림으로써 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온전하게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에게는 정결케 되는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구약시대에도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구약시대에만 국한된 의식이라고 했다면 천국에는 주님의 보혈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현재보다 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필요없는 보혈이라면 당연히 천국에서도 보혈은 필요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도 주님의 보혈은 매우 중요합니

다.

히브리서 기자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천국의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이 '피'인데 그것은 곧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 12: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히 12:23]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히 12:24]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출 29:22]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우편 넓적다리를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며

[출 29:23]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출 29:24]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며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출 29:25]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제사장 임명식 때 사용되었던 짐승은 한 수송아지와 두 수양입니다. 그 중의 송아지는 진 밖에서 불살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수양도 번제로 바쳐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수양은 죽임을 당한 후 그 양으로부터 얻은 피를 제사장에게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 기름과 간 꺼풀과 콩팥과 콩팥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취하여 요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양의 부분들이 요제에 사용되었을 때 준비된 제물 중 무교떡 한 덩이와 무교과자 하나와 무교병 하나를 취하여 함께 요제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제물을 흔들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요제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 기쁨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요제가 끝난 후엔 그 요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미 태어지고 있는 번제물과 함께 번제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취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출 29:26]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깃이니라

[출 29:27]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출 29:28]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

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 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그렇게 요제물을 번제로 바치고 남은 양의 내용물은 제사장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요제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수양의 넓적다리를 요제로 흔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제사장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식에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깃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요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제는 흔들는 제사입니다. 흔들다는 것은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뻐 날뛰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으로 춤을 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낙심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절망스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비록 당신의 환경이 낙담스럽고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쁜 표정을

짓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요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출 29:29] 아론의 성의는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출 29:30]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칠 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직분은 오직 아론의 직계가손에게만 전수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론의 의복을 그의 직계자손 중의 대제사장이 된 사람에게 물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가 성소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일주일동안 그 의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아론이 죽은 후에 대제사장 직분은 세째 아들은 엘르아살에게 주어졌습니다(민 20:28). 첫번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의 불을 사용치 않고 인간의 불을 사용함으로 번제단의 불에 타죽임을 당하였습니다(레 10:1-2). 그래서 세째 아들에게 대제사장 직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출 29:31] 너는 위임식 수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출 29:32]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출 29:33]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은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는 성물이 됨이며

[출 29:34]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제사장 임명식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깃인 고기는 제사장만이 취하여야 했습니다. 타인은 그 분깃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깃은 오직 받은 자만이 취하는 것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받은 복은 그 사람의 것이며 그 사람이 그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개인적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일대일의 관계로 이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성숙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룰 때 교회는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는 이러한 제사장 임명식 뿐 아니라 속죄제 또한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취하였습니다.

“[레 6:26]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출 29:35] 너는 내가 무릇 네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칠 일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출 29:36]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깨끗케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출 29:37] 네가 칠 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출 29:38] 네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일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출 29:39]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출 29:40]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에바 십분 일과 짙은 기름 힌의 사분 일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힌의 사분 일을 더할지며

[출 29:41]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지니

제사장 임명식은 7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첫날의 의식을 마친 후에 나머지 날에는 첫날과 약간 다른 형식으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수송아지는 첫날과 똑같이 속죄제로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두 수양은 소제와 전제를 번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첫날에는 번제와 요제로 드

려진 것에 비해 약간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과 함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전제는 포도주와 함께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에바(Ephah)’는 고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로 대략 23리터 정도되는 용량입니다. 그리고 ‘힌(Hin)’은 액체의 용량을 측정하는 단위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양의 차이가 있으나 대략 3.8리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 29:42]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출 29:43]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출 29:44]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출 29:45]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출 29:46]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사장 임명식은 모두 회막문 앞에서 이뤄졌습니다. 전제의 경우에도 포도주를 번제로 바쳐진 짐승 위에 포도주를 뿌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제로 드려진 곡식 또한 번제단 위에서 다른 짐승과 함께 태워졌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번제형식으로 드려졌는데 주로 하루에 세 번 정도 행해졌습니다.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그리고 제사목적에 따라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아침에 드려지는 번제는 그 전날의 지은 죄에 대한 제사이고 저녁에 드려진 번제는 그 날 하루 동안의 지은 죄에 대한 제사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회막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막 자체가 거룩한 곳이지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스스로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깊이있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체용량 측정단위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했던 고체의 용량을 측정하는 단위에는 호멜(Homer), 에바(Ephah), 스아(Seah), 오멜(Omer), 갑(Cab)이 있었습니다.

호멜(Homer)

호멜은 이스라엘 고체용량 측정 단위 중에서 최대 단위입니다. 대략적인 용량은 230리터입니다. '호멜'이라는 뜻은 '당나귀'를 뜻하는데 이는 당나귀 한 마리가 실을 수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쌀 한 가마는 80kg인데 이를 리터로 환산을 하면 대략 180리터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한 호멜은 대략 쌀 한가마 반 정도에 해당됩니다.

에바(Ephah)

에바는 가루나 보리, 곡식 등의 양을 재는 단위로 약 22리터에 해당 됩니다. '에바'는 '바구니'라는 뜻인데 이는 한 바구니에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말합니다. 한 에바는 호멜의 1/10 정도에 해당됩니다. '에바'는 고체용량 측정 단위이지만 액체용량 측정 단위인 '밧'과 같은 용량에 해당됩니다. 거의 22리터 정도에 해당됩니다.

스아(Seah)

가루나 곡식을 측량할 때 사용되는 단위로 대략 7.3리터에 해당됩니다(쌀 4되에 해당됩니다). 보통 팬케이크는 대략 밀가루 0.3리터 정도가 소요됩니다. 1 스아로는 대략 25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오멜(Omer)

오멜은 '보리 한 묶음'이라는 뜻으로 보통 성인의 하루 먹을 양식을 의합니다. '에바'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양이며 보통 2.2리터 정도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보통 성인의 하루 양이 되는 것입니다.

갑(Cab)

'갑'은 고체측량 단위로 1.2리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쌀 반되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액체용량 측정단위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했던 액체의 용량을 측정하는 단위에는 록(Log), 힌(Hin), 밧(Bath), 그리고 통(Firkin)이 있었습니다.

록(Log)

록은 액체의 용량을 재는 최소 단위로서 대략 0.3리터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록'을 기름의 양을 사용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 14:10] 제 팔일에 그는 흙 없는 어린 수양 둘과 일년 된 흙 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삼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레 14:11]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레 14:12]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레위기 14장은 문둥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 소개된 장입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는 판결을 받은 문둥병은 7일간 장막 밖에 거하다가 8일째 제사장에게 나아가 정결의식을 다시금 받았는데 그때 피를 바른 곳에 기름도 함께 발랐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사용한 기름은 문둥환자가 가져온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제사장은 문둥병자가 가져온 기름 한 록을 취하여 자신의 왼손 바닥에 바른 후에 손가락으로 기름을 찍어 하나님 앞에 일곱번 뿌렸습니다(레 14:15-16). 그런 다음 남은 기름을 문둥병자에게 발랐는데 오른쪽 귓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각각 발랐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을 문둥병자 머리에 다 부었습니다.

힌(Hin)

힌은 약 3.6리터쯤 되는 양입니다. 성경에는 기

름의 양을 잴 때(출 30:24, 겔 46:14)나 포도주 양을 잴 때(출 29:40, 레 23:13) '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물의 양을 잴 때(겔 4:11)에도 사용했습니다.

밧(Bath)

밧은 약 22리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포도주의 양을 잴 때나 기름의 양을 잴 때에 사용되었습니다(왕상 7:26, 스 7:22).

통(Firkin)

이것 역시 액체의 용량을 재는 단위로 사용되었으며 약 38리터에 해당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집에 있는 항아리를 언급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놓여져 있었던 집안의 항아리를 말합니다.

”[요 2:6]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 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요 2: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출애굽기 30장 =====

[출 30:1]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출 30:2] 장이 일 규빗, 광이 일 규빗으로 네모반듯하게 하고 고는 이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출 30:3]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출 30:4] 금테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메는 채를 꿰 곳이며

[출 30:5]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출 30:6]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분향단 또한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분향단은 번제단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번제단에도 뿔이 있었지만 분향단에도 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제단에 비해 크기가 작았습니다. 번제단은 가로 세로 2.5규빗이지만 분향단은 가로 세로 일규빗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번제단은 그곳에서 번제로 짐승을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올려 드렸지만 분향단은 오직 향불을 피워 향기로운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번제단은 주님을 향한 헌신을 의미하지만 분향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분향단은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렇듯 분향단이 휘장 바로 앞에 놓여진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은 죄인인 인간을 상징합니다. 조각목은 가시가 많으며 다른 가지에 상처를 주며 딱딱한 나무였습니다. 이러한 조각목의 특성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각목은 매우 하찮은 나무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분향단을 매우 하찮은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

나님 앞에 기도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분향단의 길이와 폭이 같은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며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모든 기도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두 들어 응답될 것을 상징합니다.

[출 30:7]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사를지며

[출 30:8] 또 저녁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앞에 끊지 못할지며

[출 30:9]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분향단의 향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불은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향불을 일정한 시간에만 켜는 것이 아닙니다. 향불을 아침 저녁으로 정리는 해야 했지만 향불은 절대로 끊어지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금등의 불이 끊어지면 안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

니다.

정금등대의 불이 끊어지면 성소는 암흑으로 변화되고 맙니다. 창문도 없고 네 개의 덮개로 덮혀져 있는 성소에는 그 어떤 것도 정금등대 외에는 빛을 내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분향단의 향불 역시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향불은 빛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향불은 연기를 만들어 낼 뿐이었습니다. 향불이 항상 켜져 있어 연기가 자욱하게 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향불의 연기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성도의 기도 또한 쉬없이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없는 기도를 성령 안에서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엡 6: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가 24시간 쉬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는 곧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을 받게 될 것이며 매우 권세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출 30:10] 아론이 일년 일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일년 일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분향단에도 네 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에도 네 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뿔은 하나님

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뿔에는 피가 뿌려졌습니다. 뿔에 뿌려졌던 피는 속죄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며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의 죄를 속죄하심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권세가 번제단에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임하며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에게 임함을 뜻합니다.

일년에 일차씩 피가 뿌려졌던 것은 7월 10일 속죄일에 행해졌던 피뿌림의 속죄 의식을 두고 하신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일년에 속죄일 때 이와 같이 분향단에 피를 발랐습니다.

분향단의 영적의미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출 30:6]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분향단이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분향단의 향불에서 나는 연기는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곳입니다. 분향단의 연기가 지성소로 들어가

는 모습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로 깊숙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 8: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계 8: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또한 분향단의 향연기는 제사장의 온 몸으로 스며 들어갔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생활이 몸에 베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향단은 죄인인 인간을 상징합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에다가 정금을 씌워서 만들어 졌습니다. 조각목은 가시가 많아서 다른 나무에 상처를 줍니다. 또한 딱딱한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각목은 죄 많고 상처투성인 성도를 의미합니다. 조각목에 금이 입혀진 것은 성도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분향단에 쓰여진 금은 100% 순금인 정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금을 의미하는데 성도의 기도는 조금도 의심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분향단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분향단은 가로 세로 각각 일규빗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뜻에 따라 기도가 응답되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기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분향단은 권세있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분향단에는 네개의 뿔이 있습니다.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권세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권세있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강력한 기도가 될 것이며 응답이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 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향단은 쉼없는 기도를 뜻합니다.

분향단의 향불은 항상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항상 향불이 켜져 있어야 하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출 30:8] 또 저녁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찌며” 어떤 성경학자는 아침과 저녁때 두차례 주기적으로 향불을 켜다고 말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아침 저녁만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향불을 아침 저녁으로 깨끗하게 점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도는 쉼없이 항상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엡 6: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분향단의 등불을 항상 점검하였던 것은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 도와 주심을 뜻합니다.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

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분향단의 향은 특별한 것을 사용했습니다.(출 30:34-37)

- 1) 분향단에 쓰이는 향은 아무 향이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성도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 2) 분향단의 향은 소합향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입니다. 기도는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 3) 분향단의 향은 나감향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개류의 껍질을 뺀아서 만든 향입니다. 껍질이 부서지듯이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씻어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 4) 분향단의 향은 풍자향이 사용되었습니다.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소독제로 사용되는 향입니다. 옷을 빨래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빨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의 피로 인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말합니다.
- 5) 분향단의 향은 유향이 사용되었습니다.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시체에 바르는 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이나 재앙을 제거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6) 분향단의 향은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을 붙잡고 해야 합니다. (막 9:23, 레 2:13)

[출 30: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 30:12]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 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생명 속전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저들이 생명 속전을 바칠 때에 저들에게 온역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 속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이러한 생명 속전은 성막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내기 시작한 생명 속전은 예수님 때에도 성전세로 거두워졌습니다.

“[마 17:24]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세를 내셨던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생명 속전을 내야 함을 뜻하신 것입니다.

생명 속전은 오늘날의 헌금과도 같습니다. 헌금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건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주신 것에 감사하여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온역이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온역’은 전염병이라기 보다는 오늘날의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헌금을 하지 않아서 그런 질병에 걸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헌금에 대

한 본인의 생각과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출 30:13]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 게라
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출 30:14]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이십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출 30:15]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출 30:16]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생명 속전은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남자만 드렸습니다. 생명 속전은 반 세겔이었으며 그 금액은 대략적으로 일반 노동자의 2일 수입금액에 해당되었습니다. 일반 노동자가 하루에 8만원을 번다면 생명 속전은 대략 16만원 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반 세겔을 바쳐야 했지만 부자도 반 세겔을 바쳤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똑같은 생명 속전을 바쳤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공평함을 뜻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공평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없으며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불평등한 조건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라 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라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참경배자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도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나아가는 범위가 정해졌지만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경배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 속전은 성막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성막 운영을 위해 재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성막 유지와 보수에 따른 운영비도 필요했을 것

입니다. 또한 성막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재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화폐 단위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했던 화폐 단위 화폐

1) 세겔(Shekel)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했던 세겔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황실에서 사용하는 세겔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세겔과 성전에서 사용되는 세겔이 있습니다. 황실에서 사용되는 세겔은 성전 세겔의 두 세배 정도였습니다. 성전세겔이 대략적으로 9.7g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세겔은 그보다 약간 많은 11.4g 정도였습니다.

세겔은 은세겔이 있고 금세겔이 있습니다. 은으로 된 세겔은 당시 일반 노동자의 4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금으로 된 세겔은 은세겔에 비해 15배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만원을 번다고 하면 은세겔은 40만원이고 금세겔은 600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기 위해 금 600세겔을 지불했는데 노동자 하루 임금을 10만원으로 생각했을 때 대략 36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대상 21:24] 다윗왕이 오르난에게 이르
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대상
21:25] 그 기지 값으로 금 육백 세겔을 달
아 오르난에게 주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대제사장에게
받은 금액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마 26:14] 그 때에 열 둘 중에 하나인 가
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마 26:15]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은 30세겔은 그 당시 히브리인 중 한 사람의 값
에 해당되었습니다. 은 30세겔의 값은 대략 1천
2백만원 정도입니다.

“[출 21: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
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찌니라”

2) 베가(Bcca)

베가는 반세겔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략 20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 38:26] 조사를 받은 자가 이십세 이상으로 육십만 삼천 오백 오십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베가 곧 반 세겔 씩이라”

3) 게라(Gerah)

게라는 세겔의 20분의 1의 금액이었습니다(베가의 10분의 1 금액). 따라는 이 금액은 대략 2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계산했을 때 0.57g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성인남성에게 생명의 속전을 성막에 바치라고 명하셨는데 이 때 사용되는 금액은 반 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한 세겔은 20 게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생명 속전은 10게라였던 것입니다. 성전의 속전 값은 오늘날로 계산하면 20만원이었던 것입니다.

“[출 30:13]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찌니 한 세겔은 이십 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찌며”

4) 므나(Menah)

므나는 '마네'라고도 불리우며 1 므나는 571.2g에 해당됩니다. 므나 화폐는 은화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100드라크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 므나는 대략 한 노동자가 3개월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략 1천만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눅 19:13)

5) 달란트(Talent)

성경에 달란트라는 화폐단위가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달란트는 무게로 약 34kg에 해당되었습니다. 화폐로 사용되는 달란트는 은달란트가 있고 금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금달란트는 은달란

트보다 15배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금세겔이 은세겔보다 15배 가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은달란트는 은세겔의 3,000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 은세겔의 가치가 일반 노동자의 4일 임금에 해당되었으니 한 은달란트는 무려 12,000일의 임금에 해당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33년 정도의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은 한세겔을 4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은 한달란트는 무려 12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금 한 달란트는 무려 180억에 해당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계산할 때, 은 한 달란트는 60므나에 해당됩니다. 한 므나가 대략 1천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다면 은 한 달란트 금액은 6억쯤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드라크마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은 한 달란트는 6,000드라크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6억쯤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다른 이유는 정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은 한 달란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바로 서있지 못합니다. 이는 너무나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10억 정도의 금액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은 금액이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상 29:3]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므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대상 29:4]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천은 칠천 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이러한 금액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금액이기때문에 달란트에 대한 화폐가치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화폐가치는 그 정확성이 매우 엄밀하고 뛰어나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정확성은 훨씬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천 년전의 다윗의 시대 때의 화폐 단위는 그 정확성이 더 떨어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로마와 헬라지역에서 사용되었던 화폐단위

1) 데나리온(Denarius), 드라크마(Drachma)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단위이며 드라크마는 헬

라 화폐단위입니다. 데나리온은 아사리온, 고드란트와 함께 로마 화폐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헬라 화폐로 많이 등장하는 것은 드라크마와 렵돈과 구별되었습니다.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둘 다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한 세겔은 4 드라크마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유지를 위해 성전세를 냈는데 모세 때부터 서 반세겔을 내었습니다. 다시말하면 2 드라크마를 성전세로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마 17:24]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2) 앗사리온(Assarius)

앗사리온은 로마 화폐로서 1/16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10만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한 앓사리온은 약 6,000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주님은 참 새 두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0: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 고드란트(Kodrantēs), 렙돈(Lepton)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단위로서 1/64 앓사리
온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렙돈’은 헬라 화
폐단위로서 고드란트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이
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두 렙돈, 즉 한 고드란트를 헌
금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막 12:41] 예수께서 연보 궤를 대하여 앉
으사 무리의 연보 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
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막 12:42]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
트를 넣는지라 [막 12:43] 예수께서 제자들
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
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 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한 렙돈이 고드란트의 1/2에 해당되기 때문에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의 금액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1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고드란
트 금액은 대략 1,500원 정도 되었습니다. 대략

1,500원으로 계산했을 때 두 렵돈은 500원짜리 동전 두 개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과부가 가진 전 재산을 헌금했다시며 매우 귀한 헌금으로 받으셨습니다.

[출 30:18]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놋은 곧 주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도록 하셨습니다. "[민 2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 21:9]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요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 3:15]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물두멍의 낯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출 38:8] 그가 낯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낯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듯 물두멍이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진 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인들의 거울은 여인들의 외모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그것을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출 30:19]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출 30:20]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

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출 30:21]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은 모든 제사장들에게 물두멍에서 수족을 깨끗이 씻은 후에 성소에 들어가도록 명하셨습니다. 만일 저들이 수족을 깨끗이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때는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정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함으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 3: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 3:5]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누구든지 거룩치 않는 모습으로 나아오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물두멍의 영적의미

각 사람마다 물두멍의 크기가 다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었던 성막에는 물두멍이 놓여져 있습니다. 물두멍은 성막뜰에 위치해 있었으며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었습니다.

“[출 30:18]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런데 놀랍게도 물두멍의 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성물들은 모두 정확한 규격이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성막을 그대로 본따 만

들었습니다.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 보여주신 본(sample)을 따라 그대로 만들었다면 틀림없이 물두멍도 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성물에 대한 정확한 규격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물두멍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물두멍의 크기에 대해 조금의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물두멍의 크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은 각 사람마다 회개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지은 죄에 따라 각자 알아서 회개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으로 인한 원죄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되었기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원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삶 가운데 짓는 자범죄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물두멍에서 우리는 자범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물세례를 상징합니다.

번제단이 성령세례를 뜻하듯이 물두멍은 물세례를 뜻합니다. 성령세례와 물세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성령세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물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성막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식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놋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물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출 38:8]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에서의 정결의식

성막은 일반 땅과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그 위에 뭔가를 덮거나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성막뜰 남쪽에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북쪽편에 있는 번제단 밑에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뜰은 항상 짐승의 피가 묻어져 있는 불결한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은 신발을 신지 않고 의식을 수행했기 때문에 항상 제사장의 손과 발과 몸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반드시 물두멍에서 더럽혀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은 후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 30:19]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만일 손과 발을 깨끗이 씻지 않고 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은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출 30:20]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 할찌니라 [출 30:21]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찌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출 30: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
대

[출 30:23]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오백 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 이백오십
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이백오십 세겔과

[출 30:24] 계피 오백 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힌을 취하여

[출 30:25]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
룩한 관유가 될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한 관유를 만들도록 하
셨습니다. 그러면서 관유를 만들 재료를 말씀해
주셨으며 용량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
니다. '힌'은 액체를 계산하는 수치로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약 3.67 리터입니다.

[출 30:26]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
고

[출 30:27]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
며 분향단과

[출 30:28]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
과 그 받침에 발라

[출 30:29]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
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출 30:30]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관유는 성막 전체적으로 발라졌습니다. 회막을
둘러싸고 있는 세마포를 비롯하여 성막기둥들
에게도 발라졌습니다. 성막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전체적으로 발라졌으며 성소의 진설병
과 정금등대, 분향단에도 구체적으로 발라졌습
니다. 심지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와 언약궤에
도 발라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물의 부속기구
들까지도 모두 관유가 발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물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
은 성막에 들어오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
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막 의식을 집행하
는 제사장에게도 관유를 바르게 하였습니다. 거

룩한 곳에서 의식을 집행하는 제사장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때문에 당연히 관유를 바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인도하는 모든 사역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관유를 발라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출 30:31]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출 30:32]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출 30:33]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거룩한 관유는 오직 성막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거룩한 관유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함부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면 안되었습니다. 관유를 만들어

다른 이방인에게 판매해서도 안되고 이방인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러한 규칙을 어기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졌습니다.

[출 30:3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출 30:35]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
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출 30:36]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
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출 30:37]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
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출 30:38] 무릇 맡으려고 이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향단에 쓰일 향을 만들
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룩한 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분향단의 향의 연기를 맡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향을 만드는 재료에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과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모두 거룩한 향품입니다.

거룩한 관유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관유를 성막의 모든 물품에 바르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유를 통해 성막 물품이 거룩해지게 하셨습니다.

관유를 만드는 방법

관유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는 몰약과 육계, 창포와 계피에 감람유를 섞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용량을 말씀하셨습니다.

“[출 30:23]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오백 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 이백 오십 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이백 오십 세겔과 [출 30:24] 계피 오백 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힌을 취하여

[출 30:25]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찌
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찌라”

관유를 만드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
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향을 제조할 줄 아는 전
문가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브사렐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나오지만
브사렐이 성막 전체를 만드는데 모든 일을 주관
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전문가를 통해 만들어졌
을 것입니다.

관유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보면 모두 고
급향품입니다. 이 향품을 짜서 추출해 낸 액을
통해 만들게 되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관유는 ‘
거룩한 관유’로 취급되었습니다.

‘액체 몰약’은 감람과에 속하는 관목의 즙에서
채취한 고급 향품을 말합니다. 주로 여성이 쓰는
향수나 화장품에 사용되었으며 마취할 때 사용
하거나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해서도 사용되었
습니다.

‘육계’는 녹나무과의 상록 교목으로 월계수 나무
와 매우 흡사합니다. 육계는 바로 이 나무에서
채취한 고급 향품입니다. 원래는 식용으로 사용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관유 사용하는데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창포’는 인도에서 수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연못 같은 곳에서 자라는데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에게도 즐겨 사용되었던 고급 향품입니다. 이 창포는 다른 향품과는 달리 향이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나라도 단오날 같은 때에 창포에서 짠 울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계피’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람기름’은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짠 기름으로 감람유(올리브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되었으며 식용이나 등불을 켜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관유의 용도

하나님은 관유를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출 30:31]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출 30:32]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또한 이것을 타인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

셨습니다.

“[출 30:33]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이처럼 거룩한 관유를 함부로 만들거나 그것을 외부인들에게 사용할 경우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거룩한 관유는 성막물품에만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에게도 거룩한 관유가 발라졌습니다.

“[출 30:30]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관유의 효능

하나님께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그것을 바르도록 하셨던 것은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막물품에 거룩한 관유가 발라졌을

때 성막물품은 거룩해졌습니다.

"[출 30:26]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출 30:27]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출 30:28]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출 30:29]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거룩한 관유를 바를 때 사람 또한 거룩해졌습니다.

"[출 30:30]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처럼 거룩한 관유는 세상과 구별케 하고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관유의 효능은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같습니다. 성령의 기름부으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분향단에 쓰이는 향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한 향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에는 거룩한 관유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으며 그것과 함께 거룩한 향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이 향은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향기로운 연기였습니다. 거룩한 향은 분향단을 통해 향불로 연기를 내며 피워졌습니다.

분향단은 지성소 휘장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출 30:36] 그 향 얼마를 곱게 짙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 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증거궤 앞이라는 말이 지성소 휘장 앞을 의미합니다.

분향단의 향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향단에 쓰이는 향은 아무 향이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만을 받으심을 뜻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약 4:2]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약 4: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1) 분향단의 향은 소합향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입니다. 기도는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2) 분향단의 향은 나감향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개류의 껍질을 뺀아서 만든 향입니다. 껍질이 부서지듯이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씻어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3) 분향단의 향은 풍자향이 사용되었습니다.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소독제로 사용되는 향입니다. 옷을 빨래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빨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의 피로 인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말합니다.

4) 분향단의 향은 유향이 사용되었습니다.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시체에 바르는 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이나 재앙을 제거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5) 분향단의 향은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소금은 불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불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

[출 3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 31:2]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출 31:3]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출 31:4]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출 31:5]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고

[출 31:6]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사람을 지명하시면서 저들로 하여금 성막 제작하는 담당자로 삼으라 명하셨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내력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저들이 어느 지파 사람이고 누구의 아들인지 알

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음성을 정확하게 들려주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방법은 모세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전달해 주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5분 후에 일어날 일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을 때 우리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치원 생에게는 유치원생이 알아 들을 수 있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밖에 말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치원생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말한들 그 유치원생이 한글도 제대로 모르

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고서 그것을 컴퓨터에 기록하거나 녹음시켜 남길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유치원생에게 갑자기 슈퍼맨 같은 초능력을 부여하신다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눈높이로 대화를 나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실 때는 베드로의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간음한 여인과 대화하실 때도 그 여인의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도 그리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된 병자를 치유하셨을 때에도 그 사람과 눈높이를 같이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눈높이를 통해 우리와 대화를 나누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범위 내에서 눈높이로 말씀해 주실 때도 많지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성경 지식을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 31:7]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출 31:8]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출 31:9]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출 31:10]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공교히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출 31:11]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을 통해 성막의 모든 것들을 만들도록 명하셨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 성막과 증거궤와 속죄소와 성소의 기구와 상과 부속기구들과 정금등대와 그 부속기구들과 분향단과 번제단과 부속기구들과 물두멍과 받침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게 하셨으며 심지어 거룩한 관유와 향을 제조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찌니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능력있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셨지만 저들 스스로 자기들 맘대로 성막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대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능력있는 사람들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제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들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일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모세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성막을 제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막이 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며 성막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해야 하며 받아 드리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출 31: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 31:13]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출 31:14]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출 31:15]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칠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 31:16]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출 31:17]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옛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칠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출 31:18]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안식일의 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지켜져야 할 대대의 규례라고 정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을 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세상적인 일을 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안식일의 법을 중요시 여긴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 7일째 안식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일의 법을 대대로 지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6일 동안 열심히 세상 일을 하다가 제 7일째는 모든 세상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일을 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된 사람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가

르쳐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

[출 32:1]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뎠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출 32:2]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 오라

[출 32:3]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 오매

[출 32:4]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출 32:5]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출 32:6]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기간이 너무나 길다보니 백성들이 오래 참지 못하고서 우상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아론은 백성의 뜻에 따라 금을 걷게 하였고 백성이 가져온 금을 통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아론은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까지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던 아론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가리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신이라고 말할 했을까요?

아론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 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마치 반란이라도 할 듯 무서운 분위기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렇듯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던 것은 저들의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인 사람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안보이는 그런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훨씬 자극적이고 선명하기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출 32: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출 32:8]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출 32: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출 32:10]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

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의 추악한 행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을 다 죽이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죄악이기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출 32:11]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

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출 32:12]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출 32:13]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출 32:14]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출 32:15]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 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출 32:16]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출 32:17]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돌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 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출 32:18]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증거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판에 율법을 적어 주셨습니다. 증거판은 오늘날 성경과도 같습니다. 증거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직접 글을 쓰셨듯이 성경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습니다. 비록 사람의 손을 통해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쓰신 글임을 인식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영적인 책이라고 읽어서도 안되고 교양책 정도로 여겨서도 안됩니다.

[출 32:19]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

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출 32:20]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출 32:21]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나아갔을 때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 즉시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마시우게 하였습니다.

사실 모세가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보고 분노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모습을 보며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는 그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백성을 향한 분노를 푸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 스스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을 깨뜨리고 만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분노할 때는 참으라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오히려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분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상의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매사에 할 일을 모세에게 일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급한 성격때문에 하나님과 상의할 시간을 만들지 못하고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던 백성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채 자신 스스로의 결정으로 함부로 행동했던 것이 더 나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깨뜨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이었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화가 난다고 해서 깨뜨려버린 모세의 잘못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큰 죄였던 것입니다.

[출 32:22]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출 32:23]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출 32:24]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출 32:25]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는 아론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방자하다'는 히브리어는 <파라>입니다. 이 <파라>의 뜻은 '풀다' 혹은 '내버려두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론이 백성들을 그냥 저들의 뜻대로 행하도록 내버려둔 것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들의 자유의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저들 맘대로 행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며 마귀가 저들을 마구잡이로 공격하도록 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강력하게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치도록 도우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 버려두어서는 안됩니다. 저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함께 모여 기도케 함으로써 저들의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엔 백성이 방자해져서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출 32:26]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와 함께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출 32:27]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출 32:28]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출 32:29]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출 32:30]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출 32:31]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출 32:32]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레위지파를 내세워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자가 삼천명 가량이나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이 우상숭배했던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심한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나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삼천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결국 200만명 가량의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모든 백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자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심길 때 자녀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

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우상입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상숭배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우상숭배한 것이 파괴될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했던 백성들은 금송아지가 불살라져서 그 가루를 백성이 직접 마셔야만 했습니다.

“[출 32:20]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자녀가 우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상이 된 자녀를 파쇄하실 것입니다. 자녀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며 질병에 걸릴지 모릅니다. 자녀에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자녀의 인생은 실패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녀를 우상으로 섬겼기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재물을 우상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은 당신으로부터 재물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재물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

신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으므로 하나님으로 시기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출 32:3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출 32:34]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출 32:35]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너무나 끔찍한 말씀입니다. '내 책'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책입니다. 이 책은 생명의 책입니다.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

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이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받는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못해서 받는 형벌이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녀서 받는 형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더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으로 인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00명 가량이 죽는 것으로 일단락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죄값은 바로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죄의 값이 자녀에게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은 죄에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회개작업을 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인식과 용서받음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지은 죄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재물을 탐하였으면 탐한 재물로 보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보다 오분의 일을 더해서 보상하라고 하셨습니다.

“[민 5:7]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 줄 것이요”

회개의 단계

정결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깨끗해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

나님께도 죄를 짓지만 사람에게도 죄를 짓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이웃과 나 자신에 대한 죄입니다.

회개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르지 않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의 인식

첫째로 회개에는 죄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죄를 지었든지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기까지 무려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했던 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였고 백성 중 삼천 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죄를 인식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잠시 잠깐뿐 조금 지나면 곧 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죄의 인식은 회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삼상 12:23)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일반인에게 아무런 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웬만한 성도에게도 기도를 쉰다는 것이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의 멈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잠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을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은 회개의 단계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살인의 큰 죄를 범했더라도 조금도 죄를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를 게을리 하는 것을 큰 죄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온전한 인식은 온전한 회개를 낳게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창 4:9)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뻔뻔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대하는 저의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은 동생에 대해 물었으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 살려달라 용서를 빌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동생을 죽였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쩌면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며 죄에 대한 합리성만 만들어 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들춰 내셨을 때 비로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창 4:10-11)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비로소 땅에 엎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죄를 인식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가인의 다음 모습을 보십시오.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창 4:12)

가인이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동생을 죽인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죄벌이 너무 중합니다”라는 말 밖에 없을까요? 적어도 가인은 “저를 죽여 주십시오”라고 해야 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단계를 밟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인식은 중요합니다.

죄의 애통함

둘째로 회개에는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죄를 인식하게 되면 죄에 대한 부담감이 마음에 생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큰 고통이 생겨납니다. 죄를 인식하면 할수록 그 고통은 더 커집니다. 회개를 잘 하기 위해선 마음에 큰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시편은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 이다"(시 38:18)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에스라를 아십니까?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학자요 율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에 빠져있었습니다. 거룩의 상징이었던 레위인들도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정직의 상징이었던 관리들도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아 드렸습니다. 온 백성이 이방여인을 집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일로 울며 기도하였을 때에 백성들의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

지라”(스 10:1-2)

보십시오. 에스라가 통곡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 함께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뭇 때문에 통곡했습니까? 바로 저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자복했으며 저들의 죄에 대해 통곡 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고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런 고통이 없으면 이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반드시 죄에는 고통이 따라야 합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 목매달아 죽었습니다(마 27:5). 그가 죽기 전에 행한 것은 은 삼십세겔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갚다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의 고통이 없었다면 스스로 자살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무서움보다 죄의 고통이 더 컸던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줄곧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재정을 담당했을 정도로 예수님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주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저 마음은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예수님까지 팔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죄를 인식했을 땐 이미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죄로 고통을 받았을 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큰 행복을 누려야 할 자였지만 가장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죄의 포로였으며 죄는 그에게 행복대신 고통을 주었습니다.

죄의 고백

셋째로 회개에는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선 반드시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해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는 의식이 있습니다. 어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의 고백을 들을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사도 좋습니다. 교회 직분자에게 해도 좋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해도 좋습니다. 남편에게 해도 괜찮습니다. 아내에게 해도 좋습니다. 자녀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죄로 상처를 준 당사자에게 고

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어떤 상점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상점 주인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배우자 몰래 간음을 저질렀다면 배우자에게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사기를 쳤다면 사기 당한 장본인을 찾아 가십시오.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로 상처를 당한 당사자를 찾아 가십시오. 부당하게 물건값을 높게 받았다면 소비자를 찾아가 죄를 고백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죄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회개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 줄 것이요"(민 5:7)라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나타나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마 3:6)았습니다.

사도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 5:16)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죄 지은 사람에게 달려 가십시오. 먼 곳에 있다면 전화기를 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지은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를 숨기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보상

넷째로 회개에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는 하나님께 보상하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더 많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을 다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십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 값은 자녀 삼 세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죄의 보상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출 20:5)

사람에 대한 죄는 사람에게 보상하십시오. 물건을 훔쳤다면 물건을 돌려주거나 물건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간음을 했다면 간음에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감옥에 간다면 가십시오. 그것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면 집을 파십시오. 죄와 함께 사는 집보다 죄 없이 사는 길 바닥이 더 좋은 것입니다. 남을 속였다면 속인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근무시간을 어겼으면 어긴 시간만큼 일을 더 하십시오.

모세 율법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온전히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보상’은 원래의 것에 1/5을 더해서 보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 줄 것이요”(민 5:7)

보상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원리는 가해자에

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것 다섯을 취했다면 다섯만 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섯에다가 다른 손해배상까지 합쳐서 열 개를 취해서는 안됩니다. 지나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기에 모세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찌니라"(출 21:23-25)고 명령한 것입니다.

죄의 용서받음

다섯째로 회개에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십시오. 용서받기 전에는 온전한 회개가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한 대표적인 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인식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시 51:4)고 말했습니다. 물론 시편 51편은 다윗이 밋세바와 동침한 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대상은 밋세바와 그 남편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다

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다윗의 죄를 들춰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삼하 12:13)

분명히 나단은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윗왕을 질책했습니다. 선지자로서 그 소임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모두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사람에게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내 팽겨친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질책하기 위해서 찾아온 나단 선지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사울의 것과는 많은 차

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삼상 15:24-25)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보기에 좋은 것은 취하고 필요치 않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사울은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지금 내 죄를 사하고’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울이 선지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용서를 바랄 때 하나님은 즉시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롬 4:8)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죄에서 떠나 스스로 뉘우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당신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대하 7:14)

혹 당신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용서할 때까지 보상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을 용서할 때 비로소 당신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렸던 잘못 때문에 불안에 떨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으니 요셉이 벌을 주면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조차 요셉이 형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을 염려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유언에 요셉에게 용서할 것을 당부했다고 형들이 고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찌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창 50:17)

형들의 그런 태도에 요셉이 울음을 터트렸던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는데 아직까지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진실되이 용서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닮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십니까? 우리의 용서가 마땅히 요셉의 것과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하루 일곱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일곱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눅 17:4)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죄가 몇 번이든 어떠한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용서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먼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섯째로 회개에는 죄를 버림이 필요합니다. 지은 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다면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에는 죄의 반복이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똑 같은 죄를 다시금 짓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회개를 외쳤을 때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회개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저들의 이방아내와 그 사이에서 난 자식들을 내다 쫓아 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스 10:11-12)

나는 성경에서 이처럼 확실하게 죄를 버렸던 기록을 읽으면서 내심 놀랐습니다.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인을 내 팽거칠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

들은 이방여인을 내 보냈습니다. 심지어 이방여인에게서 얻은 자녀까지 내 보냈습니다. 에스라서에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아십니까? 저들의 입으로 직접 말했던 이유를 들어 봅시다.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스 10:3)

저들이 자신의 부인과 자녀까지 내 쫓았던 가장 큰 이유는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보다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했습니다. 그 여인을 용서하셨던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8:11)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는 현재를 지켜 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던지 상관없이 오직 현재의 생활에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과거에 살인자라 할지라도 현재의 성자가 될 수 있음은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죄는 완전히 죄를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도박, 마약, 음행 등 습관적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혹 당신에게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그런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의 단계를 잘 이행했다면 습관적인 죄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 습관적인 죄를 없애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죄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죄를 버리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사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죄를 인식할 수도 없으며 죄에 대한 고통과 죄의 고백은 물론이고 죄에 대한 보상과 용서,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

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슥 4:6)

출애굽기 33장 =====

[출 33: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출 33:2]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출 33:3]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를 해 주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심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창 15:16] 네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싫어하신 것입니다.

[출 33:4]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출 33: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출 33:6]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너무나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두 몸을 단장하지 못하여 슬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저들에게 너무나 큰 슬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몸에 단장품을 달지 않은 것은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단장품은 세상적인 것을 대표하는 것인데 마음이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장품을 제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듯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장품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장품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장품에는 여러 우상의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장품은 곧 우상숭

배를 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니고 있는 단장품의 대부분은 애굽사람으로부터 거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애굽 사람으로부터 생필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많은 보물이나 단장품들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때 많은 단장품을 내 놓았지만 여전히 저들에게 단장품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출 33:7]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처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는 성막을 만들기 이전에 특별한 장막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진 바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그 장막을 가리켜 '회막'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회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오헬>인데 이것은 <미쉬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

오헬>과 <미쉬칸>모두 '성막'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성막 만들기 이전에 만들었던 '회막'은 성막의 대용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회막이 진 바깥 먼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멀리 세워져 있는 회막까지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먼 곳까지 나아갈 정도의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 33:8]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는 성막을 만들기 이전에 특별한 장막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진 바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그 장막을 가리켜 '회막'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회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오헬>인데 이것

은 <미쉬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오헬>과 <미시칸>모두 '성막'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성막 만들기 이전에 만들었던 '회막'은 성막의 대용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성막 이전의 회막은 백성들이 거주했던 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에 백성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봤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백성들이 모세를 영적인 지도자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땅히 영적 지도자는 모세처럼 백성으로부터 이러한 존경심을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백성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을지라도 백성 스스로 영적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올 때 참된 존경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출 33:9]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출 33:10]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
하며

하나님의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
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기둥으로 나
타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불기둥으로
도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나아
오는 참경배자에게 항상 함께 합니다. 이것은 참
경배자에게 주어지는 매우 큰 축복인 것입니다.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러한 하
나님의 크신 영광을 깊이있게 체험하였던 것입
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회막에 임할 때에 이스라
엘 백성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변화됩니다. 세상적인 것을 버릴 수 있
으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은 더욱더 간
절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 33:11]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를 드렸기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사를 제쳐두신채 오직 모세에게만 나타나셔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특별한 경우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성령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처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었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만 모세 때에는 성령님께서 모세와 항상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회막이나 지성소와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 7:89]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 었더라"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모세는 성막에 나아가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

를 택해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 기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회막을 지키는 것이 그의 책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회막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만큼 회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 당시 회막은 성막과는 달리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회막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지성소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 대제

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를 항상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였지만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는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만 일 년에 하루만 들어오게 막으셨습니다.

“[레 16:1]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레 16: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렇기때문에 여호수아는 평생에 단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그가 모세처럼 빈번하게 하나님과 대면하거나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지만 그가 단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성막의 중요성에 대해 그 의미를 모세처럼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분해되고 해체되고 말았습니

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도 제대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막 또한 지키지 못하였던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땅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홍해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모든 지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신 11:23]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신 11:24]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하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좁은 땅을 차지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넓은 땅을 차지할 의욕을 갖지 못했습니다. 모든 지파는 각 지파대로 더 이상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중앙집권체제의 정치를 행하기보다는 각 지파대로 각자의 행정자치제도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강력한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로 뭉쳤을 때에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지만 12개의 지파로 나뉘어서 지파별 자치행정제도를 펼쳤을 때는 작은 부족들이 모여있는 정도밖에는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각 지파별로 자치행정제도를 펼친 것으로 인해 더 이상 성막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똑 같이 적용되는 예배처소로 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한 곳에 있지 못하였으며 성물 또한 이곳 저곳으로 뿔뿔히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한 이후 3개월부터 대략 1년이 되기 전까지 세우셨던 것은 두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율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허락하신 것입니

다. 하나님께 있어서 성막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막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성막은 제대로의 구실을 하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외세의 침입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성막이 없어진 이후에 무려 이스라엘 백성은 3천 500년 동안 강력한 나라가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때의 400년 동안 외세의 침입을 받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의 120년간의 통일국가시대를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세우셨지만 저들이 성막을 지키지 못하였고 성막생활을 등한시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강력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이 앗수르왕국에 의해 멸망되었고 곧 이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왕국까지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저

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지만 북왕국에 속했던 백성은 이미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할 정도로 사라져버렸고 겨우 유다지파 사람들 중 극소수만이 고국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에 언급된 바로는 겨우 5만여명 정도라고 기록이 돼있을 정도로 지극히 적은 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멸망을 당한 이후에 이천년 동안 나라없는 백성으로 전 세계에 뿔뿔히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출애굽 했을 당시만 해도 200만명 정도 되었고 다윗시대 때에는 무려 그 수가 400만 이상이나 되었는데 그 많은 인구가 거의 없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셔서 전세계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회복이 된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땅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현재(2012년)에는 대략적으로 800만명에서 10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 제정하신 성막은 온

백성에게 열려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으로볼 때 성막이 함께 했던 적은 그리 긴 세월이 아닙니다. 모세의 성막은 겨우 40년동안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다윗을 위한 개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왕의 세운 솔로몬 성전은 백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대략적으로 400년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BC 595-BC586).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지만 워낙에 작게 만들어졌고 셀루크스 왕조에 의해 심하게 짓밟혀졌으며 로마의 지배로 인해 그 본연의 모습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BC 516-BC 60). 그 이후로 헤롯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려 80년 동안이나 걸쳐 완공되어졌던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채 BC 70년에 로마에 의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필요한 백성입니다. 저들에게 성전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전을 통해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추구하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실제적인 성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성령의 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성막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 위에 내리 쏘는 '불기둥'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을 때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희를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진행했습니다.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 니이다”(민 14:14)

이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을 백성들 한 가운데 설치했습니다. 12지파는 세 지파씩 나누어 성막 사면에 진을 쳤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백성도 움직였습니다. 성막이 가는 곳을 백성은 따라 갔습니다. 성막이 진을 치면 백성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것이 며칠이든 수개월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항상 성막에 내리 쩌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가 신호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레위지파는 성막을 걷기 시작했고 구름과 불기둥이 가는 곳을 따라 갔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출 40:36-37)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밤과 낮을 병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불기둥은 반드시 밤에만 나타났고 구름기둥은 반드시 낮에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홍해에서의 두 기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에 다다랐을 때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 왔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박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갈라지도록 명했고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자그마치 2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바다를 건넌다고 하더라도 한 두 시간 안에 건널 수는 없었습니다. 저들은 밤새도록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의 사이로 옮겨 간 것입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그 뒤로 옮

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
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
이 못하였더라”(출 14:19-20)

구름기둥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애굽 군대가
있던 곳은 어두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엔 광명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때는 낮이
아닌 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밤인데 광명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를 이해하겠습
니까?

구름기둥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
로 막았으며,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환하게
비춘 것입니다. 왜 불기둥이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췄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선 빛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
으면 쉽게 바다를 건너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역사한 것입니다. 성경
은,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
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출
14:24)라고 그 상황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한 것은 밤 중에 일어
났으며 그것이 적어도 새벽까지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함께 사역을 합니다. 불과 구름이 서로 다른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 서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였다면 구름기둥 역시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가득했기 때문에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출 40:35)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온통 구름이 가득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구름은 회막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구름이 회막 안까지 가득 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했던 것은 모세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은 구름으로 인해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왕상 8:11)

이처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그 위엄과 권능이 너무도 크고 거룩해서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으며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역시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겔 10:4)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은 항상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비단 낮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밤에도 구름은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출 40:38)

밤에 불기둥이 구름 가운데 있었음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구름이 항상 성막을 덮고 있었듯이 불기

둥이 항상 회막을 내리 찢고 있었음을 인식하시겠습니까? 구름과 불기둥은 있다가 없어지거나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듯 불과 구름기둥도 영원합니다. 구름이 항상 회막 위에 있었듯이 불기둥이 지성소에 항상 비취졌음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언약궤와 불기둥

하나님의 불기둥은 정확하게 이 속죄소의 피를 통해 언약궤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속죄소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속죄소는 예수님의 피 흘림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 9:11-12)

그렇다면 왜 하늘의 불기둥이 지성소에 비쳤을까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불기둥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비춰진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의 하나님의 실체와 불기둥으로 연결되었음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성막의 구조에서 설명 드렸듯이 회막은 네 개의 덮개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는 어둠 그 자체입니다. 다행히 성소에는 정금 등대가 있습니다. 1년 365일 켜져 있어야 했기 때문에 성소는 항상 밝습니다. 하지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 막고 있기 때문에 성소와 달리 지성소는 어둠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성막을 만들 때 성소는 밝게 하고 지성소는 어둡게 했을까요? 지성소는 인간의 빛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성소는 하늘에서 직접 내려 온 불기둥에 의해 항상 밝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빛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피 뿌리는 의식

을 행할 때에도 빛을 내는 도구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향단의 연기를 자욱하게 뿌린 후 자신과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송아지와 염소피를 뿌렸을 뿐입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 죄소를 가리우게 할찌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찌니”(레 16:12-15)

[출 33:12]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출 33:13]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
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
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
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출 33:14]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
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출 33:15]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
내지 마옵소서

[출 33:16]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
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출 33: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
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앎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며 목
이 곧은 백성이기때문에 가나안 땅에 함께 올라
가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

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황망하고 심히 근심하였을 때 모세는 다시한번 하나님께 함께 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대로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간청을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19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 해서 우리의 간구가 들어 응답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출 33:18]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 33:19]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와 이
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
니라

[출 33:20]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
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 33:2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출 33:22]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
가

[출 33:23]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을 들
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모세는 너무
나 기뻐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
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누
렸던 모세였지만 그 날은 더욱 큰 하나님의 영광
을 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

세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였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서 살 수 없음을 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계 21:23]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천국에는 성전이 있지만 거룩한성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계 21:22]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처럼 거룩한성에는 성전이 없는 이유는 하나

님의 영광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말합니다.

“[히 1: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합니다.

“[고후 4:6]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신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취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 큰데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더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후에 언약판을 들고서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빛이났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영광의 두꺼운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묻어 있었습니다.

“[출 34:29]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출 34:30]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출애굽기 34장 =====

[출 34: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처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적힌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그곳에 글을 쓰셨습니다.

“[출 32:15]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 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출 32:16]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모세더러 판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우상숭배 모습을 보며 화가 났을 때 증거판을 산에서 던져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는 증거판을 손수

깍아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가지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출 34:2]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출 34:3]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출 34:4]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깍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와 명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길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증거판을 아침 전까지 예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시내산은 대략 해발 2300미터 정도로 높은 산이었습니다. 이 높이는 한라산(1,950m)이나 지리산(1,915m)보다 훨씬 높은 산이었습니다. 이 산

의 꼭대기까지 오르기 위해 모세는 매우 힘든 등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무도 동행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그리고 온 산에 인적을 금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은 매우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처소도 매우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기도처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꾸미고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록 기도처소가 형편없는 장소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곳은 거룩한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육적으로는 냄새나고 불결한 장소이지만 영으로 기도할 때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소를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자동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으로 집중되어 하나

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어떠한 양의 소리나 소의 소리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출 34:5]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새

[출 34: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라

[출 34:7]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을 자녀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친구라기 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보면 그것이 형식화되거나 너무나 친숙해진 나머지 하나님을 하나님으

로 여기기 보다는 오히려 친구 또는 가족과 같은 매우 친근감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친구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가족보다 더 친밀한 분이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먼저 여기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길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라고 반복하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고 스스로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아비의 악을 자여손 삼 사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출 34:8]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리어 경배하며

[출 34:9]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인자를 천대나 베풀고 악을 행한 자에게 자녀 삼 사대까지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악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에 급급합니다.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에 서운해 할 것이 아니라 목이 곧고 죄 많은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지만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며 형벌을 받을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우겨대는 사람에게는 용서함도 없고 은혜도 없을 것입니다.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출 34:10]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출 34:11]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백성의 악함과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모세에게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는 말씀처럼 매우 엄

하고 두려울만한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거나 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 그 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맺은 언약에 대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재물을 우상으로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상인 재물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재물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며 재물 문제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녀를 우상으로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상된 자녀를 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녀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며 그 자녀는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우상과의 관계를 부인하려 합니다. 용서의 하나님께서 이 정도 우상 섬기는 것도 용서하지 않으실까 하면서 스스로 꺼림낌 없이 우상을 섬기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 우상숭배임을 깨닫는다면 누구라도 우상을 섬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번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으로 인해 결국 40년 동안 광야

에서 방황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저들 스스로 수명이 다 되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시키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거나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는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출 34:12]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출 34:13]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출 34:14]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출 34:15]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출 34:16]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

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
게 할까 함이니라

[출 34:17]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계명은 바로 십계명의 첫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
게 있게 말찌니라 [출 20:4] 너를 위하여 새
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
며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
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세대
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세우신 십계명의 첫번째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고 열심히 좇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자녀이든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학업이든 버려야 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출 34:18]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빕월 그 기한에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빕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교절은 출애굽 할 때부터 시작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큰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연결된 절기입니다. 아빕월 14일에 유월절이 있는 후 곧 바로 일주일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출 34:19]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네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출 34:20]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
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
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 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모든 것의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초태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짐승의 초태생도 하
나님의 것이며 식물의 초태생도 하나님의 것입
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양으로 대신 하나님
께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장자도 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중 장자
는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장자의 대속물은 레위인입니다.

[출 34:21]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칠일에는
실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실지며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절기 중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가장 빈번하게 지켜져야 할 절기입니다. 매주마다 한번씩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 칠일 때는 안식하는 것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지내야 합니다.

[출 34:22]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출 34:23]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출 34:24]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에게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세 번은 세 개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다른 여러 절기가 있지만 그 세 개의 절기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

니다. 그 세 개의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한 것을 기념하여 지내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연이어 지켜졌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며 이때 밀을 추수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또한 초막절은 광야에서 고생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출 34:25]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출 34:26] 너의 토지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출 34:2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출 34:28]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듯 음식과 물을 취하지 않을 때 20일이 못되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모세가 40일 동안 음식과 물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행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모세처럼 음식과 물을 취하지 않으면서 40일을 금식하려 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금식이라면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음식과 물을 접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 달인 닛산월 15일부터 7일동안 갖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1월 14일 하룻만에 끝을 내고 유월절이 끝난 다음 날부터 1주일간 갖는 명절이 무교절인 것입니다. 따라서 무교절은 유월절의 연속된 명절입니다.

“정월 십사일은 여호와와 유월절이며 또 그 달 십오일부터는 절일이니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민 28:16-17)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과 연관된 명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전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의 모든 첫번째 난 것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출 12:29-30). 애굽사람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을 때 이스라엘민족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피가 묻혀진 집을 지나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출 12:23)

이것이 유월절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죽음이 넘
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
다. 그러면 무교절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요?

무교절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누룩을 넣을 정
도로의 시간도 허락되지 않는 매우 긴박한 위기
의 상황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매우 급히 애
굽을 떠나 홍해 바다를 건너가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박한 상황의 고난을 통해 무교절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무교병(누룩을 넣
지 않는 떡)과 쓴 나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시대때에는 성
도들이 이 날에 금식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무교절을 잘 지키는 방법은 (1) 누룩을 집에 없
게 하는 것입니다(출12:19, 출 12:5). 이 7일 동
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야만 합니
다. 이스라엘인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하는 이
방인에게도 유교병을 먹게 했습니다. (2) 노동
을 해서는 안되었습니다(출 12:16, 레 23:7, 민
28:18). 전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날은 첫째날과
마지막날이었습니다. 나머지 5일 동안은 하나님

을 위한 노동을 했습니다. 이렇듯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며 나머지 날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했던 것입니다. (3) 성회에 참여해야 합니다(레 23:78, 출 12:16). 첫째날과 마지막날에 성회로 모입니다. 그 때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제사를 지냈습니다(민 28:19-23).

초태생의 비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 13:2]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짐승을 포함하여 사람까지도 모든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대속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모세가 헤아린 이스라엘의 1개월 이상된 장자의 수는 22,273명이었습니다(민 3:42-43). 그러나 레위인의 1개월 이상된 남자의 수는 22,000명이었습니다(민 3:39). 레위인을 대속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273명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수에 대해서 속전을 지불케 하셨습니다. 한 명당 속전은 5세겔이었습니다. 백성은 속전세를 지불하여 그것을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민 3:46]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이백칠십삼 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민 3:47] 매명에 오 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이십 게라니라 [민 3:48]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의 첫아들과 짐승의 첫 태생을 죽이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아들과 첫 태생은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첫아들과 첫 태생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출13:2-3). 그런데 이스라엘 첫아들과 첫태생 대신 레위인 남자와 레위인의 첫태생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소유로 삼은 자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었으나 그들로 성막과 제사 사역을 감당하기는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지파를 선택하여 모든 제사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신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엄격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자녀 중 초태생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들의 초태생된 자녀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셨습니다. 레위인은 모든 백성의 초태생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대속물이 된 것입니다.

”[민 8:16]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

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민 8:17]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민 8:18]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처럼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초태생을 대속하여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에게는 그 어떠한 재물을 취할수도 없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명령이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고유한 명령은 많이 퇴색되어 갔으며 많은 레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이 하나님의 대속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초태생 장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레위인을 돌보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레위인에 대한 초태생 대속제물로 삼음

은 오늘날에는 목회자로 연결되었습니다. 모든 목회자는 하나님 백성을 위한 대속제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목회자는 세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회자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정하신 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초태생 대속제물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 위에서 군림하는 왕같은 존재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면서 "모두가 똑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주장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초태생을 취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초태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중에도 초태생이 있으며 우리의 재물 중에도 초태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소산의 십일조도 함께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산의 처음 난 것과 수입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 레위인으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느 12:44]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공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바에서 거두어 이 공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오래도록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킬 때에 솔로몬 이후에 그토록 큰 기쁨이 없었는데 왕이 백성에게 헌금을 바치라고 명하자 백성들이 많은 헌금을 가져왔는데 그 헌금을 쌓아 올리는데만 자그마치 4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대하 31:7).

“[대하 31:5]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오늘날에도 소산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며 소산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

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 하나님은 예니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초태생과 십일조는 참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소금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소금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모든 거제물을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영영한 응식으로 먹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위해 하나님께 바쳐졌기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민 18:1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민 18:20]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민 18:21]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민 18:22]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민 18:23]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
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
니 이는 너희의 대대에 영원한 율례라 [민
18: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
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
라.”

일단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백성 스스로 레위인
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
을 먹여 살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헌금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헌금으로 목회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
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헌금을 하였으면 그
헌금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
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먹
이시는 것이지 성도의 헌금으로 먹이는 것이 아
닙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
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
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

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릇된 생각은 그릇된 행동을 만들며 그 사람을 그릇되이 만들게 합니다.

[출 34:29]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출 34:30]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출 34:31]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출 34:32]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출 34:33]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더불어 40일 동안 지낸 후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전이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전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빛이 되신다고 말했습니다.

“[히 1: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기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못하도록 가혹 막습니다.

“[고후 4:4]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

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고후 4:6]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출 34:34]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출 34: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모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모세는 날마다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듯 대화를 나눴습니다.

“[출 25:2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 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보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 12:8]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 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했던 기도법이었습니다.

“[민 7:89]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지만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잊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단순히 우리의 아뢰는 말을 올릴 뿐 더 이상의 기도는 없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란 사실 자체가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 사라지고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 그 자체입니다. 마치 모세가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곧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형식을 좋아하고 전통을 좋아하기 때문에 형식이 없는 기도가 점점 형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기도는 사람들의 전통적인 의식에 첨가되었던 하나의 형식적인 것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형식대로 기

도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이러한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만남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어떠한 의식이나 형식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송아지를 잡을 필요도 없었고 염소를 잡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향불을 피울 필요도 없었으며 정금 등대를 들고 들어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예복을 벗고 세마포 옷만 입은채 들어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세가 평소 입었던 옷차림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다루는 것을 싫어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함부로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인 아론조차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레 16: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한 질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성소에는 일년에 단 하루만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예복을 벗고 세마포만 입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분향단 향불을 피워야만 했고, 송아지와 염소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무시하지도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경배자는 그 어떠한 형식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편안하게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결코 무례하거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모세의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출애굽기 35장 =====

[출 35:1]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출 35:2]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칠일은 너희에
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출 35:3]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
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
께 하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다 전해 듣
고 내려왔을 때 백성을 모으고 가장 먼저 선포한
법은 '안식일'의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임을 말해줍
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도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는 것은 네 번째 법이었습니다.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

라 [출 20: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출 20:10]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 20: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안식일의 법을 이행하지 않는 자를 돌로 쳐 죽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 15:32]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민 15:33]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 왔으나 [민 15:34]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

더니 [민 15:3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찌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찌니라 [민 15:36]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
신대로 하니라”

[출 35: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
라 이르시기를

[출 35:5]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
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
과

[출 35:6]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과 염소
털과

[출 35:7]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
죽과 조각목과

[출 35:8] 등유와 밋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출 35:9]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

나라

모세는 안식일의 법을 말한 이후에 곧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선포하였는데 그것은 '헌금'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되 백성들의 헌물을 통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 손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출 34:20]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 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찌니라”

[출 35:10]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모세는 “지혜로운 자는 와서” 성막을 만드는 것을 동참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 성막 만드는 일의 책임자로 세우셨지만 원하는 모든 백성은 누구든지 나와

서 성막 만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출 3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 31:2]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출 31:3]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출 31:4]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출 31:5]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고 [출 31:6]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찌니”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출 35:11] 곧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같고

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출 35:12]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장과

[출 35:13]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출 35:14] 불 켜는 등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출 35:15]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장과

[출 35:16]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출 35:17]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장과

[출 35:18] 장막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출 35:19]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명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하심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도 산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
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
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도 성막을 통해 하
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천국에는 성막이 있으
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국의
성막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성막을 만들라 명하
셨던 것입니다.

”[계 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
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출 35:20]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
에서 물러갔더니

[출 35:21]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
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

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은 백성은 스스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경은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이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거나 성령의 감동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말1:8]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돌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납하겠느냐 [말 1:9]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

나인들 받겠느냐 [말 1:10] 만군의 여호와
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
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
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
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바울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
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
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출 35:22]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
핀과 귀고리와가락지와 목거리와 여러가지 금
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출 35:23]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
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출 35:24] 무릇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출 35:25]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낚고 그 낚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 실을 가져왔으며

[출 35:26]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낚았으며

[출 35:27]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밋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출 35:28]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모두 백성들이 자원해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돈을 주고 사거나 이방인에 의해 구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재료들이 백성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백성들이 손수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금 예물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들의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가슴 핀과 귀고리와가락지와 목거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벽돌 한 장을 쌓고 내 손으로 직접 실 한 올을 뜨는 것입니다.

[출 35:29]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성경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예물을 가져오는 자를 싫어하시며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 1: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사 1: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 1: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상한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썩어지고 버릴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억지로 바치며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한 예물에 역겨워하시며 토하시겠다 하십니다. 마땅히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출 35:30]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

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의 아들인 브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출 35:31]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
시되

하나님은 성막제작을 위해 두 사람을 세우셨습
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두 사람으로 지목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
하기 위해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성막제작을 위
해 이처럼 두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능력이 뛰어나
고 모세와 친하기때문에 쓰임을 받았다고 생각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
홀리압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
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꾼을 세우실 때 직
접 세우십니다. 그렇기때문에 교회나 사역처의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 받았다는 사실
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움 받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
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
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

금 성령 충만케 만드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 35:32]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일하게 하시며

[출 35:33]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브살렐에게 맡기신 일들은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일이 어떻게 구분되었는지

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35절에는 오홀리압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 기록되었습니다.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 나니"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 리압을 통하여 성막의 모든 것을 제작토록 인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출 31:6] 내가 또 단 지 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 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찌니"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 들이 해야 할 일을 직접 명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 듯 한 사람의 전문가를 세우시기 보다는 두 사람 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케 하신다는 사 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제자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파토록 하신 것처럼 성막제작의 일을 위해서도 두 사람의 전문가를

세워 서로 연합하여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인도하도록 세운 사람은 모세였지만 이처럼 성막제작을 위해서는 두 사람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둘로 함께 합니다. 물론 가정의 가장은 남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가정을 이끌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출 35:34]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출 35:35]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로 수 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성경은 오홀리압에게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임하여 성령님께서 그를 가르치시고 그가 지혜롭고 총명하게 일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초점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의 능력을 기록하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돕고 있는지에 대해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우실까를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의지나 지식이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이뤄진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뽐내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

[출 36:1] 브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출 36:2]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출 36:3]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 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 오는 고로

하나님은 성막제작을 위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을 함께 세우시고 저들로 하여금 성소의 모든 일들을 맡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원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 저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예물을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출 36:4]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출 36:5]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와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출 36:6]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무론 남여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출 36:7]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백성들이 성막 짓는데 사용될 예물을 가져나올 때에 그 양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을 짓기 위해 노력을 다 하였던 것입니다. 여자들은 자신의 보물들과 장식품을 가져왔습니다. 손수 청색 홍색 자색 흰 베실로 양장을 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막에 쓰일 조각목을 가져왔으며 모든 성막에 쓰일 재료는 백성들의 손에 의해 준비되었습니다.

“[출 35:21]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출 35:22]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거리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 왔으며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출 35:23]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

는 자도 가져 왔으며 [출 35:24] 무릇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
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
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 왔으며 [출 35:25]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낚
고 그 낚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
을 가져 왔으며 [출 35:26]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낚았으며 [출 35:27]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밋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 왔으며
[출 35:28]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
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 왔으니 [출 35:29]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오는 백성은 하나님의 나
라를 위해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몸되
신 교회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큰 축복입니다.

[출 36:8]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 폭 양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모세는 성막 짓는 일을 위해 지혜로운 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막 안에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 회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었습니다. 회막은 네 개의 덮개로 덮어졌습니다. 첫번째 덮개는 세마포 양장이었습니다. 이 양장은 베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졌습니다.

[출 36:9] 매폭의 장은 이십팔 규빗, 광은 사 규

빛으로 각 쪽의 장단을 같게 하여

[출 36:10] 그 다섯 쪽을 서로 연하며 또 그 다섯 쪽을 서로 연하고

[출 36:11] 연락할 말쪽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쪽 가에도 고를 만들되

[출 36:12] 그 연락할 한 쪽에 고 오십을 달고 다른 연락할 한 쪽의 가에도 고 오십을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출 36:13] 금 갈고리 오십을 만들어 그 갈고리 로 두 양장을 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를 덮을 덮개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막'은 '성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덮개는 천으로 짠 양장입니다. 사용된 실 색깔을 보면 성막문에 쓰인 것과 같습니다. 성막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청색은 생명되신 예수님을,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흰색(베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두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짠 것입니다. 염소는 희생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양이나 소에 비해 값

어치가 떨어진 제물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 의식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대제 사장은 두마리의 염소와 한 양과 한 소를 준비합니다. 그 중의 한 마리 염소는 살려 둡니다. 모든 제물짐승이 죽임을 당하여 의식을 치른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광야로 보내었습니다. 성경은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낸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 16:21]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찌니”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지고가신 염소와도 같으셨습니다. 염소털로 덮개를 만들었던 것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덮개는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양 역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양은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 1:35]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 1:36] 예수와 만나니 그를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번째 덮개는 해달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해달가족은 바다표범 종류의 바다짐승 가족입니다. 맨위의 덮개를 이처럼 해달가족으로 했던 것은 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해달가족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방수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주님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악한 세력이 저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첫번째 양장의 크기는 장(길이)이 28 규빗이고 광(폭)이 4 규빗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섯 폭씩 두개를 만들었습니다. 다섯폭의 길이는 28규빗 x 20 규빗입니다. 한 규빗을 50cm 로 계산했을 때 대략 15미터 x 10 미터 정도입니다. 이것이 두 개로 나뉘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크기는 길이가 15미터이고 폭은 20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크기는 성소의 크기보다 긴 것입니다. 성소의 크기는 길이 20규빗 x 폭 10 규빗입니다. 이는 길이 10미터와 폭 5미터 크기입니다. 덮개가 이렇듯 성소보다 긴 이유는 온전히 성소를 덮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 36:14]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양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십일 폭을 만들었으니

[출 36:15] 각 폭의 장은 삼십 규빗, 광은 사 규빗으로 십일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출 36:16] 그 양장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하고

[출 36:17] 양장을 연락할 말폭 가에도 고 오십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 가에도 고 오십을 달고

[출 36:18] 낫 갈고리 오십을 만들어 그 양장을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두번째 덮개인 염소털로 짠 덮개는 첫번째 양장으로 만들어진 덮개보다 약간 그 길이와 폭이 길게 제작되었습니다. 첫번째 양장 덮개는 28규빗

이었는데 두번째 염소털덮개는 30규빗입니다. 또한 폭은 한쪽의 것이 6개의 양장을 연결시켰습니다. 결국 11개의 양장이 된 것입니다.

“[출 36:14]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양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십 일폭을 만들었으니 [출 36:15] 각 폭의 장은 삼십 규빗, 광은 사규빗으로 십 일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두번째 덮개가 첫번째 덮개보다 2규빗 더 큰 이유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막 곧 양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드리우고”

[출 36:19]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었더라

세번째 수양가죽 덮개와 네번째 해달가죽 덮개의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염소털덮개의 크기와 같거나 조

금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길이가 작을 경우엔 다른 덮개가 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맨 위 덮개가 다른 덮개보다 같거나 더 크게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 36:20]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출 36:21] 각 판의 장은 십 규빗, 광은 일 규빗 반이며

[출 36:22] 각 판에 두 축이 있어 서로 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출 36:23]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남으로는 남편에 널판이 이십이라

[출 36:24] 그 이십 널판 밑에 은받침 사십을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축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축을 받게 하였으며

[출 36:25] 성막 다른 편 곧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이십을 만들고

[출 36:26] 또 은받침 사십을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밑에도 두 받침이

며

[출 36:27] 장막 뒤 곧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을 만들었고

[출 36:28]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출 36:29]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출 36:30] 그 널판은 여덟이요 그 받침은 은받침 열 여섯이라 각 널판 밑에 둘씩이었던라

[출 36:31]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출 36:32]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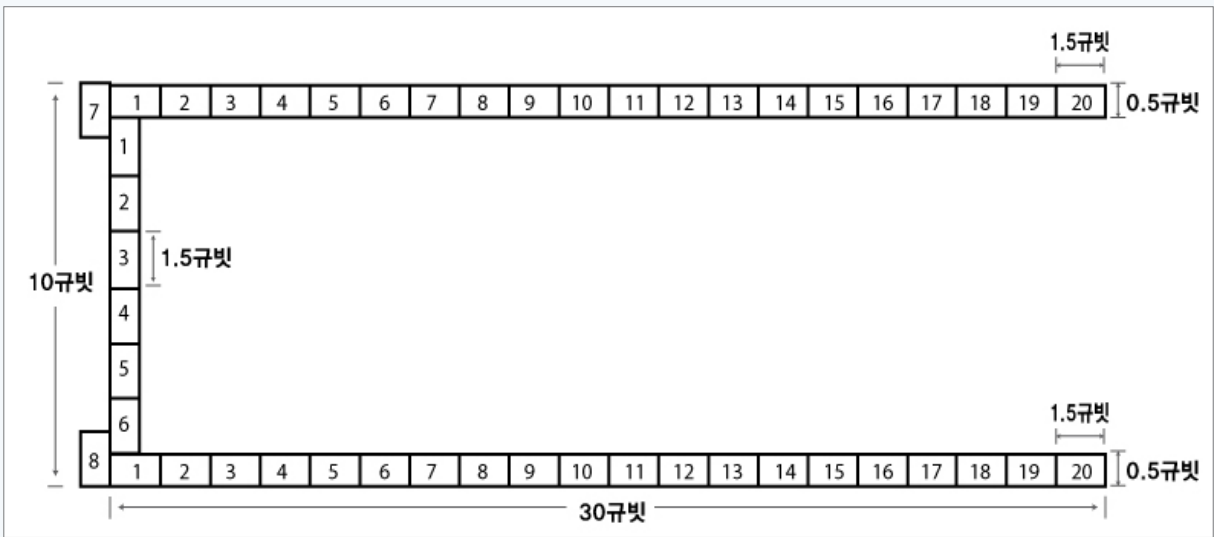
[출 36:33]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출 36:34]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싹터라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본문에는 성소를 '성막'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뜻하는 바를 본문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성소를 둘러 싸고 있는 벽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막의 전체 크기는 북쪽과 남쪽 길이가 100규빗이고 동쪽과 서쪽의 길이가 50규빗으로 이뤄졌기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널판은 성막 전체를 의미하기 보다는 성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소의 크기는 전체 30규빗(15미터)이었습니다. 그 중의 20 규빗(10미터)은 성소의 길이이고 나머지 10규빗(5미터)는 지성소 길이였습니다. 벽으로 세워진 널판 하나의 폭이 1.5규빗이고 이것이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씩 만들어졌기 때문에 $1.5\text{규빗} \times 20 = 30\text{ 규빗}$ 이 되어서 결국 성소의 길이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성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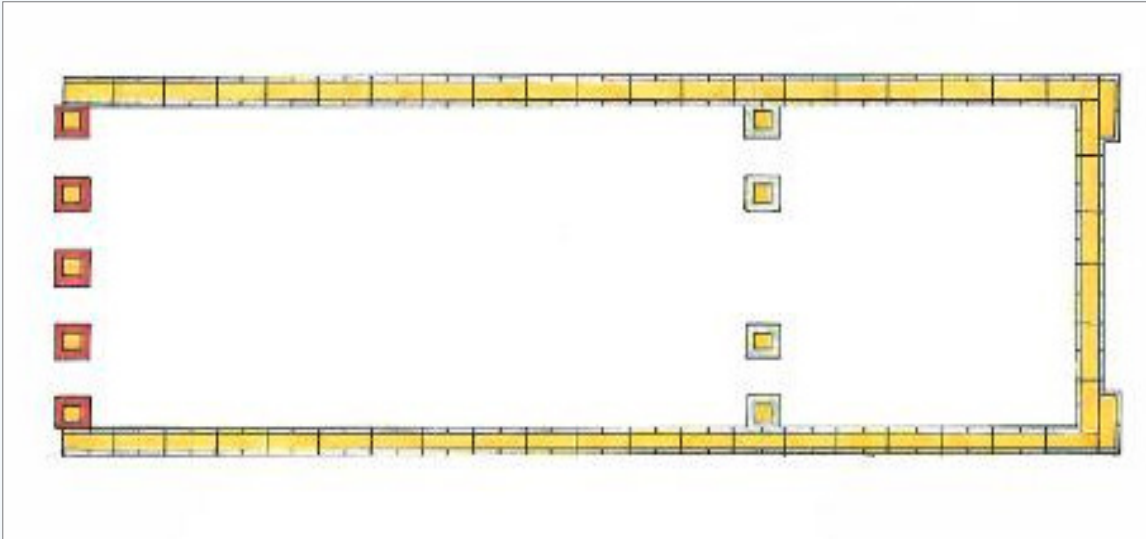
놓여져 있는 서쪽에는 6개의 널판이 세워져 있어서 성소의 폭의 길이는 9규빗(4.5미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막의 서쪽편의 길이 10규빗에서 1규빗이 부족하게 되는데 나머지 1규빗은 남쪽과 북쪽에 세워진 널판지의 두께부분에 해당되어서 정확히 10규빗이 맞게 됩니다. 널판 밑에는 은받침이 놓여져 있어서 널판을 강하게 지탱하고 있었으며 각 널판을 끈으로 연결하였기 때문에 성소를 아주 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출 36:35]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 놓고

[출 36:36]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싹으며 그 갈고리는 금이며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것을 마련토록 하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네 개의 기둥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둥들 윗쪽에 고리를 만들어 휘장을 걸치도록 했습니다.



[출 36:37]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 놓아 장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출 36:38] 문장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싹으며 그 다섯 받침은 놋이었더라

하나님은 성소에도 휘장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막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거쳐야 하는 휘장이었습니다. 성소 휘장은 높이 10규빗(5미터)이고 넓이는 9규빗(4.5미터)입니다. 성소를 지탱하도록 만들어 놓은 성소의 벽의 널판 높이가 10규빗이었으므로 성소의 높이는 10규빗인 것입니다.

“[출 26:15]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출 26:16] 각 판의 장은 십 규빗, 광은 일 규빗 반으로 하고”

또한 넓이가 9규빗인 것은 성소의 서쪽(지성소가 있는 쪽)에 널판은 6개 연하여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널판 넓이는 1.5규빗이기 때문에 전체를 계산하면 9규빗이 되는 셈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막문을 통과하는 일반 회중과는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회중은 오직 성막뜰에만 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볼 때, 성막뜰은 일반 회중이 들어가는 곳이며 성소는 예배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은받침으로 되어 있지만 성소 휘장은 놋받침으로 되어있습니다. “...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을 놋으로 부어 만들찌니라”(37절). 지성소 휘장을 지탱하는 기둥은 네 개인 반면에 성소 휘장을 지탱하는 기둥은 다섯

개였습니다.

출애굽기 37장 =====

[출 37:1] 브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 고가 일 규빗
반이며

[출 37:2]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
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출 37:3]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
으니 곧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출 37:4]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출 37:5]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메
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
막을 짓게 하셨을 때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언약궤가 가
장 먼저 언급되었던 것은
언약궤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궤의 크기는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 고가 일 규빗 반"이었습니

다. 한 규빗이 대략 50cm이기 때문에 언약궤의 크기는 1.25미터 x 0.75미터 x 0.75미터 였습니다. 이 정도의 크기는 사과상자보다 약간 큰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매우 흔한 나무이며 볼품도 없고 별로 사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나무입니다. 나무에 가시가 많아서 사용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매우 딱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언약궤에 가장 불필요한 나무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죄많은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볼품도 없고 늘 가시많은 존재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기 십상이고 심령이 굳어 있어 딱딱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성품이 없어 늘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더러운 인간을 고귀한 성전으로

삼으셨듯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언약궤를 정금으로 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윗가를 금테로 두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의 손으로 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채를 만들어 사람으로 들고 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언약궤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언약궤 속에 "증거판"을 두게 했습니다.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 주신 율법과 계명이 담긴 돌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이 되는 언약궤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 행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출 37:6]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이며

[출 37:7]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출 37:8] 한 그룹은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출 37:9]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과 광이 언약궤의 크기와 같습니다. 속죄소의 크기는 이 규빗 반과 일 규빗 반입니다. 언약궤는 장(길이)과 광(폭)과 고(높이)가 있는 반면에 속죄소는 장과 광 밖에는 없습니다. 언약궤 위에 놓여지는 뚜껑 역할이다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속죄소는 정금을 두들겨 패서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속죄소 위에는 두 개의 그룹이 속죄소 양 끝에 놓여져 있는데 두 그룹과 속죄소가 모두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그룹은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으며 서로 얼굴을 마주 하면서 속죄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이 이처럼 서로 마주보며 있는 것은 그 만큼 속죄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이 들어 있습니다. 증거판은 하나님의 주신 계명과 율법이 적혀져 있는 돌판입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만나 향아리는

언약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출 37:10]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이 규빗, 광이 일 규빗, 고가 일 규빗 반이며

[출 37:11] 정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테

를 둘렀으며

[출 37:12]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

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출 37:13]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

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출 37:14]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메는

채를 꺾게 하였으며

[출 37:15] 또 조각목으로 상 멜 채를 만들어 금

으로 싹으며

[출 37:16]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

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하나님은 진설병을 만들라고 명하시면서 구체

적인 크기와 기구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설

병의 크기는 장(길이)이 이 규빗이고 광(폭)이

일 규빗이며 고(높이)가 일규빗 반이었습니다.

약간 길다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설병은 역시 언약궤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 가장 하찮은 나무입니다.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로써 매우 딱딱하고 가시가 많은 나무입니다. 이러한 조각목은 매우 딱딱하고 가시가 많은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목이 곧은 백성이며 인생의 환란과 역경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조각목 인생에 정금으로 싸서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조각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진설병 역시 매우 고귀한 성물이기때문에 함부로 만져서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궤를 매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므로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으며 언약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보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출 37:17]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출 37:18] 여섯 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세 가지는 이 편으로 나왔으며

[출 37:19]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가 그러하며

[출 37:20]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출 37:21]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출 37:22]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출 37:23]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뚝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출 37:24]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금등대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정금등대는 모두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달란트로 만들었는데 한 달란트는 대략 34kg 정도되는 양입니다. 정금등대는 정금으로 쳐서 모두 하나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정금등대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정금등대의 빛은 주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빛되신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완전해집니다. 정금등대의 일곱개의 등대는 완전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가운데의 등대는 주님을 상징하며 양 옆으로 만들어진 6개의 등대는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며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이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완전해집니다.

정금등대는 살구꽃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살구꽃을 알몬드(almond)로 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살구꽃 모양의 형태는 부활, 희망, 보호를 상징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익

히 알려져 있습니다.

[출 37:25]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일 규빗이요 광이 일 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이 규빗이며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

[출 37:26]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출 37:27] 그 테 아래 양 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 편에 만들어 단을 메는 채를 꺾게 하였으며

[출 37:28]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싹으며

[출 37:29]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분향단 또한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분향단은 번제단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번제단에도 뿔이 있었지만 분향단에도 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제단에 비해 크기가 작았습니다. 번제단은 가로 세로 2.5규빗이지만 분향

단은 가로 세로 일규빗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번제단은 그곳에서 번제로 짐승을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올려 드렸지만 분향단은 오직 향불을 피워 향기로운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번제단은 주님을 향한 헌신을 의미하지만 분향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분향단은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렇듯 분향단이 휘장 바로 앞에 놓여진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은 죄인인 인간을 상징합니다. 조각목은 가시가 많으며 다른 가지에 상처를 주며 딱딱한 나무였습니다. 이러한 조각목의 특성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각목은 매우 하찮은 나무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분향단을 매우 하찮은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분향단의 길이와 폭이 같은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며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모든 기도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두 들어 응답될 것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8장 =====

[출 38:1]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오 규빗이요 광이 오 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삼 규빗이며

[출 38:2]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놋으로 싹으며

하나님은 성막 뜰에 번제단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번제단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각 모퉁이마다 뿔이 있었으며 놋으로 싸여졌습니다. 번제단에는 희생제물이 불로 태워졌습니다.

[출 38:3]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출 38:4] 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출 38:5]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출 38:6]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낫으로 싸고

[출 38:7]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메게 하였으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었더라

번제단에는 여러가지 부속기구가 함께 준비되었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이 번제단과 함께 있습니다. '재를 담는 통'은 번제단에 떨어진 재를 긁어모아 담는 통을 말합니다. '부삽'은 번제단의 떨어진 재를 긁어모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대야'는 짐승을 잡아 각을 떼서 그것을 번제단으로 옮길 때 사용되었습니다. '고기 갈고리'는 대야로 운반해 온 고기를 번제단 위로 들어 올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번제단 절반쯤에 낫으로 된 그물을 달았습니다. 또한 번제단은 운반할 수 있도록 네 기둥에 고리를 만들어 채를 꿰 수 있게 했습니다.

[출 38:8] 그가 낫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낫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

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두멍을 낚으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낚은 곧 주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낚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도록 하셨습니다.

“[민 2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 21:9] 모세가 낚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낚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요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 3:15]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물두멍의 낚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

울로 만들어졌습니다. "[출 38:8] 그가 낚으로 물 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낚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듯 물두멍이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진 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인들의 거울은 여인들의 외모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그것을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출 38:9]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남으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인 백 규빗이라

[출 38:10]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낚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출 38:11] 그 북편에도 백 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낚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출 38:12] 서편에 포장은 오십 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

름대는 은이며

[출 38:13] 동으로 동편에도 오십 규빗이라

[출 38:14] 문 이편의 포장이 십오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출 38:15] 문 저편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편, 저편의 포장이 십오 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출 38:16]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요

[출 38:17]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출 38:18] 뜰의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 놓아 짠으니 장은 이십 규빗이요 광 곧 고는 뜰의 포장과 같이 오 규빗이며

[출 38:19]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출 38:20]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놋이더라

성막의 크기는 광(길이)이 100규빗이고, 장(폭)이 50규빗입니다. 한 규빗을 50cm 로 계산한다

면 길이 50미터에 폭이 25미터입니다. 성막문은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50미터 이고 북쪽과 서쪽은 100미터입니다.

성막문은 20규빗입니다(16절). 무려 10미터나 되는 문이기때문에 매우 크고 넓은 문입니다. 성막은 오규빗(2.5미터)마다 기둥을 세웠습니다. 전체 60개의 기둥이 세워졌는데 동쪽과 서쪽에 각각 10개씩, 북쪽과 남쪽에 각각 20개씩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기둥과 기둥 사이는 5규빗(2.5미터)입니다. 높이도 5규빗이고 기둥간의 간격도 5규빗이기때문에 정사각형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번제단이 5규빗 x 5규빗인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성막기둥을 세마포장으로 둘러싼 것이 성막입니다. 하지만 성막문은 특별히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베실(흰색)로 특별히 천을 짜서 만들었는데 이는 예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청색은 생명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베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9장 =====

[출 39:1]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출 39:2]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곤 베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출 39:3] 금실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대제사장의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곤 베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었습니다. 금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청색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색실은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홍색실은 고난당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베실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출 39:4]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서로 연하게 하고

[출 39:5]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에봇에 붙여 찢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출 39:6]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테에 물려인을 새김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출 39:7]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견대'는 에봇을 고정시킬 때 사용된 것입니다. 흉패는 가슴과 등 쪽에 각각 하나씩 준비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흉패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견대인데 '멜빵'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견대에는 호마노 보석이 달려져 있었는데 그 호마노에는 매우 정교하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양쪽 견대에 붙여진 각 호마노마다 이스라엘 12 아들의 이름이 년수에 따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그 견대의 호마노는 홍패와 연결되었습니다. 호마노에다가 정금으로 사슬을 땀아서 홍패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옛날 궁중에서 관리들의 옷의 허리춤에 메어져 있는 ‘관대’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 에봇 띠 역시 금색실과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과 베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졌습니다.

[출 39:8] 그가 또 홍패를 공교히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하였으니

[출 39:9] 그것의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으로 네 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출 39:10]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 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출 39:11]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출 39:12]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출 39:13]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금테에 물렸으니

[출 39:14]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인을 새김 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출 39:15] 그들이 또 정금으로 사슬을 노끈처럼
땡아 흉패에 붙이고

[출 39:16] 또 금테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출 39:17] 그 두 땡은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
에 꿰어 매었으며

[출 39:18] 그 땡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테에 매고

[출 39:19]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에 대한 안쪽 가에 달았으며

[출 39:20]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
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에봇
띠 윗편에 달고

[출 39:21]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
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
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위 본문은 에봇 위에 걸려진 흉패에 관한 언급입
니다. 흉패 역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
늘게 꼰 베실로 짜졌습니다. 그곳에 12개의 보석

이 박혀있도록 만들어졌는데 한 보석의 크기는 장(길이)과 광(폭)이 한뼘씩이었으며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가로 세 줄, 세로 네 줄로 전체 12개의 보석이 박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12개의 보석에는 각각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졌습니다.

이 흉패는 윗쪽 견대와 에봇의 아래부분 가장자리와 금사슬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봇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이 이처럼 정교하고 화려했던 것은 왕같은 제사장을 연상케 합니다. 마치 왕의 의상처럼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대제사장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 입혀 주실 세마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일반 제사장은 흰색 세마포와 흰색 화관과 흰색 허리띠를 멘 것 외에는 별다른 장식품이 없지만 대제사장은 매우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있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대제사장보다도 같은 화려한 예복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계 19: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

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계 19:8]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출 39:22]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출 39:23]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출 39:24]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 놓고

[출 39:25]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 사이에 달되

[출 39:26]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출 39:27]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베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출 39:28]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베실로 짜서 세마포 고의들을
만들고

[출 39:29] 가는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
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
하신 대로 하였더라

대제사장의 에봇은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
멍을 내었습니다. 통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에봇은 갑옷 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
게 했습니다. 이것은 천을 두겹으로 덮여 짠 것
을 의미합니다. 에봇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석
류를 수 놓고 금방울과 함께 달았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
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34절).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금방울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출 39:30]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
들고 인을 새김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출 39:31]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출 39:32]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출 39:33]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출 39:34]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우는 장과

[출 39:35]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출 39:36]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출 39:37] 정금 등대와 그 잔 곧 벌여놓은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출 39:38] 금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문장과

[출 39:39] 놋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대제사장의 이마에 금패를 둘렀습니다. 그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인으로 새겼습

니다. '여호와와 성결'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쉬>입니다. 이 단어는 '거룩함' '분리됨' 입니다. 이 말은 곧 '정결과 거룩'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정결과 거룩함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이마에 금패가 있어 그곳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쓰여진 것은 제물로 가져온 성물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출 39:40]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회막의 소용 곧 성막의 모든 기구와

[출 39:41]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출 39:4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매

[출 39:43]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는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성전건축이 모두 끝났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의지와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한 대로 따르며 행하는 자를 오히려 더 기뻐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40장 =====

[출 40: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 40:2] 너는 정월 초일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드디어 성막이 완공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난지 대략 1년이 되었을 때 성막이 완공된 것입니다. 이스라엘백성이 애굽을 떠난 것은 아빍월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아빍월 14일에 치러졌으니 성막이 완공된 것은 대략 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출 12:2]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 40:3] 또 증거궤를 들어 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출 40:4] 또 상을 들어 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어 놓고 불을 켜고

[출 40:5]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장을 달고

[출 40:6]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출 40:7]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출 40:8]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
을 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지은 성막에는 다
음과 같은 성물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1) 성막뜰:
번제단과 물두멍, 2) 성소: 진설병, 정금등대, 분
향단, 3) 지성소: 속죄소, 언약궤.

하나님께서 성막에 이러한 성물을 준비케 하신
것은 각 성물마다 영적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성막은 천국의 성막을 본 따 만
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
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
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
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각 성물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막문: 문되신 주님, 2) 번제단: 하나님께 헌신 서약, 3) 물두멍: 죄의 회개, 4) 진설병: 생명의 양식을 구함, 5) 정금등대: 성령님의 초청, 6) 분향단: 영적기도인 방언기도를 드림, 7) 속죄소: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게 함, 8)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통해 의식을 집행하도록 하신 것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성막을 통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출 40:9]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출 40:10]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하나님은 성막의 성물에 관유를 바르도록 명하셨습니다. 관유를 성물에 바르게 하신 이유는 성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 40:11]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출 40:12]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출 40:13]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출 40:14]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겹옷을 입히고

[출 40:15]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성물 뿐 아니라 의식을 집행하는 제사장들에게도 관유를 붓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로 하여금 거룩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백성을 섬기도록 택함받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부음은 저들을 구별하고 성별하며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내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출 40:16]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출 40:17] 제 이년 정월 곧 그 달 초일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것은 '제 이년 정월 곧 그 달 초일일'이었습니다. '제 이년'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떠난지 만 1년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정월 곧 그 달 초일일'은 아빕월 1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빕월에 출애굽 하게 하셨고 그 아빕월을 정월로 삼으셨습니다.

”[출 12:2]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 40:18]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출 40:19]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출 40:20]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출 40:21]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 놓고 장을 드리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출 40:22]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출 40:23]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출 40:24]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출 40:25]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출 40:26]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장 앞에 두고

[출 40:27]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출 40:28] 그가 또 성막 문에 장을 달고

[출 40:29]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1)성막뜰, 2)성소 3)지성소.

성막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여져 있으며 회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진설병과 정금등대, 그리고 분향단이 놓여져 있으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뚜껑 역할인 속죄소가 놓여져 있습니다.

회막의 크기는 전체 30규빗(15미터)이었습니다. 그 중의 20규빗(10미터)은 성소의 길이이고 나머지 10규빗(5미터)는 지성소 길이였습니다. 벽으로 세워진 널판 하나의 폭이 1.5규빗이고 이것이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씩 만들어졌기 때문에 $1.5\text{규빗} \times 20 = 30\text{ 규빗}$ 이 되어서 결국 성소

의 길이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성소가 놓여져 있는 서쪽에는 6개의 널판이 세워져 있어서 성소의 폭의 길이는 9규빗(4.5미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널판 밑에는 은받침이 놓여져 있어서 널판을 강하게 지탱하고 있었으며 각 널판을 끈으로 연결하였기 때문에 성소를 아주 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출 40:30]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출 40:31]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출 40:32]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출 40:33]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하셨는데 또 다시 물두멍을 통해 손과 발을 깨끗

이 닦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제사장에게는 정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는 하나님께 정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출 40:34]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출 40: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성막을 완공하였을 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모세는 감히 회막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전 3:17] 누구든지 하나
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
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
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체험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고 거
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
룩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있게 충
만히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 40: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
행하였고

[출 40:37]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
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출 40:38]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듯이 우리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아야 합니다. 비록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한 예배를 통해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고도 산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
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
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
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
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
위가 터지고”

이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것입
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
전히 성막을 통한 예배나 기도를 구식방법이라
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
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한 것이며 이것은 천국의 예배방법을 그대로 인
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한 예배는 단지
이 땅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성막을 통해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데이빗의 영맥주석(David's Commentary):
출애굽기

초판발행	2025. 10. 22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 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